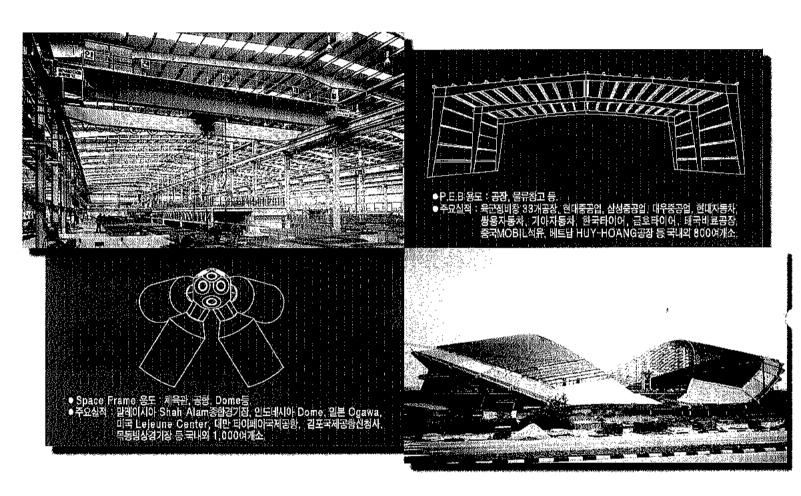




적인 한백의 정단기술

P.E.B & Space France



지난 20여년간 특수철구조물만을 개발하여온 한맥기술진은 Computer Software를 응용하여 3차원 구조역학의 P. E. B(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와 Space Frame System을 자체개발, 대규모 무주공간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철구조물에 비하여 30% 원가절감은 물론 현장조립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연간 7만여톤을 제작·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Asia 최대의 특수철구조물 Maker로 외관이 미려한 혁신적인 철구조물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상담 (02)783-9999



MORE 50 YEARS





HANMAEK HEAVY IND. CO.,LTO.

사 · 공장 : 경기도 시홍시 시화공단 B-1 나-707

TEL: (031)499-0114(代), FAX: (031)498-0511 ● 서울시무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49(선기발당 4층)

TEL: (02)783-9999(ft), FAX: (02)785-0030

http://www.hanmeak.co.kr

정부조달 우수제품 인정 신기술 KT 인정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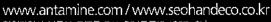
불연 인테리어 건축 내장 마감재

CHEHL

물에 알타면서 물의 확산을 막아줍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칼라, 패턴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충격에 강합니다.

소방법, 건축 에서의 해방

2002, 4, 1 소방법 개정시행(대통령 등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업소의 벽체, 천정에 설치하는 실내장식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메리짐 및 취급점 토집중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당장병명대출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0%~13.5%

간 / 1년~5년 (수시상환,연장,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궁 특별상담

■담보대출: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최저 6.0%

■스피드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 가능

최고액 대출

신속한 처리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버팀보 절약형 흙막이 공법



기존공법과의 비교

일반 흙막이 공시에 주로 이용되는 Strut 지지공법과 신공법인 PS 흙막이 공법의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STRUT 공법	PS 공법
주 요 사용자재	· SS41 (H-300×300)	· SS41 (H-300×300)
사 공 성	· 서공실적이 많다. · 숙련도가 높다. · 강제사용이 많아 작업능률이 저하된다. · 용접 및 BOLT조립으로 시공속도가 저하된다. · Strut, Post Pile의 간격이 좋아 토공작업시 능률이 떨어진다. · 본 구조물 시공시 작업공간 협소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된다. · 굴착모양에 따라서 많은 제한 을 받는다.	· 겹띠장 설치서 정밀시공을 요한다. · 강재 사용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되어 작업능물이 좋다. · 시공속도가 빠르다. · STRUT및 POST PILE의 간격이 훨씬 늘어나서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 본 구조물 시공서 작업공간 확보로 인하여 품질을 높일 수가 있다. · 굴착모양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현장 시공시 일반 SCREW JACK을 사용함으로 인히며 주변지반의 변위가 많이 발생 한다.

CABLE을 이용하여 PRESTRESS書 가하기 때문에 주변지반의 변위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강재 사용량이 많이 비경제적 OIC. · STRUT 설치간격이 좁아서

시공속도가 느리다.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굴착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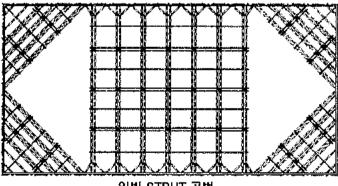
업시 시간이 지연된다. · 공기가 같다.

사용강재가 출계되어 경제적이다. STRUT및 POST PILE, WAL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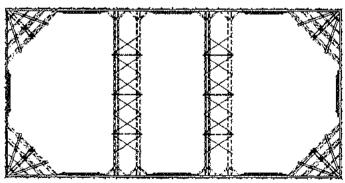
STRUT및 PUST FILE, WALLS 줄어들어 시공속도가 빠르다.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굴착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기가 짧다.

· Earth Anchor경우와 같이 인접지 동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일반 STRUT 공법



PS 공법



피에스 건설 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1통 534번지 유진B/D 2F

● TEL 02-478-4530~2

@ FAX 02-474-3618

● 書叫○「지: www.pseng.co.kr Ø e-mail: ps4530@kornet.net

스케이미크

미니로타리식 입제주차장치

300

SKY PARK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01903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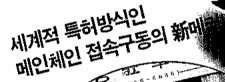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190326호

10年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測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에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u>출 슬 림 형"</u>





■ 이 렇게 다 릅 니 다

<u>Protona</u>

소녀게 가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항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 를 검색하십시오.

종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신제품

지상설치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5mm!

■ 사 양 (뉴 그 랜 저 급 진 입 가 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 5	5 II	4570	6090	6830
SKY PARK- 6	6 UI	4570	6090	7720
SKY PARK- 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 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 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변경 보고 198 년 198 년



www.Juchagi.com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TEL: (053)956-8838(代)

● 전국무료전화: 080-567-7788 ● 서울A/S센터: (02)3665-2723 • p.p : 011-507-8838

• E-mail : cgp210@kornet.net • 부산 A/S센터 : (051)784-6721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authorized system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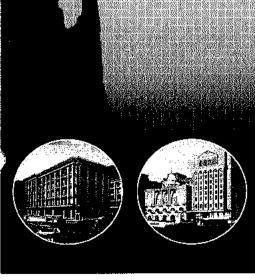
설계자 중심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 파우더 형식의 소재로 되어 있어 모양과 색성, 패턴의 조정이 쉽습니다.
- · 천연소재의 색상 채용을 통해 자연스럽고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 10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며, 일반식멘트와는 달리
 천연 세광의 소재용 적용,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업니다.

건축내외장제로서의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 · 일반시멘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강도를 자랑합니다.
- 완전방수이면서 세리막과 같은 공기의 투파건능이 있어 단열은 물론, 열팽창률이 적어 점씨 1,200도 이상의 교온도 견뎌냅니다.
- · 초박막 시공과 초형이 가능해 건물의 하중 부담을 줄여줍니다.
- 다양한 쓰임책의 건축자재로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튼튼하게 표현합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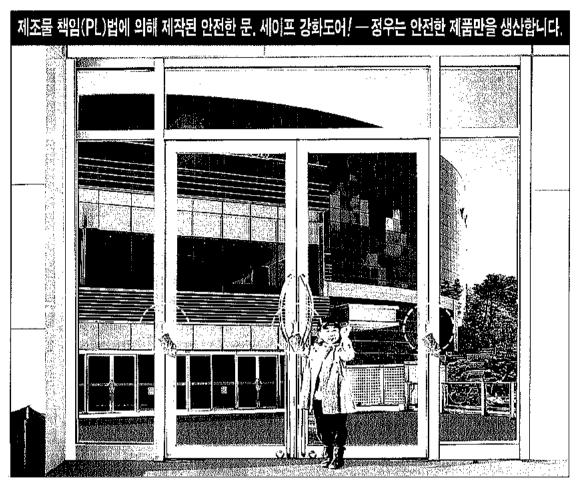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한 가장 튼튼한 건물은 모든 건축인들의 꿈입니다. 선소재 건축내외장재 ZHUAI STONE[®]에는 자유로운 조형의 실현은 물론 건축물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첨단 소재과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소재의 제한이 없는 건축 설계와 사공, 이제 ZHUAI STONE[®]으로 도전하십시오!

150-05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대영빌딩 1121 Tel 02-785-1822 | Fax 02-785-5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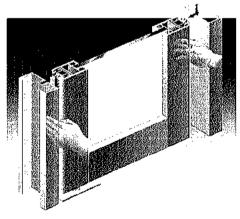




세이프강화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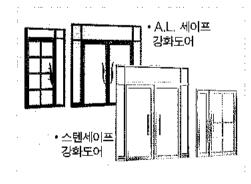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음 시에는 이송캐이스가 유언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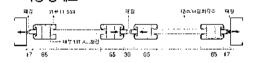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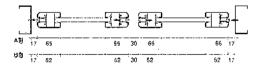
설치 장소

- 학교 관공서 종교건물 등
- •예식장 •은행 •아파트 •빌딩
- 목욕탕 상가건물 유치원
- 백화점 병원 호텔 기타

평면 상세도(홈페이지설계다운로드참조)

의사용 상태도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 단가표: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374번지 전화: (053)325-9800/325-98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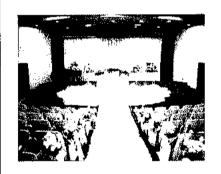
FAX: (053)325-9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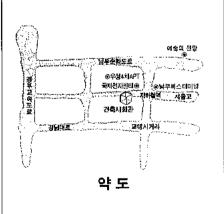
E-mail:jungwoo9800@hanmail.net



영사실 143석 87석 87석 143석 연단

대강당(460석)





- 대 강 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 / 세미나 / 강연회 / 교육 / 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 적: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460석(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 / 음악 / 영사실 / 무대 / 무대영사막 / 흑판 / OHP / VPM / SP

1. 사용료

(단위: 원, VAT별도)

7 H	좌 석 수	사 용 료		
⊤ च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400,000	80,000	

※ 사용기간: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 할인

※ 이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중

※ 예식행사: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890cm × (세로) 90cm

■ 대 관 문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l_ 581-5711~4

Fax 586-8823

건축 사

차례 2002 8 400호







칼럼	새로 써야 할 공간의 역사	박연심	18
회원작품	동다 (東茶)	이총기	20
	천주교 가남성당	김정신 허인원	30
	둔산동 피카소 빌딩	박영준	38
	스팩트럼 시티	김우영 · 김인구	46
	0 목(武木)빌딩	최동호	54
계획작품	아펜젤리 기념교회	김석환	62
	신림동 교회	김석환	66
현상설계	창원반송 재건축 사업지구 공동주택		70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74
	한국도로공사 시용지사		78
	충남대학교 생명과학원 및 공동동물 실험센터		82
	의정부세무서 청사		86
작품노트	조태일 시인 기념관 및 시집박물관	이윤하	90
기고	중심에 접근하기	이필훈	96
건축만평		유원재	98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99
	해외잡지동향		104
	세무안내		110

발행인: 우남용

홍보편찬위원화: 정정치, 박영식, 김수경, 목대상, 민승렬,

박주환, 심우근, 최정일

취재 · 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룡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Rinn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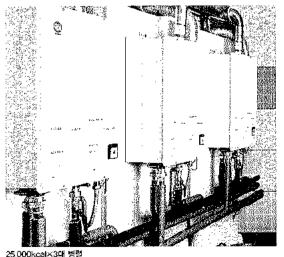


넓은 보일러실이 필요없는 공간절익 병렬식 보일러 시스템(PBS)을 아십니까?

보일러 크기 때문에 벽까지 허물던 시절은 이제 옛말! 벽을 따라 폭25cm 내외의 가스보일러를 나란히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에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립니다

> 난방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은수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설치비 싸고, 난방비 아끼고, 관리사 필요없고!



시공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맞춤 제작으로 가정용 보일러를 필요한 만큼만 달 수 있어 기존의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합니다

연료비가 적게 틉니다

가스가 기름보다 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색!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걱정 안해도 되고 손님 둔 방만 선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킬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수명이 2배는 더 갑니다

고장잦고 A/S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대형보일러와 달리 잔교장이 없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한 부분가동이 가능해 A/S중에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기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운전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리모콘으로 실내에서나 카운터에서 편리하게 콘트폴할 수 있어 관리사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Korean Architect

Contents Vol. 400 August 2002



Column		
History of Space has to be Rewritten	Park Yean-Shim	18
Works		
Dongda	Lee Chung-Kee	20
Ganam Catholic Church	Kim Jeong-Sin, Heo In-Won	30
Dunsan-dong Picaso Building	Park Young-Jun	38
Spectrum City	Kim Woo-Young, Kim In-Gu	46
lmok Building	Choi Dong-Ho	54
Process works		
Appenzeller Commemoration Church	Kim Suk-Hwan	62
Silrim-dong Church	Kim Suk-Hwan	66
Competition		
Changwon Bansong Housing Reconstruction		70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		74
Korea Highway Corporation Siheung Office		78
Center for Life Science and Animal Experiments, Chungnam	University	82
Euijeongbu District Tax Office		86
Design Note		
Memorial Hall for Poet Cho Taeil and Museum for Collection of Poems	Lee Yun-Ha	90
Feature		
Approaching the Center	Lee Phil-Hoon	96
Cartoon	Yoo Won-Jai	98
Architects' Plaza		
Archi-Net		99
Overseas Journal		104
Taxation Business		110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Jeong Jeong-Chi, Park Young-Sik,

Kim Soo-Kyeong, Mok Dae-Sang, Min Seung-Ryeol, Park Ju-Hwan, Shim Woo-Geun, Choi Jeong-II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Rinnai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의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백문이불여일견!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비기30%이상 절감되는 병렬시스템의 놀라운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서를 익실통 소재 R사 사옥 ●업면적 657평 ● 대지민적:148,76평 ●설치보일러:30,000kcal 모델 IA대 병렬 ●난방면적:536,5평 ●월난방비™,1682,090 ◆사용기간:2000년1월



시공 사례



150 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6대 병렬

경기 유치원(대치동) 교체 시공

99년에 설치한 K.사 제품의 누수 및 난방불량 등의 잦은 이상으로 인해 린나이 병랠 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례, 충별 난방 및 온수 수도직결 TYPE으로 설치





300,000kcal 보<mark>일</mark>러 1대



25,000kcal×9대 병렬

수녀원(대구) 교체 시공

93년 국내최초로 린다이 병렬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로 이 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난방배관에 송별 LINE PUMP 설치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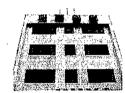
150,000kcal 보임러 1대 70,000kcal 온수보일러 1대



30,000kcal×6대 병렬

상계동 기독병원

지하 및 5층 규모의 병원으로 난병을 라디에이터 구조로 병렬 시공. 온수탱크는 1톤 규모이며, 충별 Line Pump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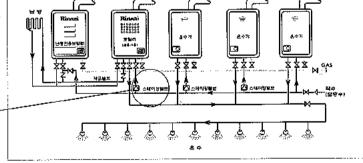
표준 시공 설계도 (난방, 온수 혼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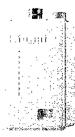
- 온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며, 일부 난방을 사용하는 스포츠 센타, 한식점 등 적용
- ② 온수 부분은 수도직결 및 Staging Valve(특허)를 적용
- 난방/온수 겸용 보일러는 보충용으로 사용 가능

린다이 코리아 만의 특허기술 「스테이징 밸브

- ▶ 사스템 관련 특허출원
- 외부에서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절가능
- 온수탱크 대체기능하며, 획기적인 연료절감 가능
- ※ 수압력 개폐 역할을 하는 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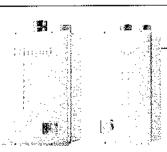


난방전용보일러(병렬전용) RP8-366SME/F

년방 : 36,000kcal/h 사이즈 : 600(H)×440(W)×285(D)mm

> 디지털 가스보일러 RB-366SME/F

난방 : 36,000kcal/h 은수 : 36,000kcal/h 시야즈 : 600(H)×440(W)×285(D)mm



순간은수기(RW-16AE/F)

사이즈 : 600(H)×335(W)×160(D)mm 온수 : 160 /분(AT:25°C)

Rinnai 가스기구의 名緣——

새로 써야 할 공간의 역사

History of Space has to be Rewritten

박연심 / 건축사사무소 장원 by Park Yean-Shim

금요일의 늦은 오후, 필자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요즘은 설계하는 사람이다. 은행창구의 여직원이다. 음악하는 사람이다. 신문사 기자나 모두 컴퓨터 앞 에 앉아 있어야 한다. 21세기 산업의 디지털화는 사람의 행동양식조차 통합하는 힘을 가졌다.

여기 쓴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로써 새로운 책, 공간의 역사(미가렛버트하임,박인찬옮김,생각의 나무사 ,2002)를 읽고, 또 최근에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여러가지 디지털공간에 대한 의문들을 짧은 단상들로 제 시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출판이라는 한계에 의해 문자만 전달될 뿐이지만 컴퓨터언어인 HTML이라는 언어를 사용 하면 화면에 영상을 띄우고 음악도 삽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멀티미디어로 전달할 수 있다(이곳이 인터넷상이라면 적당 한 영상과 함께 음악은 Dave Matthews 의 Space Between을 깔았을 것이다).

The Space Between 컴퓨터의 연결망은 책상위에서 세계로 퍼져나간다. 연결고리는 우스꽝스럽 게 초월적인 자세를 취한다. 가상은 거짓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우리는 즐겁게 지배당하고 있다. 요령은 리듬과 타이밍, 그것이 자유라고 서로에게 권하고 있다. 그것이 새 세상을 가져왔다고 흥분하고 있다. 인스톨하기만 하면 장~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세상이 열린다고 잠시 착각한다. 전화가 처음 발명됐을 때는?

The Space Between 창문의 뿌연 우윳빛 유리에 저녘 해에 비친 가로수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 거리는 영상을 본다. 그와 동시에 나는 눈앞의 컴퓨터를 통해 켈리포니아에 있는 명훈언니가 집안의 거실에서 우리 커 뮤니티에 올린 글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먼 거리에 있는 거실의 창문을 통해 같은 해가 오렌지카운티의 황토 언덕위로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나는 양쪽 끝의 항상 열려있는 쌍방향 전자창 두개를 포개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공간을 밀착시킬 때 나타나는 매개공간에 있는 셈이다.

The Space Between 창에서 멀리 떨어진 시간대의, 인접한 환경을 비추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창과 병치시키면 우리는 밤과 낮, 겨울과 여름을 대비시킬 수 있었다. 물리공간과 사이버공간에 이동의 개념이 부팅되 면, 특정한 장소에 위치한 육체와 유동하는 전자적 확장자의 건축무대막의 레이어는 점점 복잡하게 겹치고 꼬이고 혼 합되어간다. 역마살이라는 것은 인터넷서핑에도 적용되는가?

The Space Between 시간, 장소, 행위가 일치해야 하는.. 건축공간과 경험의 고전적 통합은 어디로 갔 는가? 서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귀던 이웃들이 이제는 잘 알긴(아바타) 하는데 잘 모르는(얼굴) 사이인 '서로 잘 아는 타인 Familliar Stranger 이 되어가는 것은? 자기 동네를 좋아하는 사람이 머리속에 넣고 다니는 골목길, 표지판이나 안내문처 럼 한 도시를 정겹고 이해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매력포인트의 기억들은? 도시이론가 캐빈 린치의 마음속의 지도는 무 엇으로 대치되는거지?

The Space Between 하늘아래 새것은 없다? 무한 복제시대인 것이다. 클릭 몇번이면 모든 것이 내 켬 퓨터안에 고스란히 떠오르는 때다. 커서까지 껌뻑이면서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 인용했다느니, 혼성모방이니, 누구누 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차라리 애교다. 디지털의 복제 기능은 무차별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창작은 '마 지막 남은 수공업 의 지위를 버리고 있는 중이다. '참조' 와 '모방' 과 '복제' 의 구분은?

The Space Between 디지털 공간은 이전의 공간의 역사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아니 그것을 마 거릿 버트하임이 주장하듯, 중세인들의 종교관과 거의 동일한 공간관이라는 정신적인 공간, 실체없는 공간, 육체없는 정신인 것이다. 빅뱅에 의해 생긴 우주의 끝없는 팽창처럼 계속 늘어나는 디지털 우주, 그 내부로의 여행,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에 의해 삭제돼 버린,.... 공간 없는 장소,... 우리는 요즘 그곳에서 마치 강시들 처럼 서성이고 있다.

The Space Between 그렇다. 마치 강시들처럼. 미국의 IT산업은 주로 인도쪽으로 아웃소싱하고 있다 고 한다. 그것은 인도인의 언어적 능력과 수학적 머리뿐만아니라 시간대를 이용하기 좋기 때문이다. 낮동안에 그들이 진행시 켜놓은 프로젝트를 퇴근하면서 인도쪽으로 던져놓으면 그때 출근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시간적 차 원에서 다른 공간적 차원으로의 바톤, 그런 시간대와 공간적 교차점에 우리는 서있는 것이다.

The Space Between 圙

동다 (東茶)

Dongda

이축기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Chung-Ke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27번지

지역지구 자연꼭지지역, 개발 제한구역

연 면 적 198,63nf 대지면적 $330.00 n^{2}$ 건축면적 132,67m² 건 폐 율 40.20%

용적률 60,19 % 모 지상: 2층 규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마 감 내부마감: 월넛 무늬목, 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 외부마감: 노출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방부목

구 조 (주)세원구조 기술사사무소 강창선

샙 НΙ 김도균 전 기 김현정

인테리어 (주)한메건축사사무소 시공회사 (주)인터 스페이스 이강선 설계담당 서유찬, 이정윤, 조성완, 이상복 설계기간 2001년 3월 - 2001년 9월 공사기간 2001년 10월~2002년 6월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이기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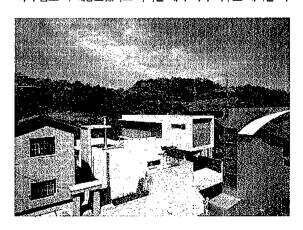
5월 중순,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물건들이 제자리를 잡지도 못한 것일까? 아직은 낯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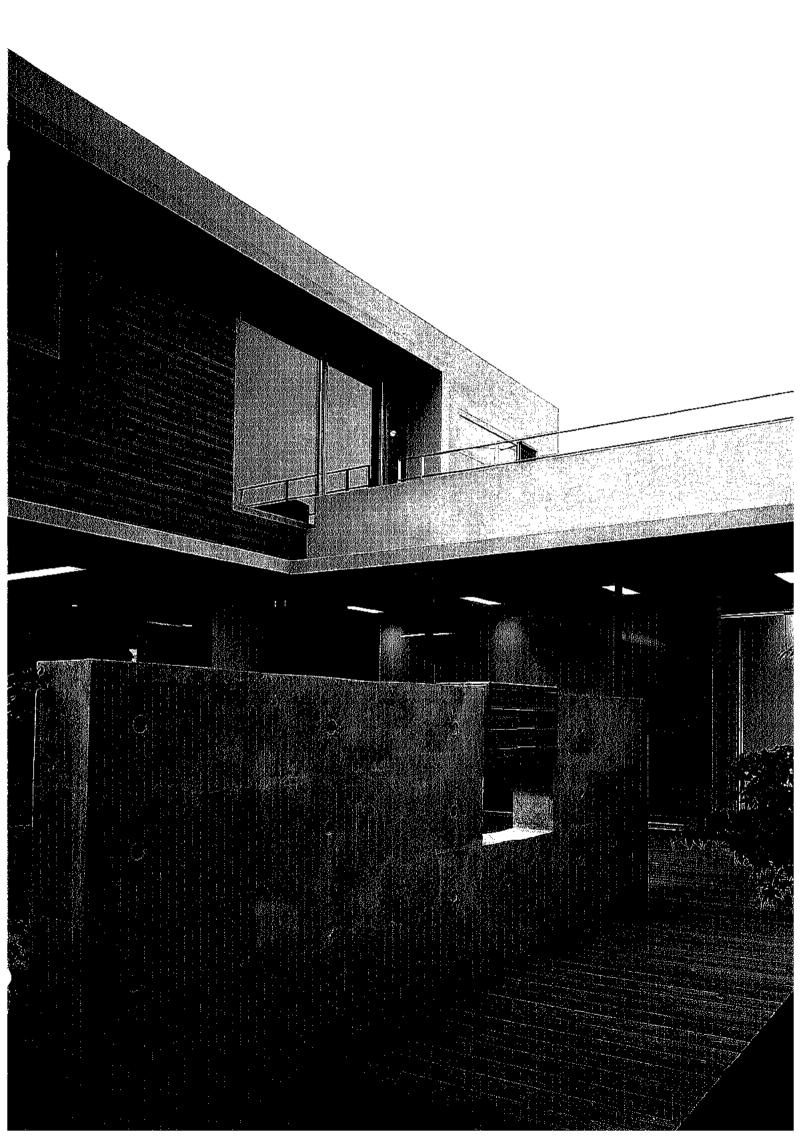
몇 번의 날짜조정 끝에 건축주가 약속했던 점심식사를 겸한 다회 (茶會)를 가졌다.

빚을 진 것도 아니련만 마치 빚지고 못사는 사람처럼 -그는 그랬. 다~우리 한메건축의 동료들 모두를 초청한 것이다. 그것도 다기 세트를 선물로 준비까지 해서 한 사람씩 즐거움을 나누었다. 중 정의 데크에 긴 테이블을 놓고 정성스레 준비한 여러 가지 차들, 그 중에서도 눈에 딴 것은 큰 수반에 연꽃을 펼쳐 우려낸 냉 연꽃 차 그리고 테이블 끝에 놓인 보리차(맥주)였고 무르익은 5월의 신록을 눈요기로 한 차 한잔의 오후에 나는 잠시 몸을 떨었었다. 감동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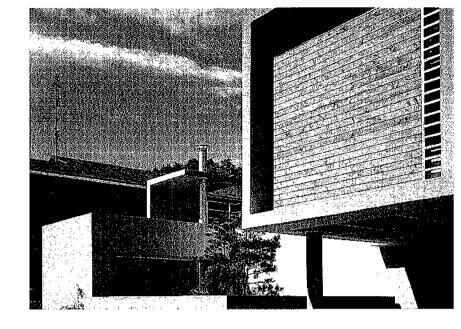
그리고 6월초, 집이 훨씬 안정된 분위기를 잡았다. 아마도 물건 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 구경하려 간 일

행과 함꼐 방문한 그 날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날이었 다. 마침 하자점검 하러 들렀던 시공자와 이야기도 나누고 안내 도 끝나고 해서 혼자 집을 지키던 건축주의 팔순 노모께 가겠다 고 말씀드렸더니 "안뒤야, 밥먹고가! 상추쌈에다 밥먹고 가야혀" 하셨다. 웬만하면 그냥 나오려 했지만 상황은 그러지를 못했다. 이미 밥도 다 해놓으셨다고 하시는 데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터









라 할 수 없이 할머니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 삼겹살을 꺼내놓고 산 자락 텃밭에서 무공해로 손수 기르셨다는 무공해 상치를 다듬고 계 시는 데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시공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 워 일행 두 분과 시공자 나 그렇게 네 사람이 삼겹살, 된장, 상치와 김치가 어우러진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녹차 한 잔, 그 때 시공자에게 걸려온 핸드폰 너머의 건축주 목소리 "나빼놓 고 자기들끼리 잘 노시는 구먼" 그리고 우리는 웃었다.

동다(東茶)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

땅 그리고 집

대지는 서쪽으로 산, 동쪽으로 탄천을 끼고 있는 10여 필지의 택지 개발 대저 중 하나였다. 탄천쪽은 고속도로가 소음을 내며 지나가고 골목을 끼고 앞대지가 그 곳을 가릴 것이기에 나의 관심은 참으로 귀 하게 보였던 얕은 산에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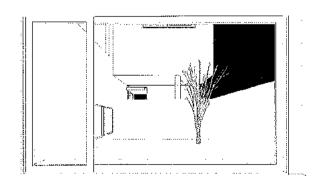
그래서 집의 모든 공간은 남쪽과 서쪽의 산을 향해 열고 산의 풍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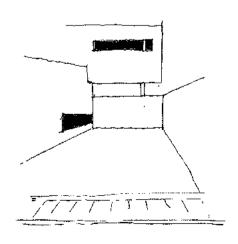
끌어들이고자 했다. 중정은 물론이고 다실 중정까지 산의 흐름은 이 어진다. 중정의 데크에서는 산 전체가 동다(東茶)의 마당이요 조경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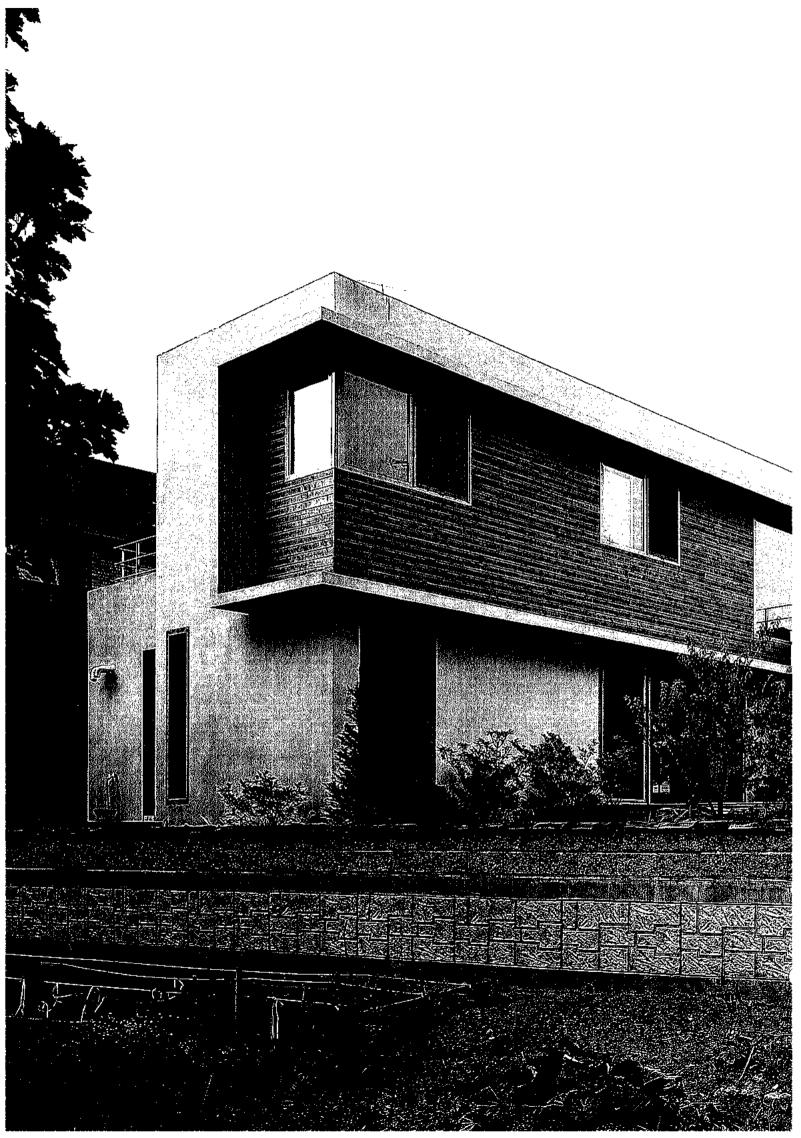
녹음이 우거진 이 계절엔 무덤조차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풀섶에 숨 어 있고 신록의 기운은 집안에 녹차처럼 스며든다. 그래서 다실에서 의 녹차 한 잔은 꽤 의미가 있다. 중정에서, 다실에서 사람이 모여 담 소를 나누는 사이 뒷쪽 산자락 텃밭에는 벌써 고추, 가지, 감자가 키 재기를 하고 있다. 배추, 상치도 있고 건축주는 차도 심었단다.

그래서 이제 이곳 동다(東茶)에도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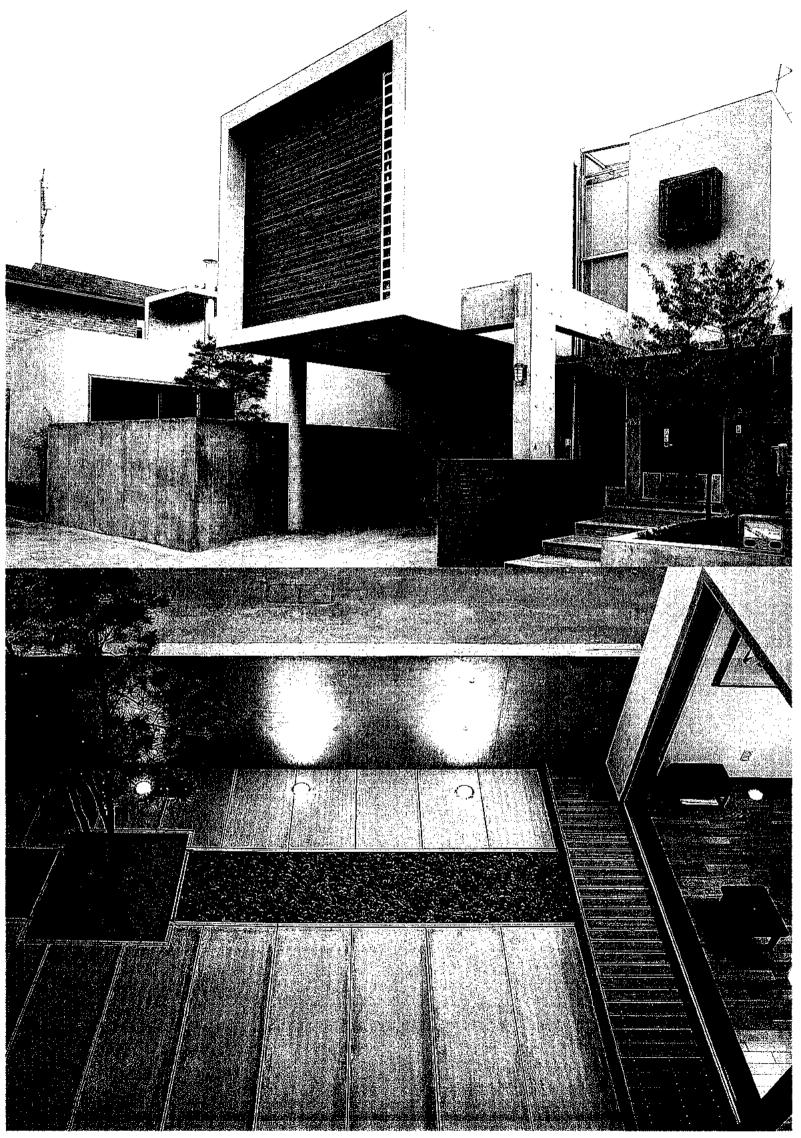
그리고 그는 그 생활을 늘 나누고 싶어하고 또한 동다(東茶)는 열려 있다. "언제라도 와서 차 한 잔 하고 가십시오." 그 말 속에 맑은 차 한 잔의 영혼이 우러나는 것이었다. 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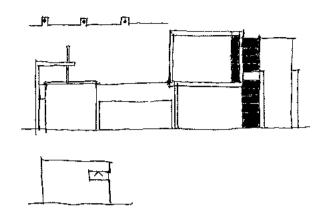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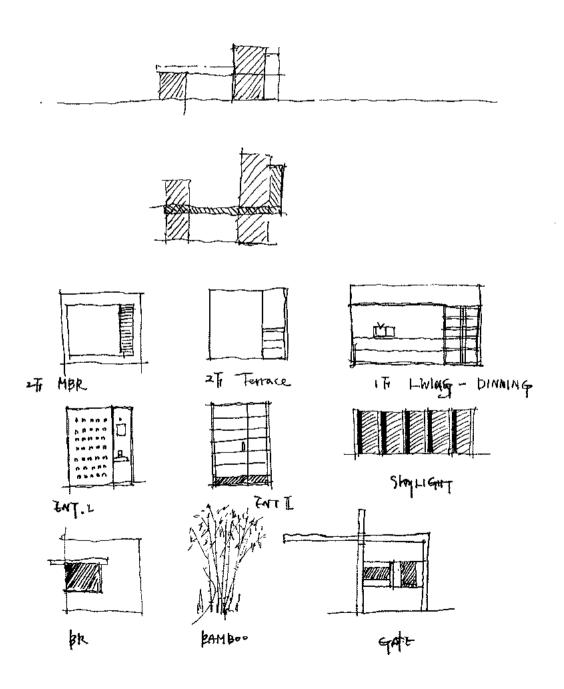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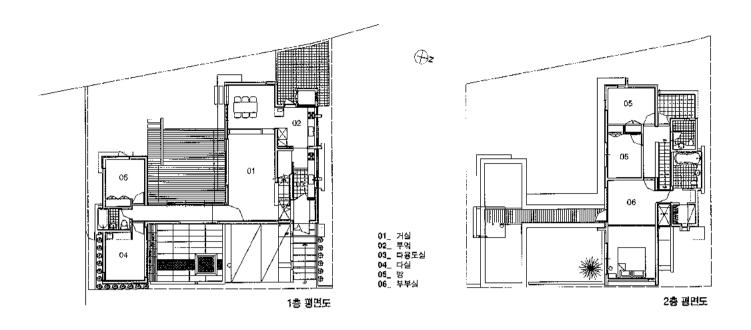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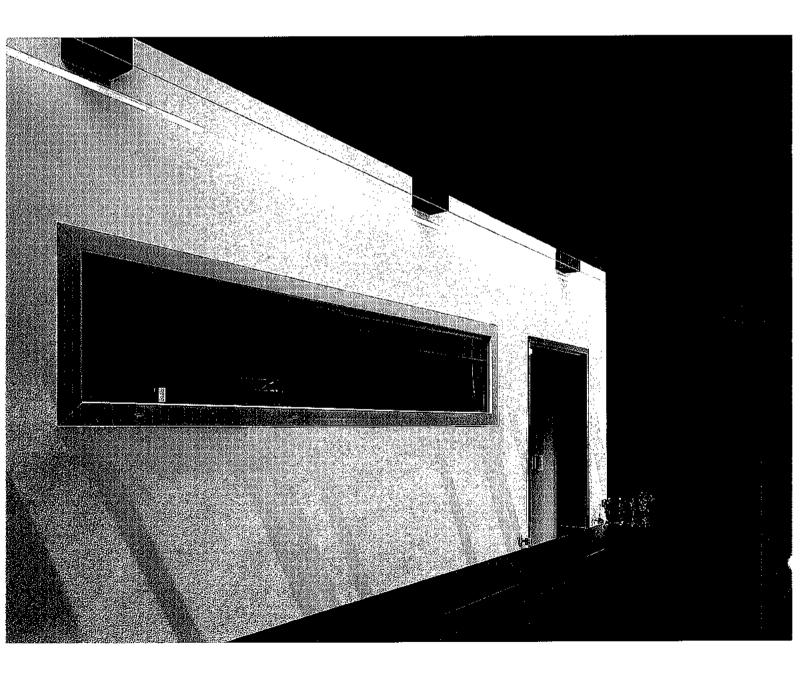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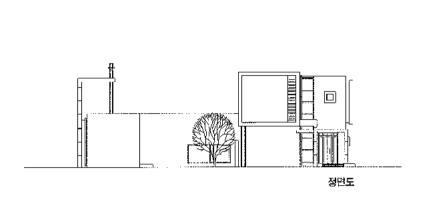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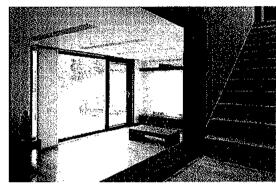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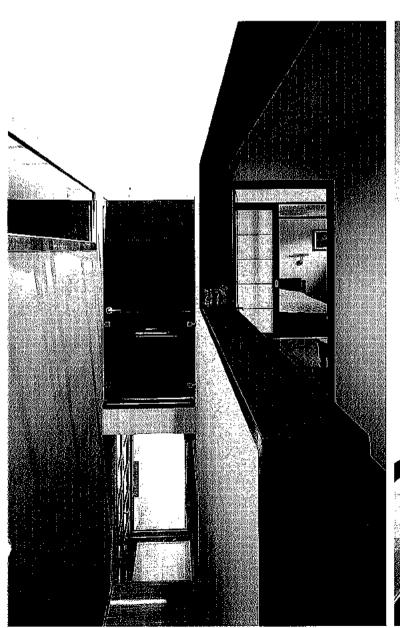














천주교 가남성당

Ganam Catholic Church

김정신 / 단국대 건축대학 교수+하인원 / 시종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eong-Sin & Heo In-Wo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191-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5.197.93nf

건축면적 1.029.69m²

연 면 적 1,508,52ที่

건 폐율 19.81%

용 적 률 29.02%

규 모 지상1층.지상3총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집성목 글루램(지붕)

주차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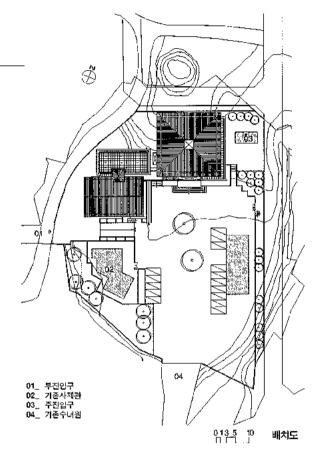
외부마감 스프릿 블럭, 노출콘크리트

정문종합건설 공

설계기간 1999, 2.~2000, 3.

시공기간 2000, 3,~2001, 10.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문수영)



기남성당은 기남면 소재지의 기남초등학교 뒤편 낮은 언덕위에 위 치한다. 남동쪽이 확 트여있어 멀리 내려다 보이며, 이천-장호원 간 3번 국도와 331번 지방도에서도 그 존재를 살며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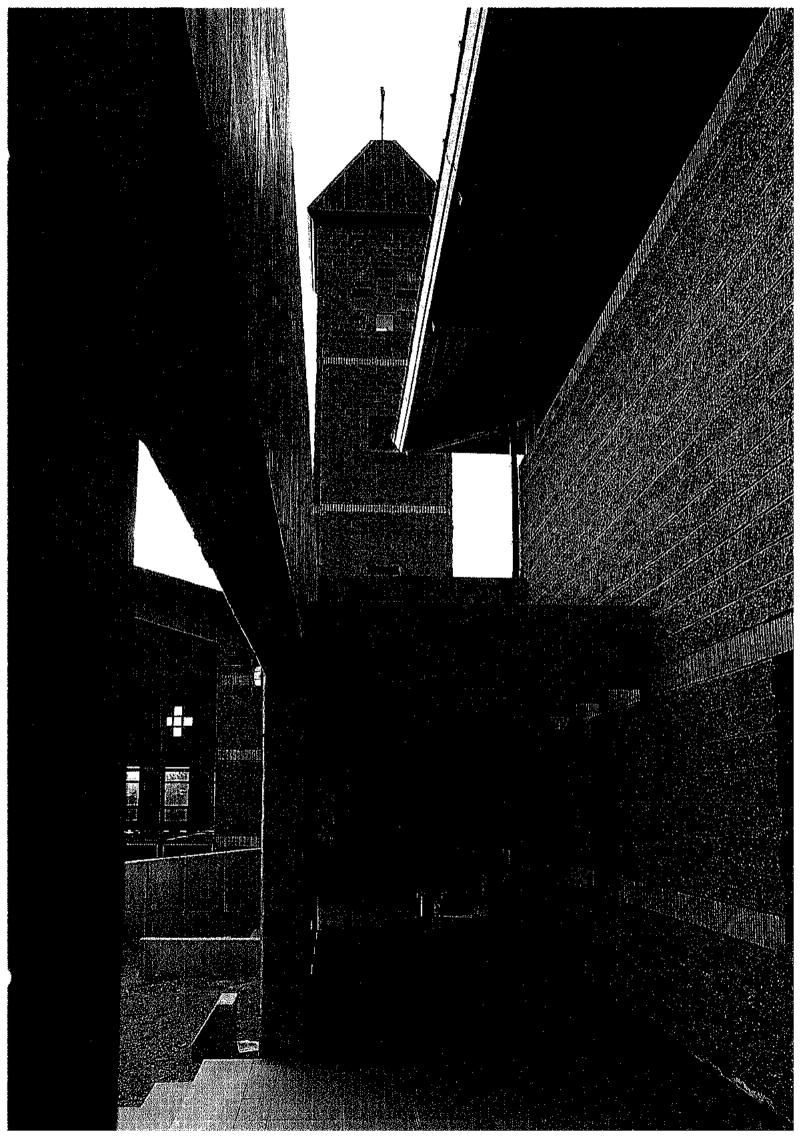
1.500백 여 평의 대지에 기존의 수녀원과 사제관을 그대로 둔 채 성당과 교육관을 신축하는 현상설계 프로젝트에서 제시했던 안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시방이 트인 경사대지는 이미 6년을 지내오면 서 북쪽 약 200여 평의 언덕을 빼고는 모두 평평하게 정지되어 있 고, 수령 60년의 노티나무 두 그루가 대지 한 가운데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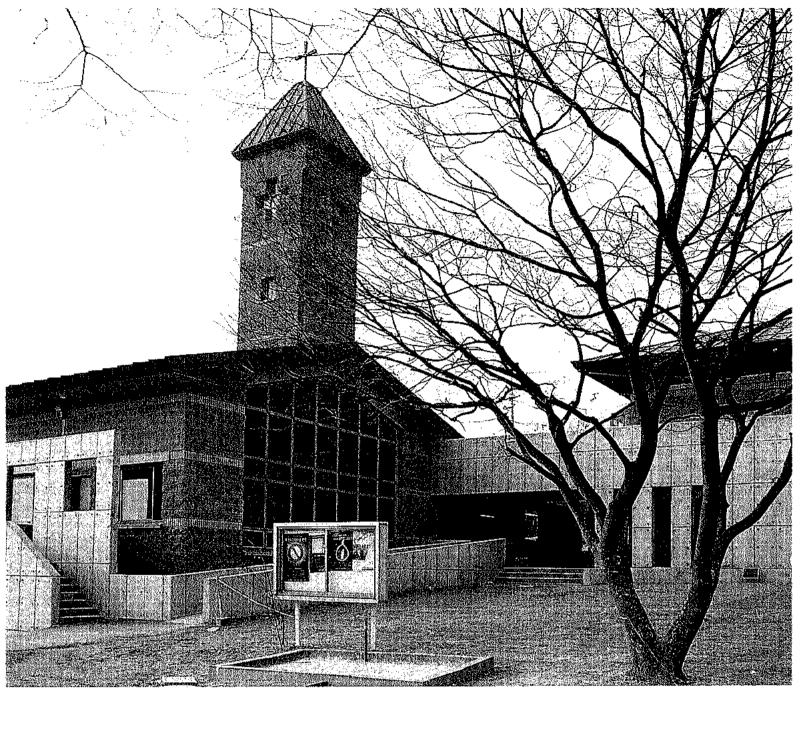
배치의 기본개념은 기능한 느티니무를 중심으로 한 미당을 살리면 서 소박하고 편안한 건물을 기존건물과 조화되게 앉히는 것이었. 다. 권위적이거나 심장적인 종교건물보다는 형태에 있어서나 시공 관리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건물이 지역의 정서와 교회공동체의 의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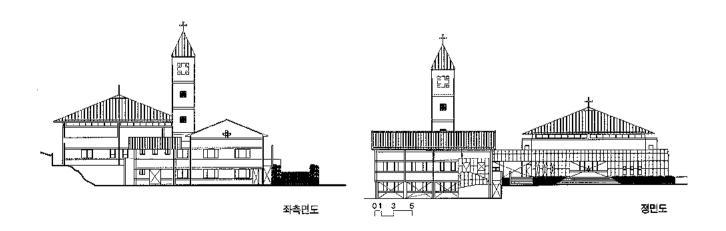
두 개의 건물 - 정방형의 성당과 직사각형의 교육관 -을 직교되게

배치하고, 성당의 전면에 배량을 설치해 교육관 출입구와 연결시 킴으로써 기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느타나무 중심의 마당을 적극 실리게 하였다. 교육관의 1층 다목적 강당의 전면을 모두 유리창으 로 처리함으로써 마당과 강당의 내외공간을 시각적으로 밀접한 관 계를 맺게 하였고, 성당의 배랑을 아외 행사시 무대 또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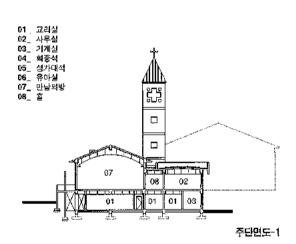
성당은 정방형 평면의 대각선 축을 종축으로 하여 제단과 중앙통 로, 전실을 배치하였다. 건물의 외형축과 내부공간의 축은 45도로 꺾여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공간의 정돈된 질서와 함께 내 부공간의 다이나믹한 깊이감을 이룰 수 있었다. 전실에는 세례대 룔 둠으로써 성당 출입시 입교시 세례성사률 회상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제단과 일직선 축으로 시작과 끝 - 알파, 오메가 - 의 상징 성을 추구하였다. 성당 내부는 밝고 온화한 공간을 원했던 본당신 자들의 요구에 따라 창 면적을 넓게 하고, 중앙에 천창을 둠으로써 주변의 하늘과 수목의 풍경을 그대로 내부에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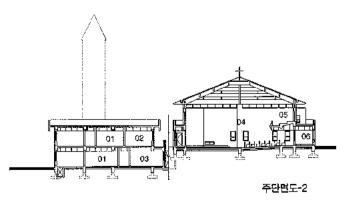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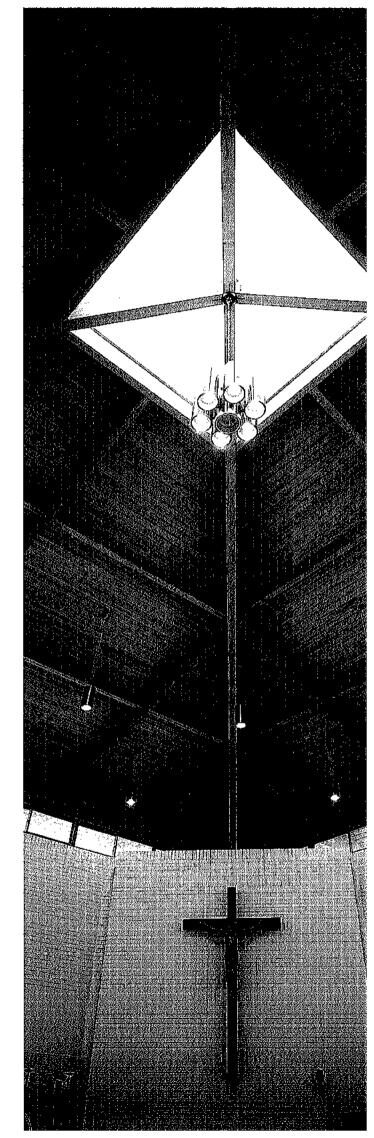




피라밋 형 지붕은 목재 집성보와 목재 데킹 구조인데, 17.4미터 사방의 네모서리의 지지대(기둥)가 대각선 24.6미터의 스판을 지탱하고 있다. 목재 집성보는 별도의 이중 천장이 없이 솔직 간명하고 자연적인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동안 구조뿐만 아니라 방부, 방염, 내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망서렸던 글루렝 구조를 독일회사의 기술력과 성실한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쉽게 실현할 수 있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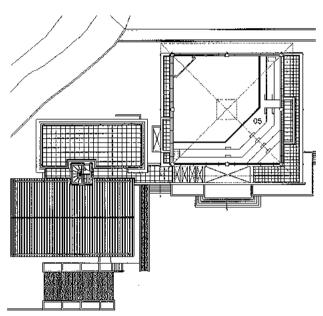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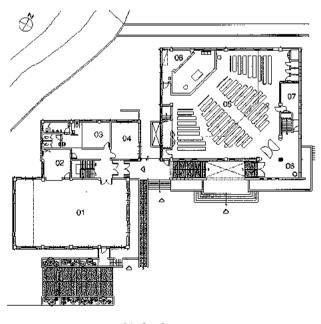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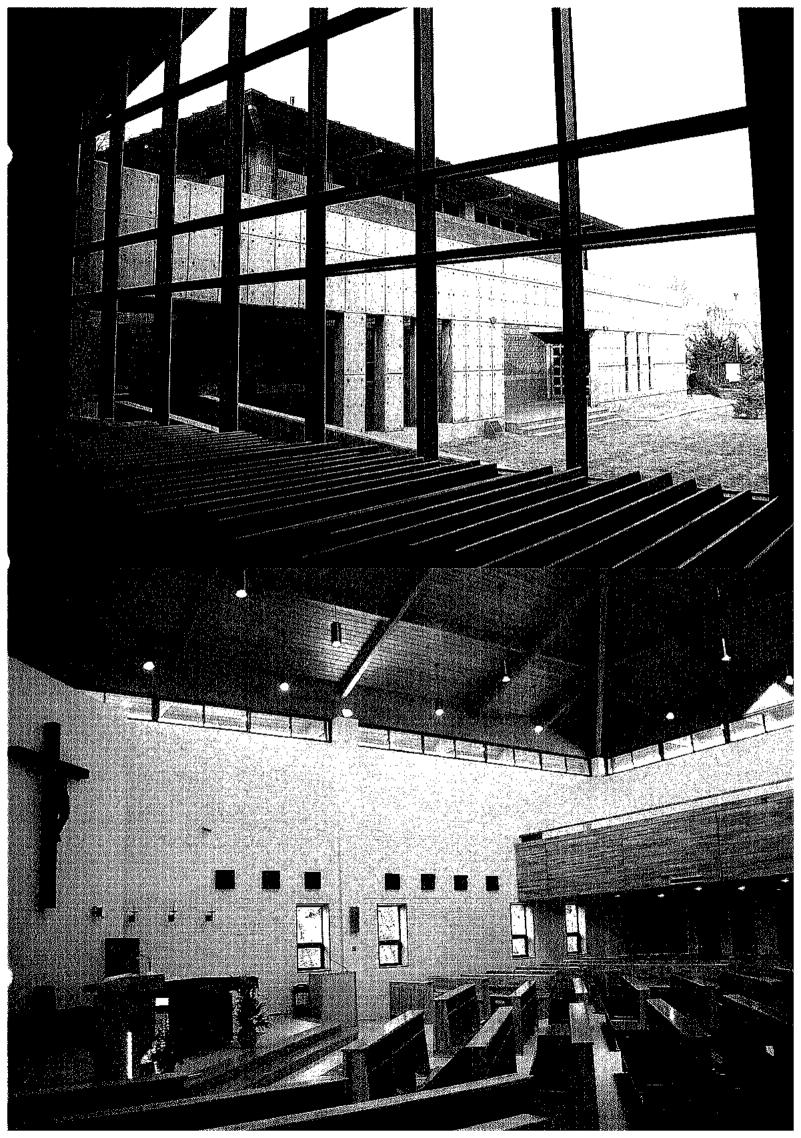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01_ 만남의 방/대강당 02_ 주병 03_ 교리실 04_ 사무실 05_ 회중석 06_ & 07_ 유어실 08_ 제의실



01 3 5

1층 평면도



둔산동 피카소 빌딩

Dunsan-dong Picasso Building

박영준 /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 Designed by Park Young-Jun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14번지

대지면적 726.70m²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 상세계획구역

시 공 사 (주)이화공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조

지하 2층 지상 9층 규

건축면적

575,18m²

건 폐 율

79.15%

연 면 적

4.937.7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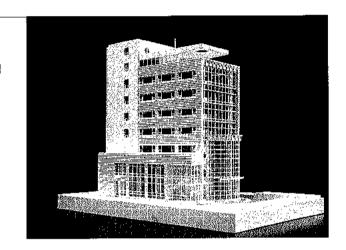
용 적 률 주차대수

514.03% 23대

설계담당

박영준, 이원석

건축사사무소 제공



평면개념

- · 본 MASS와 CORE에 대한 상호 관입에 의한 MASS 구성
- · 갤러리아 백화점과의 유기적 상관관계에 의한 투명성 부여
- · 임대공간의 극대화와 융통성있는 CORE위치 설정

입면개념

- · 병치 + 관업에 의한 MASS구성
- · 막힌과 열림에 대한 극적효과
- · 상승감과 수평적 안정감을 주며 도로사선에 의한 법적규제로 입면
- · 저층부 곡면처리로 대지의 형태 및 주변환경에 대한 전망과 쾌적한 이미지 부여
- ·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과 인도사암의 관입된 형태의 자연스런 입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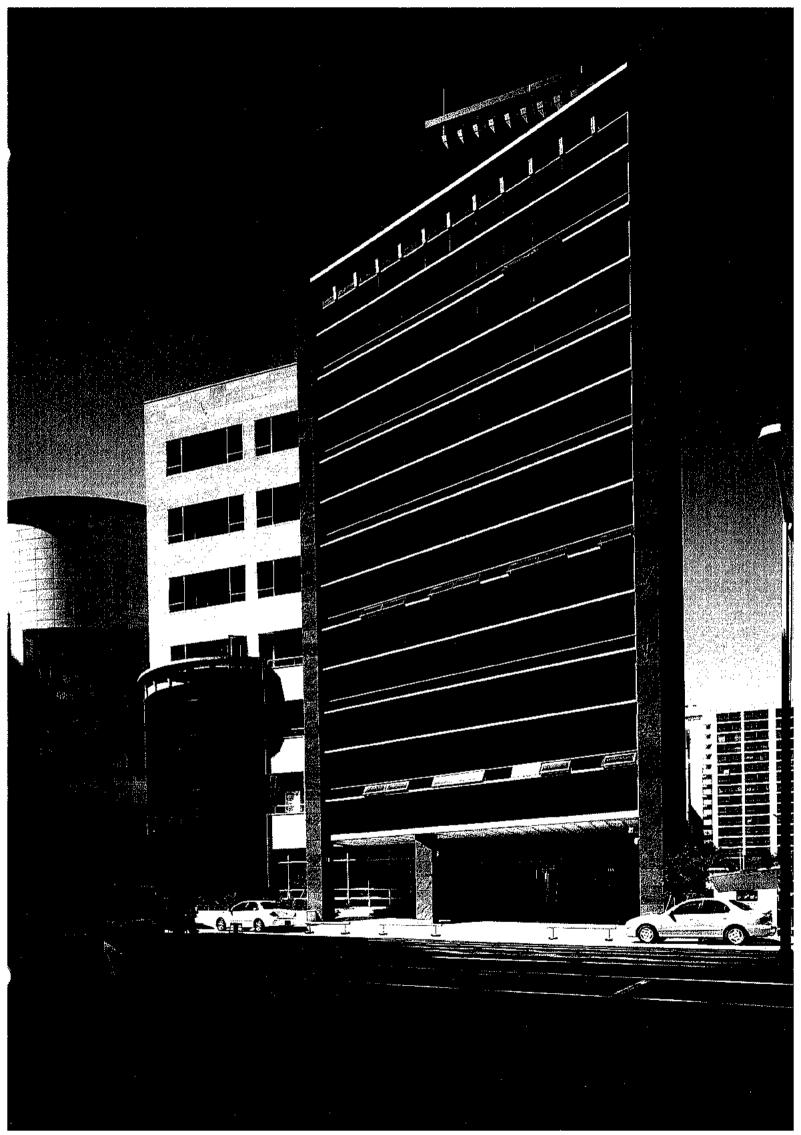
단면개념

· 찬밀감있는 HUMAN SCALE을 적용한 저충부 구성으로 수평적 안정감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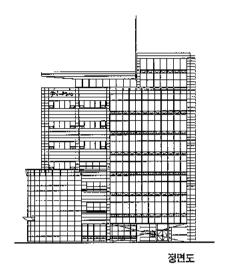
- · URBAN SCALE을 구성한 본 MASS 및 상부충처리로 상승감을 표출함
- · 20M 도로변에는 도로시선에 의한 단면구성으로 자연스런 SKY LINE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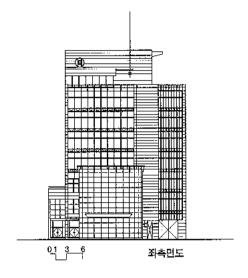
배치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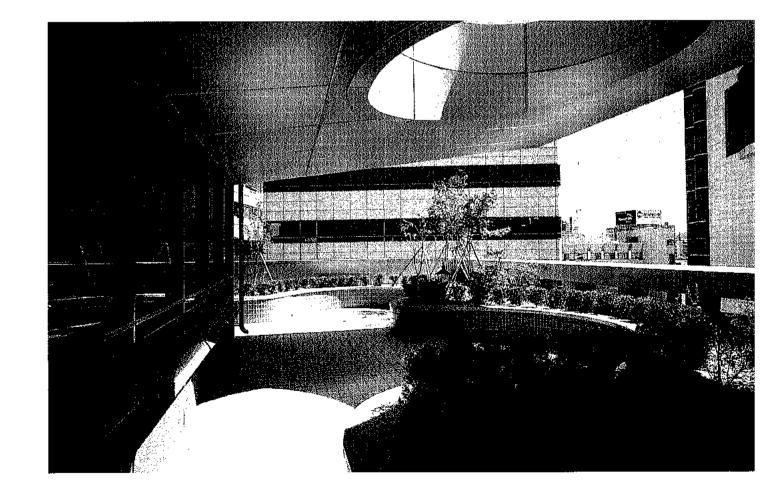
- 축의 설정
- 대지분석에 따른 시각적 요소와 자연환경, 동선체계, 조망성, 매개공 간의 확보, 융통성 등을 기본요소에 순응하여 배치
- 내부공간과 MASS의 상호 유기적 보완관계로 지붕(날개)의 개념 도입
- · 건물의 배치
- 수요의 성장변화에 대응
-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 관입되는 건물 배치
- 갤러리아 주차빌딩과의 상호 유기적 배치 순용
- 대지 형태 및 주변여건에 대한 순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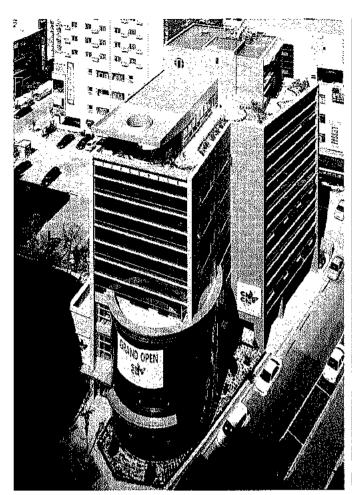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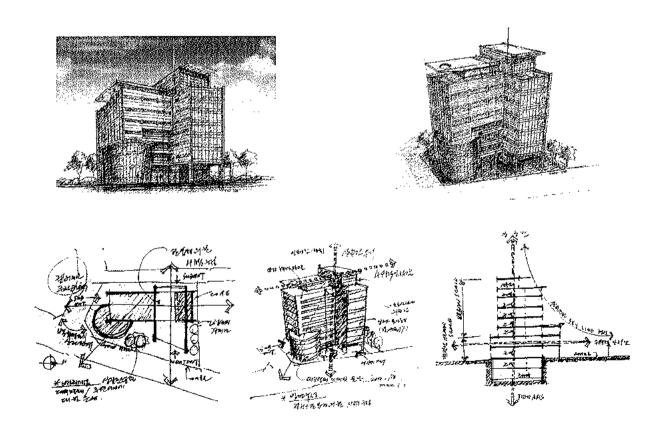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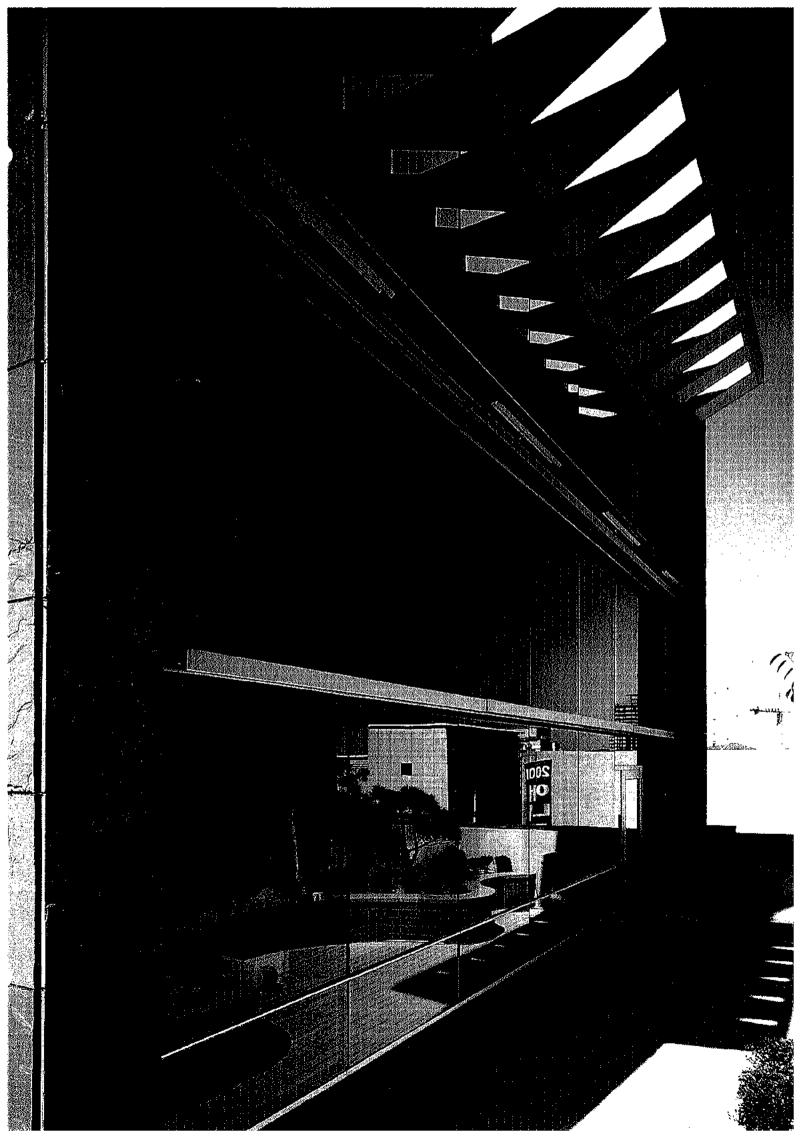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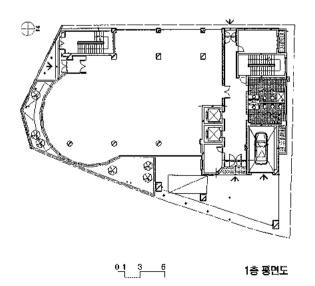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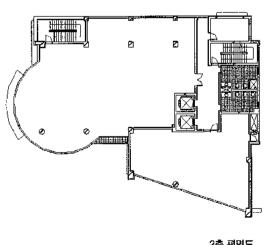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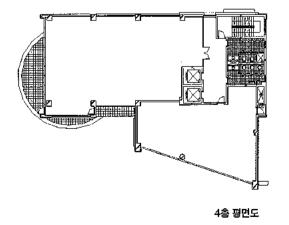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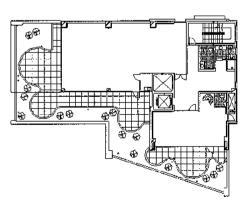












8총 평면도

스팩트럼 시티

Spectrum City

김우영 · 김인구 / (주)김이종합건축사사무소+이경훈 / 단국대 교수 Designed by Kim Woo-Young, Kim In-Gu & Lee Gyeong-Hoon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시 북구 칠성 2가동 20-1번지 일원

지 역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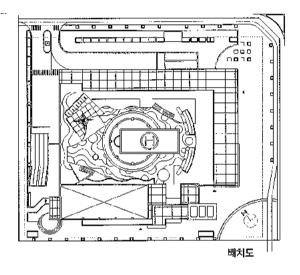
대자면적 13,848.10㎡ 건축면적 6,095.84㎡ 건 폐 율 44.02% 언 면 적 81,273.94㎡ 용 적 률 19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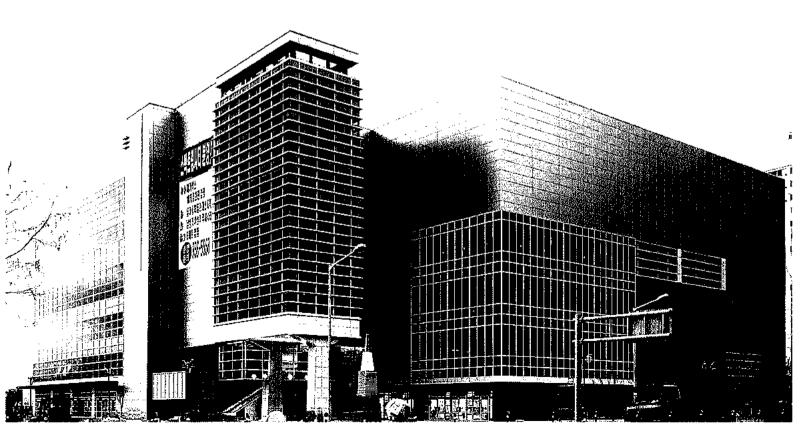
 규
 모
 지하 5층, 지상 6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커튼월 + 알마늄패널

주차대수 1,138대 설계달당 이교창, 신군식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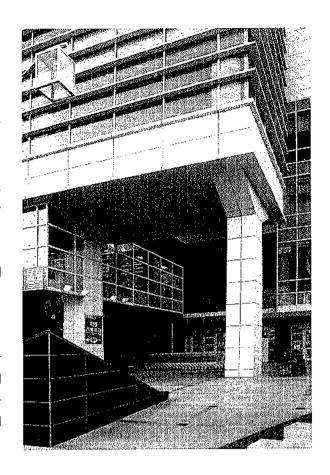




대구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대한방적 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신흥 도심에 들어서는 본 복합센터는 시민의 문화 및 여가 함양 그리고 쇼핑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주거, 상업 그리고 문화를 절충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따라 본 복합센터는 도시계획 대상 부지 중 대로가 면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였으며 그 주위로 주거단지가 단계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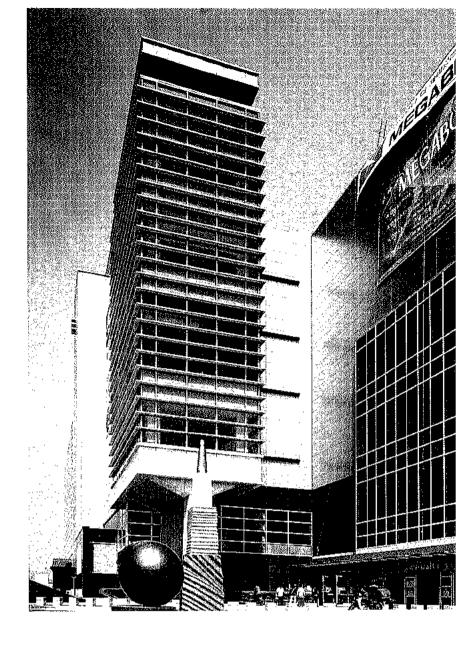
복합 엔터테인먼트형 쇼핑몰을 지향하는 본 건물은 저충부에 대형 할인 매장, 중총부에는 쇼핑몰, 상총부에는 국장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장소에서 도시인의 생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의지이며, 오늘날 도시의 성장과 함께 발달하고 있는 다핵화 현상의한 양상이다. 특히, 이러한 도시인의 일상을 충족하는 복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형 시설은 기존의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현재의 부지에도시적 활기를 창조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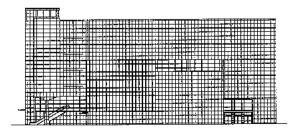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업시설로서의 외형적 독자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특성상 단순한 매스에 의한 이미자를 갖는 대형 쇼핑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업면 및 매스의 분할 그리고 그리드의 변화를 시도하여 외관을 도출하였다. 특히 조화롭고 아름다운 야경을 위한 유리 파시드와 조명 계획을 통해 주간뿐만 아니라 이간에도 도시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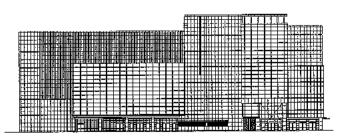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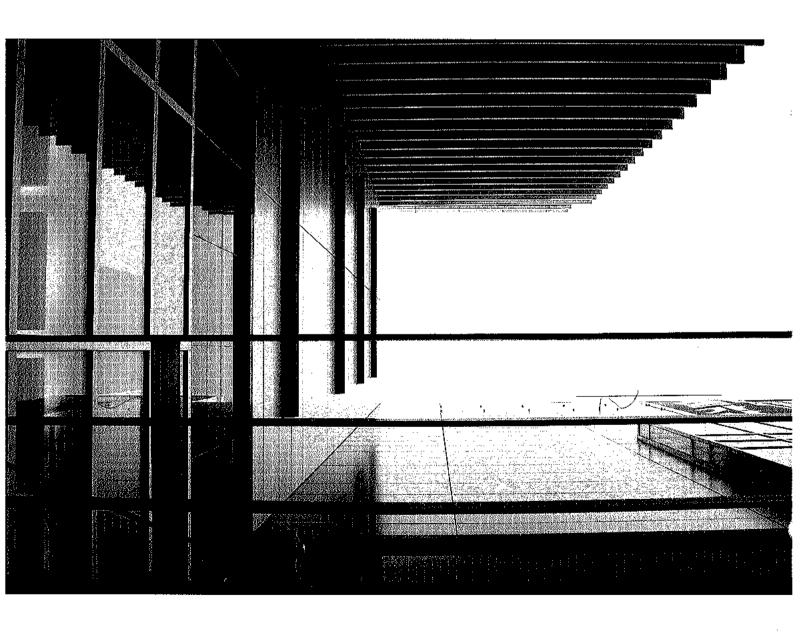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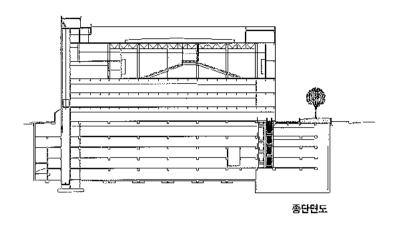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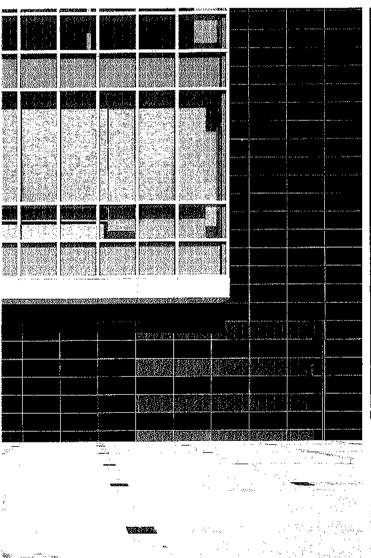
무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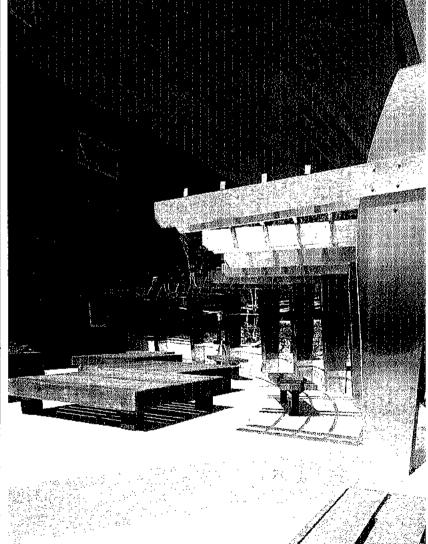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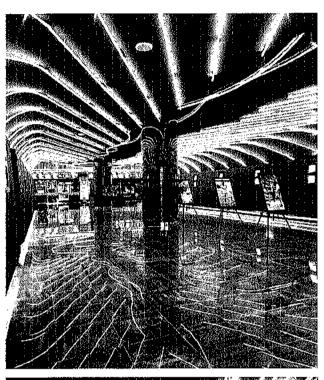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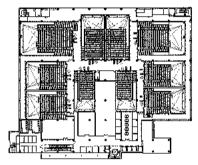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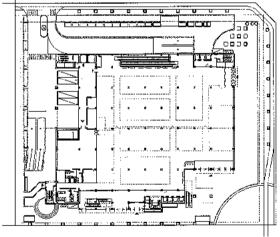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이목(貳木)빌딩

Imok Building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Ho

건축개요



000. 二木 /木*二/ 貳木

나무의 본질은, 본질에 대한 본질인 나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001, 한 그루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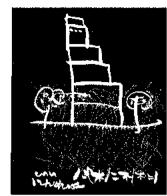
오십이라는 나이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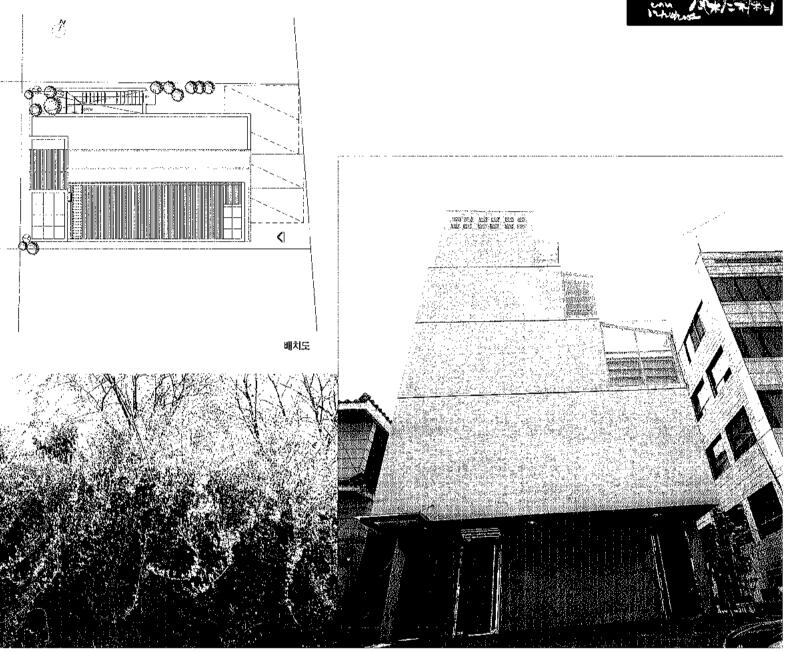
소나무/ 그 본질/ 그 나이/ 五十一松

002. 나무 두 그루

나무 두 그루가 존재한다.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나무가 두 그루이어야 한다.

이 '두 그루'는 그 본질이 각각 그대로 이길 원한다. 그들은 변하 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일 뿐 이다. 즉 '한 그루의 나무'와 '다른 나무 한 그루'가 그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니 다. 한 그루의 나무는 생(生)나무이고 다른 것은 콘크리트의 물 성으로 나타난 단지 나무의 표상(表象)일 뿐이다. 그러나 이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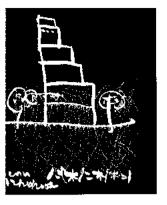
상은 기상의 기만이 아니라 진리의 기상으로서 현현되기 때문에 공 허한 가상이 어딘 진리의 정신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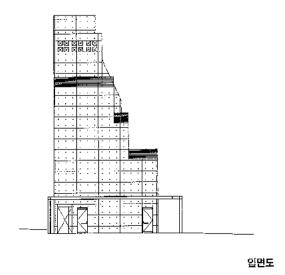
물성적 나무는 개념이고 생나무는 실재성이다. 나무는 이념의 이데 아이고, 콘크리트는 가상(schein)이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동일성 으로 되는 통일의 이념으로 가는 그 개념의 개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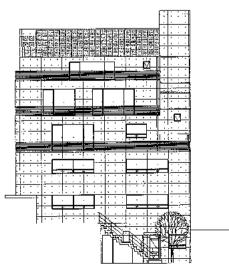
003, 내가 생각한 나무

나무를 이념이라고 보았다. 가상의 나무는 노출콘크리트이다 .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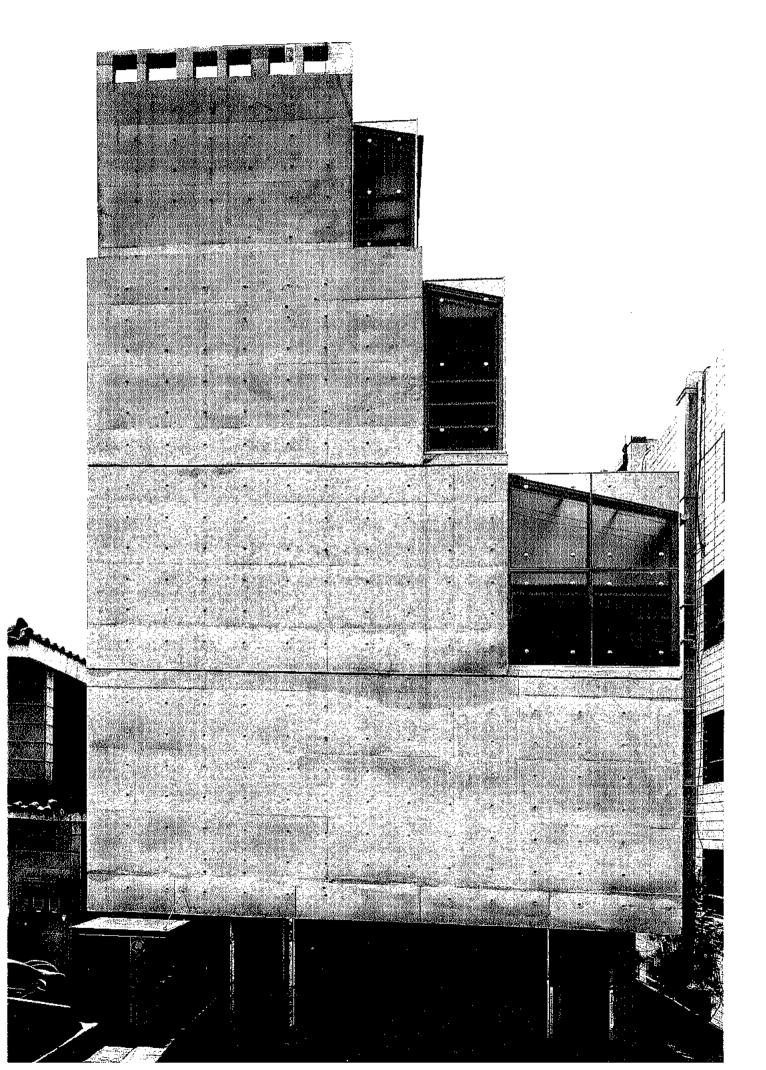
고 그 앞에 소나무를 심는다. 아니면 개나리 숲을 만들어도 된다. 소 나무도 개나리도 노출콘크리트도 모두 가상일지라도 진리로 나타나 는 정신이 된다면 예술이 지향하는 그 목표의 이념이 될 것이다. 그 래서 헤겔 텍스트의 〈씨앗은 개념이고 나무는 실재성인, 개념과 개 념의 실재성의 통일)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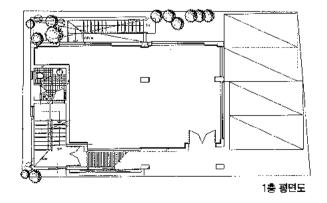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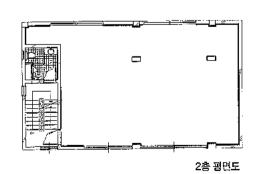
건축사 2002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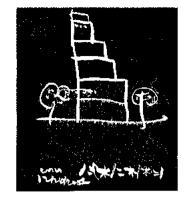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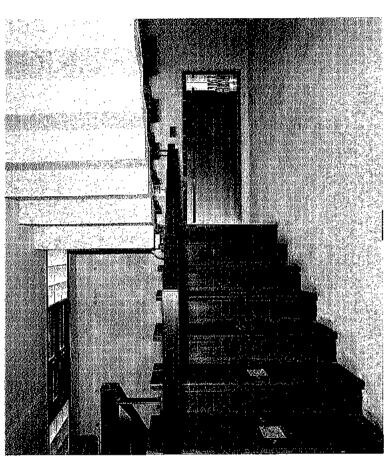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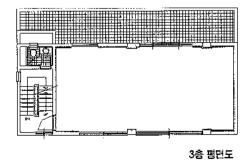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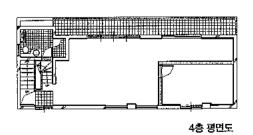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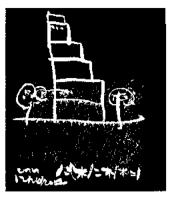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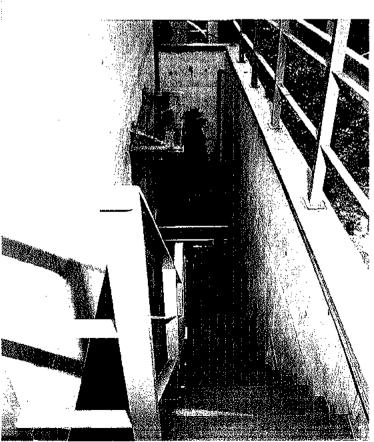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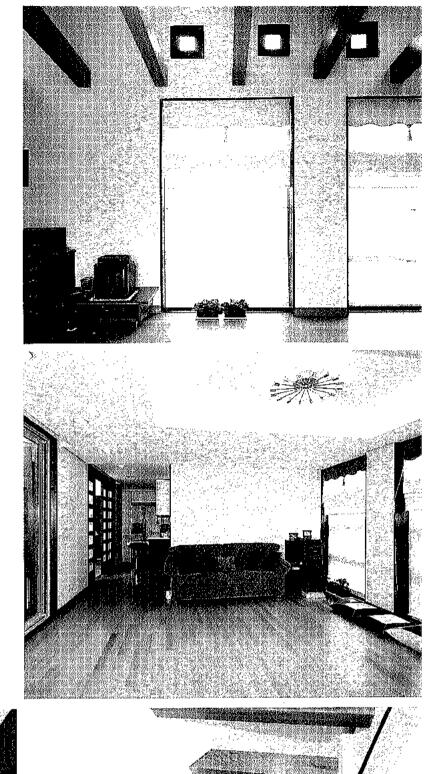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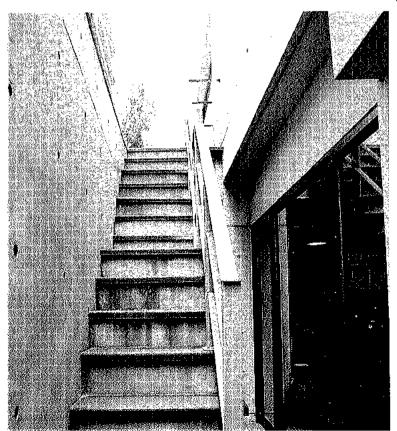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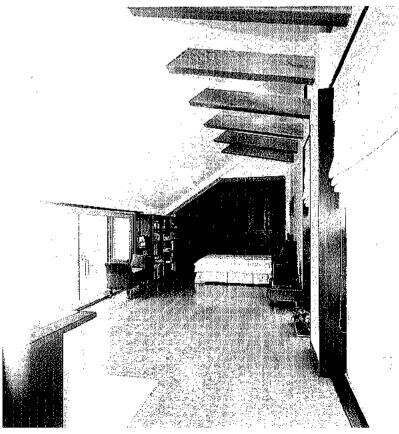












아펜젤러 기념교회

Appenzeller Commemoration Church

김석화 / 건축사사무소 터·울 Designed by Kim Suk-Hwan

건축개요

대지우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439-6번지

지역지구 대학부지(배제대학교대)

도로현황 8M **도**로

대지면적 2,250,0nf

건축면적 480,0n2

건 폐율 21.33%

연 면 적 976,69m²

용 적 율 43.41%

규 모 지상2층

구조방식 R.C조

건물높이 11,0M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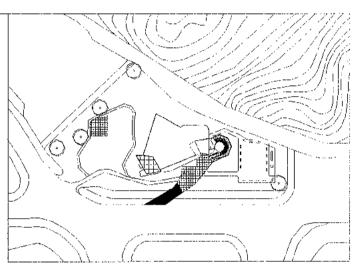
주요용도

주요외장 회벽

설비방식 중앙공급식

주차대수 9대

설계년도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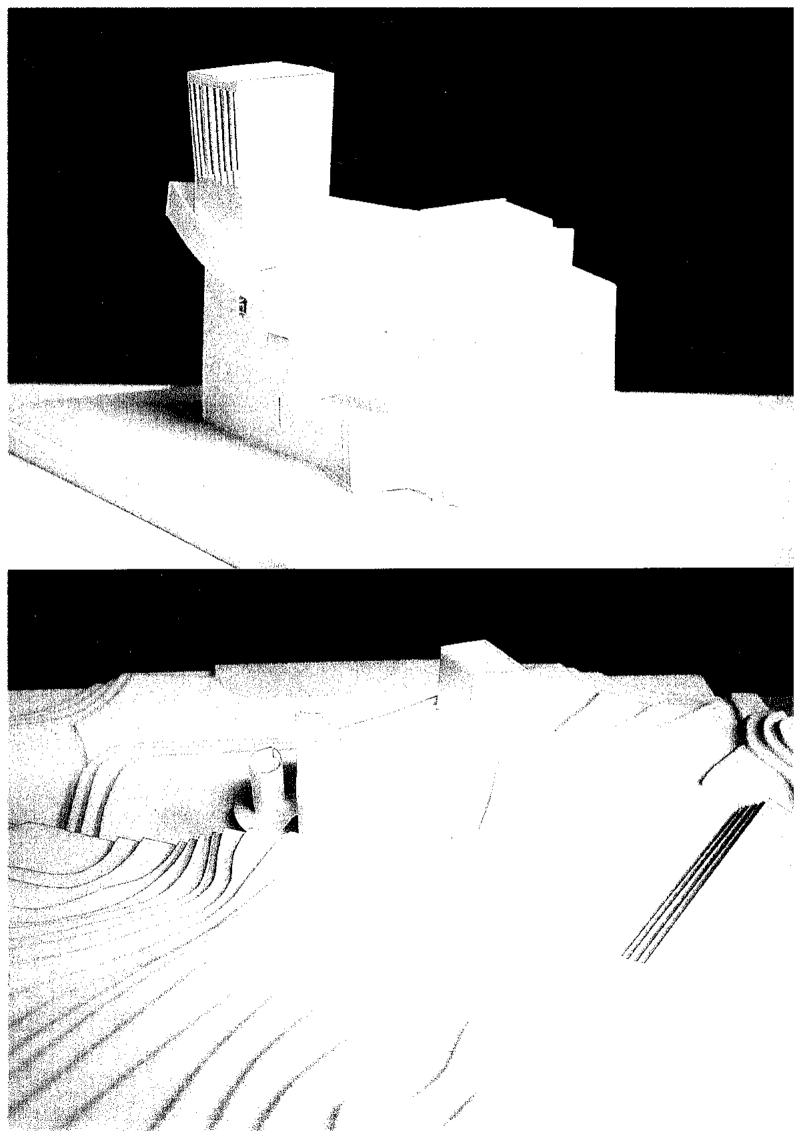
배치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 절에 제불포항에 첫 발을 내 디딤으로서 이 땅에 개신교의 역사 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수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말처럼 개신교는 어느덧 굵고 무성한 나무로 성장 해 있다. 그렇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 역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군 산앞 오식도 근처에서 큰배와 충돌한 사고로 조난율 당해 순직하 고 말았다. 그는 서울을 출발하기전 정신여고 학생을 데려다 달 리는 부탁을 받고 동행하고 있었는데, 수영에 능했던 아펜젤러는 조난 당한 기선에서 스스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데리고 가던 여학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 26세 젊은 나이에 이국 만리에 와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의 삶은 44세에 그 렇게 극적인 막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격동의 구한말 한국근 대사에 끼친 막대한 영향과 예수의 고난을 연상케 하는 중고한 삶은 큰 의미로 기억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돌아볼 만한 기념관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 한 세기

가 흘렀다.

그러던 차에 그가 설립한 정동제일교회와 배제대학교 전영배교 수 등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금을 내고 하며 아펜젤러 기념교회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교회 부지는 배제대학교 교내 로 정해 놓고 있었는데,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창립하였으며 배 제대학교도 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배제대학 캠퍼스는 자연지형을 등지고 숲과 건물이 어우러진 쾌 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회 부지는 정문에서 학교로 진 입할 때 정면으로 올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밖으로부터 정문을 통하는 약 15%정도의 오르막 경사도로가 있 는데, 도로면에서 약 4.5M 높게 가로 75M 세로 30M 정도 평 탄하게 닦여 있는 교회터는 정문에서 정면으로 보여서 교정을 출 입할 때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잘 인지되는 곳이다. 그래서 상징성을 충족하기에 안성맞춤인 입지조건을 갖 고 있다. 이 교회는 아펜젤러 목사의 기념과 예배기능을 함께 갖 도록 계획되었는데, 배재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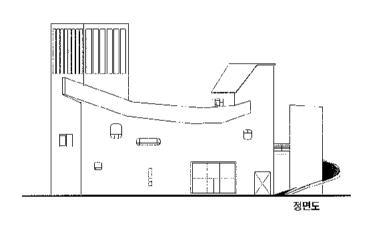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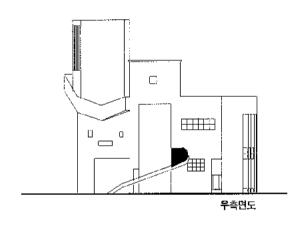
사람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순례교회의 성격도 갖는다. 교회 규모는 연면적 300평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예산 확보의 측면도 고려된 것이지만 기념성에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도로에서 비스듬히 언덕을 올라 교회 앞마 당에 이르면 정면에 기념관 홀로 들어가는 박스 형태의 문이 있고. 그 우축에는 예배당으로 오르는 경사로가 있다. 1층 기념관은 아펜 젤러 목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다. 홀 근처에는 교회사무실을 두어 교회기능과 관리에 편리하게 쓰이도 록 했다. 2층 예배실은 1층 기념관을 들러 홀에서 계단을 통해 오를 수도 있고, 옥외 경사로를 통해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도 있었다. 예배당의 평면은 외부로 만곡된 형태로서 벽면에 둘러싸여 옥외에서 와 같이 제단을 향해 시선이 자유롭게 모여들도록 했다. 종교의 구원 은 영적인 감화로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한 영성이 충만할 수 있는 예배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간의 적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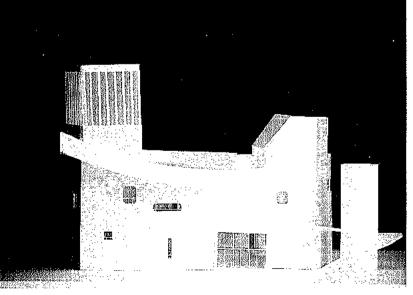
부피와 빛의 작용을 생각했다. 제단에는 축면 스테인드 그라스를 통 햬 은은한 빛이 들어오게 하고, 예배당에는 천창과 측면의 작은 창에 서 각각의 특색을 띤 빛들이 모여들게 했다. 예배당 입구 홀은 친교 에 알맞게 쓰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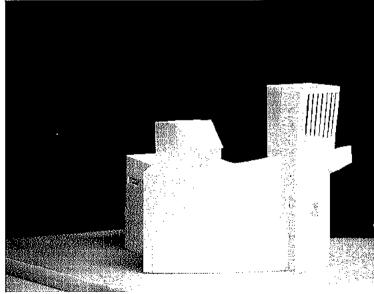
건물은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형태로 되어 있다. 곡선으로 된 건물벽 선의 완만한 흐름과 빛의 통로와 경사로의 원통 등 수직적 요소의 매 스가 형태와 높이를 달리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교회 주변은 마 당을 꾸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사색과 대회와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흰색으로 통일된 건물 형태의 힘이 외부공간에 끼 쳐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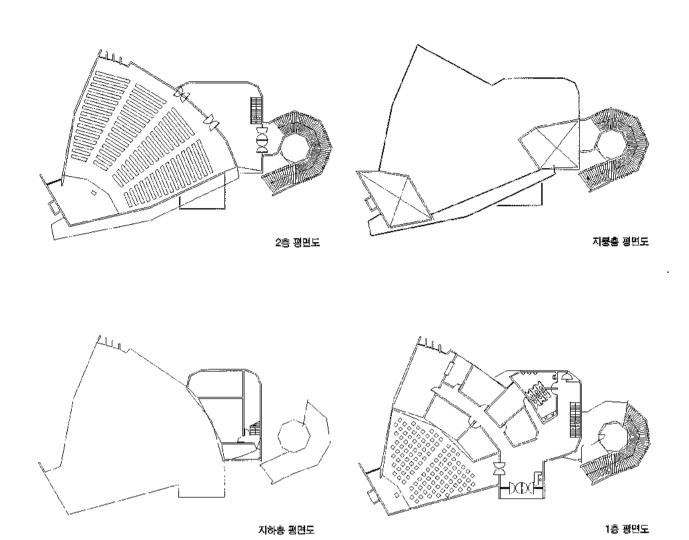
이 계획안은 98년 설계를 의뢰 받고 만들어 설명회를 가졌으나 그 뒤 추진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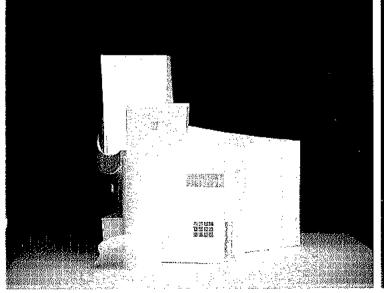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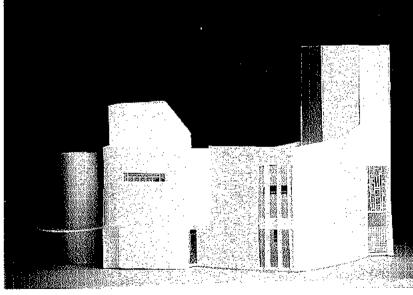












신림동 교회

Silrim-dong Church

김석환 / 건축사사무소 터 · 울 Designed by Kim Suk-Hwa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63-11의 5필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629.4㎡

건축면적 362,05㎡

연면적 1,286,81m²

건 폐 율 57,52%

용적률 163.56%

규 모 2층

구조방식 R.C조

주요용도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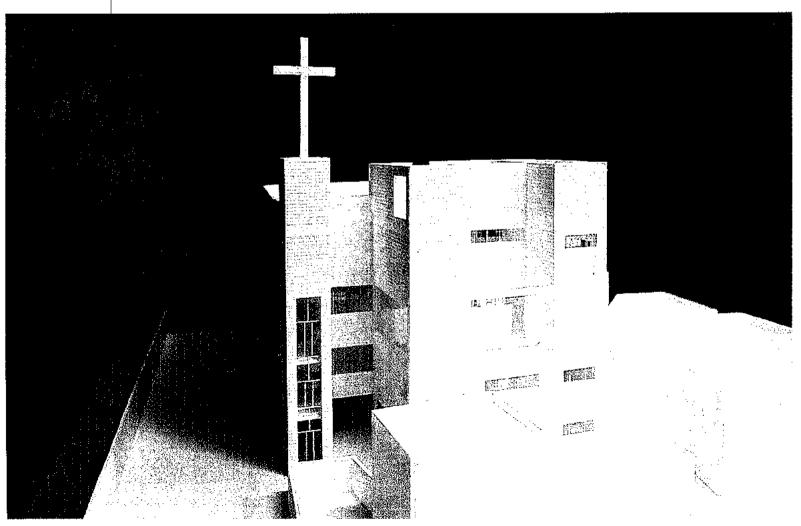
주요외장 노출 콘크리트

주차대수 3대

조경면적 10.90㎡

설계년도 2000

______¹⁰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교회는 건축가로서 꼭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이다. 르 꼬르뷔제의 작품 가운데서도 통상과 라 뚜우렛트 수도원은 가장 극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종교건축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즉 인간의 현실상의 속스러 움을 넘어 성스러움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95년 대전 탄방동 성당을 계획한 일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계획안으로 고쳤을 뿐 실현할 기획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그 뒤 아팬젤러 기념교 회도 희망을 크게 가졌지만 실현되지 못해 아쉬웠었다. 그런데 99년 7 월 어느 날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교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설계할 수 있 는 시간이 있느냐고 전화가 왔다. 즉시 기쁘게 대답하였고 몇 일 후 현 장에서 목사님과 함께 만났다. 그 부지 위에는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 는데, 주변 필지를 추가로 매업했고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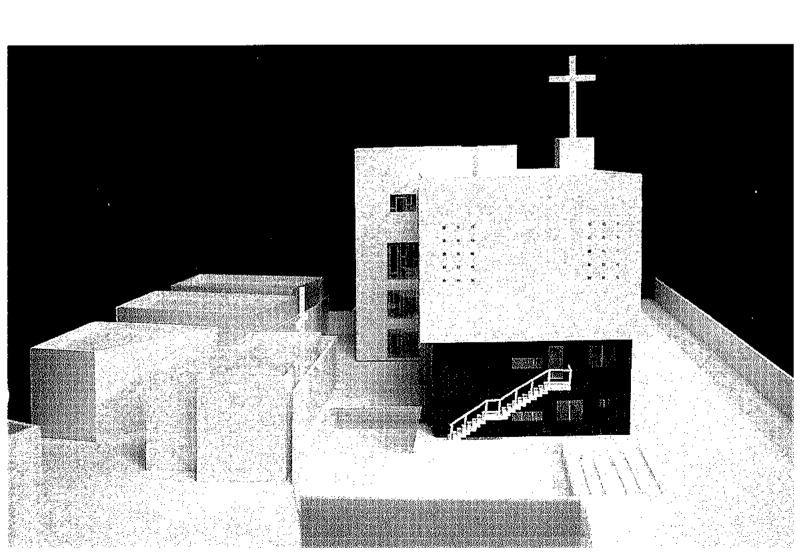
대자는 신림동에서 대림 방향으로 가다 오른 쪽으로 꺾여 들어간 지점에 있다. 그 앞으로는 지하철 지나가는데 대지 앞쯤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된다. 복개된 도로의 폭은 35M나 되지만 지상으로 변경되는 지점부터 지하철도를 보호하는 방호벽이 시설되어 있어서, 실제의폭은 10M밖에 되지 않는다. 그 벽을 따라 자동차가 이동하므로 심리적인 폭은 더 작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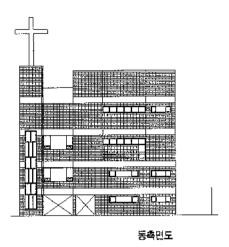
건물 배치는 건물을 도로 쪽에 비짝 붙이고 피로티를 통해 들어간 안쪽에 마당을 두고 인근 주택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둘러쳤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좀더 안정적인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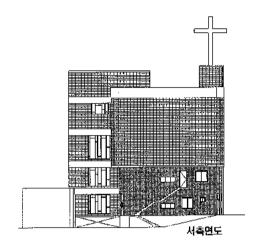
그 마당은 좋은 친교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고, 또한 평소에도 주민들에 개방되어 열린교회의 지향점과 일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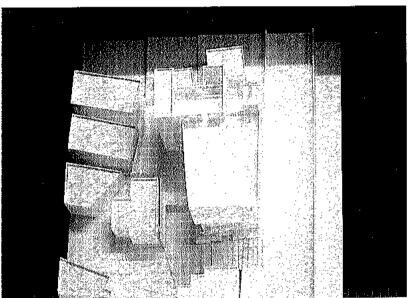
지하층은 주차장과 식당, 보이라실 등 건물의 부대기능 영역으로 하였는데, 경시진 좌측 도로를 이용하여 지하층 주차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했다. 1층은 피로티로 하여 마당에서의 넓은 개방감을 확보했는데, 일부는 사무실과 주차공간도 두었다. 2층은 목회자실과 사무실, 교실 등을 두었다. 현재는 교회에서 친교공간과 교육공간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3,4층은 예배공간이다. 경건한 예배분위기가 되도록하는 공간계획이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안정되게 느껴지는 단순한 볼륨의 공간에 적당한 빛이 유입되게 했다. 그리고 옥상은 마당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외부 형태는 피로티의 공허부와 볼륨부분의 대비를 통한 힘이 느껴질 수 있게 했다. 재료는 스프릿 볼록과 노출콘크리트, 붉은벽돌 타일을 적절히 사용하여 단순한 매스에 물성이 함께 베어나도록 했다. 면적을 줄이면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일부 바닥을 공허부로 처리하면 서 원래대로 유지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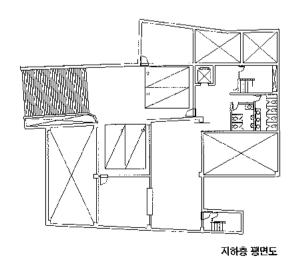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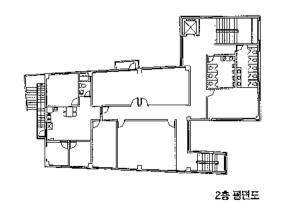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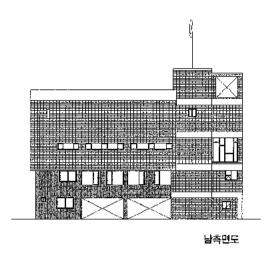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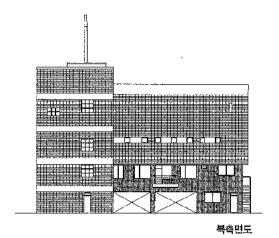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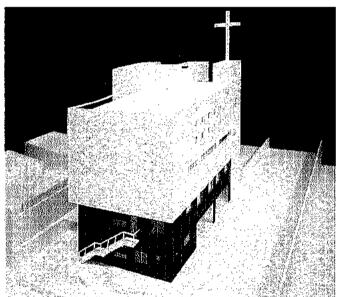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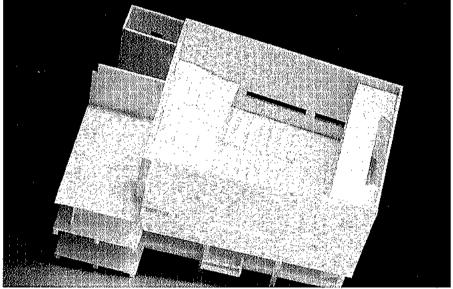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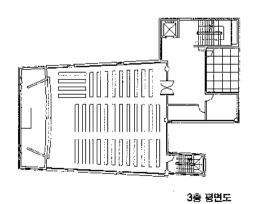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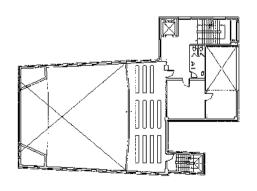












창원반송 재건축 사업지구 공동주택 / 7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74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 78

충남대학교 생명파학원 및

공동동물실험센터 / 82

의정부세무서 / 86

창원반송 재건축 사업지구 공동주택

Changwon Bansong Housing Reconstruction

▶ 당선작/(주)디에이그룹엔지나이링 종합건축사시무소(김현호 · 조원준) + (주)건축사사무소 원형(손광민)

경상남도 창원시 반송주공 아파 대지위치

트딘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역지구

아파트지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245,570,940m3 대지면적

44,643,167m² 건축면적

연면적 814,065.632m²

18.18% 건페율

용적률 254,28%

규모 지하 1층, 지상 18층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주차대수 6.268대

구조

D.A GROUP: 김병기, 위재성, 설계팀

김주욱, 유덕현, 김주욱, 유덕현,

지금선, 염인선, 이 용

원형건축 : 김규탁, 공진표, 정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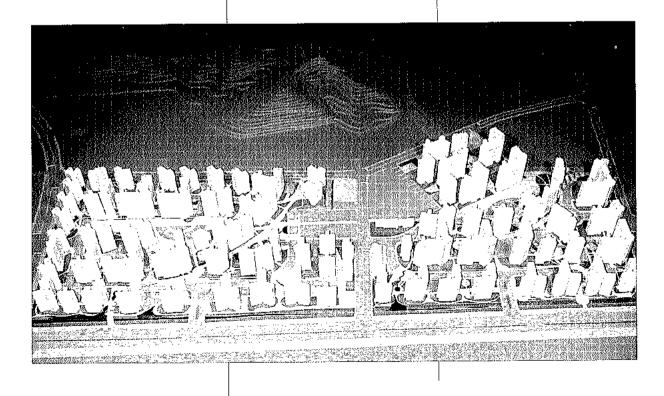
대상지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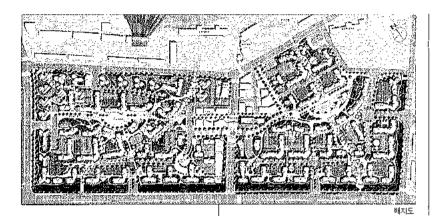
대상지는 창원시 중심가에서 북서측에 위 치하는 아파트단지로서 창원시000아파트 지구의 일부분으로 남측으로는 창원종합 운동장이 위치하며 동축으로는 용지주공 아파트(5층)서측으로는 단독주택지,북측 으로는 15층의 아파트와 학교, 공원이 위, 치하고 있음.

대상지내부는 2개단지로 구성되어 기운데 지구중심이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주구 중심과3개의 분구중심이 분산되어 위치함. 대상지 남측과 동측에 인접하여 도시하천 이 흐르고 있음.

계획개념

- 1) 주제설정 : 대상지의 지역적특성과 친 환경단지로서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도 시와 자연의 어울림을 상징하는 오감솔 을 주제로 도입
- 2) 계획구상: 제시되어진 프로그램과 충 수제한을 고려할 때 과밀로 인한 단지 환경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어 이를 극 복할수 있는 3가지 개념을 도입
- ① 집중과 분산 ② 네트워킹 ③ 친환경
- 3) 단지 공간구조 : 2개단지를 중심에 핵 을 둔 4개 소생활권으로 <mark>구성하고</mark> 각생 활권에 소중심(커뮤니티 코어)공간구 성, 단지내 도로는 기존 교평의 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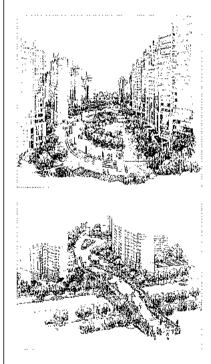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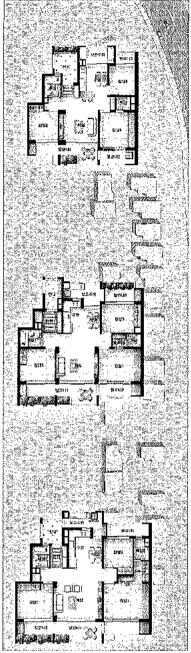
수용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4개중심공간에 덱크를 설치하여 차량 과 보행동선의 입체적 분리 시도, 단지 서축 주진입구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르 는 MAIN SPINE을 설정하고 이를 탄 지내 중앙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면서 주요 거점 및 요소들을 연결하는 매개 체로 계획,

- 4) 주동배처: 반송로변 및 단지후면 경계 부는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15층이하, 직각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타워형 주동 을 혼합하여 가로변 개방감을 극대화 하고 단지내부는 콜러스터형을 기준의 로 코너형 타입개발로 외부공간을 최대 하 확보
- 5) 외부공간 및 조경 : 1단지 솔비람공원 에서 중심상가(시장), 그리고 2단지반 송초록광장이 동서로 연속되게 계획하 고 단지내 기존자원인 500그루의 벚 나무를 주보행로상에 이식하여 벚꽃터 널계획, 반송마을의 이미지를 제고하 기 위해 단지중심부와 입구에 반송군 락지를 조성, 단지외곽의 하천을 조경 요소로 활용하기위해 단지내부 실개천 과 연계되는 수공간 구성.
- 6) 분양성 향상 계획 : 남향세대가 최대화 될 수있는 주동타입을 개발하고 일반 분양이 예상되는 대형평형을 반송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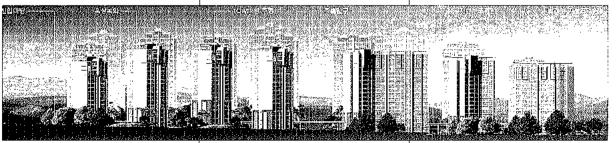
또는 조망이 좋은곳에 배치하여 분양 성을 높일 수 있게함.

- 7) 공공성에 대한 고려 : 주공이 시행하는 공공주도의 재건축이파트임을 감안하 여 공공성과 사업성이 공존할수 있는 계획 수립.
- 보행자를 위한 대규모광장,보행덱크등 - 반송로변 이미지제고를 위해 반송로변 주동군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 고 가로입면을 디자인









▶ 우수작 / (주)회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이영희·정영균)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기철 · 최두호 · 한남수)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반림동 10-1

번지 일원

용도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아파트지구

(1단지)

대지면적 126,583.95m²

25,537.32nf 건축면적

393,836,56m² 연면적

건폐율 20,17%

254 21% 용적률

세대수 2.808

(2단지)

대지면적 118,986,99m²

건축면적 21,850.12m2

368,658,32m2 연면적

건폐율 18,63%

용적쁄 254.81%

세대수 2,662 설계됨 희림 - 이종수(총괄), 강현일,

> 김충섭, 이승우, 오승육, 류선회 토문 - 최기철(총괄), 김경수,

장한수, 류민경, 서요섭, 권혁삼,

김효태, 임미경, 김기수

단지계획

반송지구는 창원시내 중심 반송근리과 장복산을 향한 자연경관축에 인간친화, 자연친화, 도시친화, 시간친화라는 다양 한 기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계획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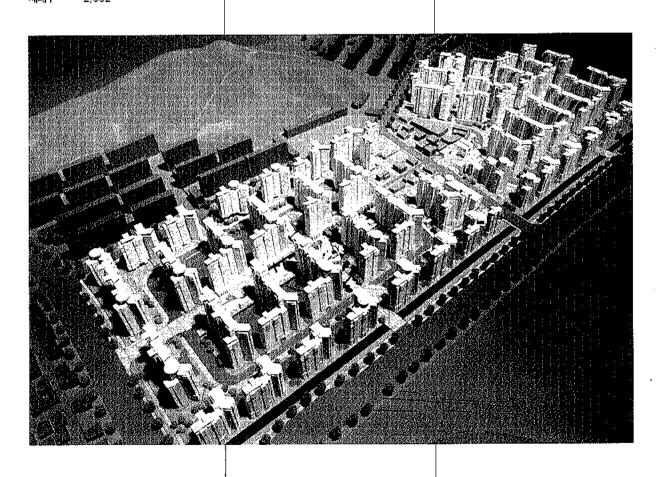
인간친화 기존 단독주택지와 용원공원 및 창원시내의 연계성과 활발한 생활동 선을 적극적으로 이용 생활공간으로서의 가로(living-street)형성, 이벤트 가로 조 성으로 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자연친화 녹지의 생태적 연결성을 주거 환경에 공존하는 자연단지로 조성 자연 을 향유하는 주거환경창출 반송근린공원 의 등산로와의 연계, 기존하천과 연계되 는 실계천이 흐르는 보행전용가로조성으 로 생활속의 환경요소들의 공동사회적 의미로 인식할 수 있는 방향제시 도시친 화 반송로변과 주거지 인접부에 탑상형 주동배치로 도시내의 랜드마크적인 이미 지로 심리적 중심공간으로의 표현과, 가 로변 주동의 스케일 다운 및 가로공원의 연속성으로 친근한 휴면스케일, 장복산 과 반송근린공원의 조망을 최대한 확보 하여 자연을 항유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을 추구하였다.

시간체화 기존 주거환경의 존중에서 출 발하여 보행로상의 재래시장을 적극적으 로 단지와의 연계하여 상가 및 복지관의 연속적 배치를 통한 광장 몰(MALL)개 념을 제시하여 진입마당, 중앙광장, 테마 형공간, 어귀마당, 중앙광장, 용지공원등 의 연계된 생활공간으로서의 가로공간 창출 환경적 요소들의 좀더 다면적인 관 점을 부여하였다.

동선계획

기존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보행가 로 조성 기존주거지-시장-용지공원을 잇 는 지구중심가로와 각 주동의 마당을 잇 는 도시형 보행가로, 실개천을 활용한 생



태가로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가로조성을 하여 자연스런 커뮤니티 생활공간조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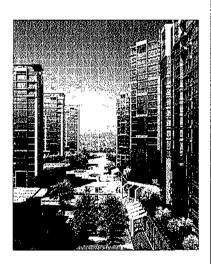
차량동선의 출입은 보행위주의 단지를 위한 순환차로 방식을 적용하여 단지내 를 관통하는 차량을 최소화하는데 중점 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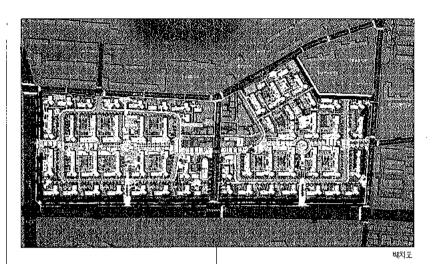
주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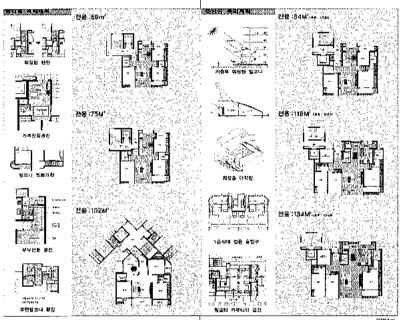
도시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주통형태의 방항제시, 환경친화, 조형적, 미래지항적 입면구성, 조망과 경관을 고려한 바라봄 이 있는 보행과 스케일에 대응한 스카이 라인 형성등 주동 중심부에 넓은 외부공 간의 확보, 외부공간관의 연계, 랜드마크 적 이미지 공간**확보** 등을 수용하면서 탑 상형과, 3호, 4호 타워형 주동으로 계획 하였다.

단위세대계획

Life style의 변화 및 수요에 대응 가변적 공간, 확장형을 통한 공간활용, 전실의 적극적활용, 주부의 작업동선 및 주방공 간확장, 내외부 수납공간의 극대화 등 다 양한 요구사항과 새로운 공간 및 시스템 개발을 적용하였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

▶ 당선작 / 영환건축사사무소 (신영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 대지위치

매립지

대지면적 33.000.00n²

건축면적 3,507,44m²

연면적 6,807.34m²

10,63% 건페율 용적률 19.06%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주차대수 110FH

S' ST.PL, 법량패널, T18 컬러 외부미감

복충유리

설계팀 유병곤, 한철, 장용섭, 박주영

계획의 목적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사옥 신축은 매립 지 관리공사의 이미지가 함축되고, 생태공 원화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친환경적인 건축기법을 도입 설계하여 환경 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하고 아울러 직원들의 복리후생중진과 지역주민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배치계회

전면 도로와 대지에 대응하는 축을 설정하 여 본관 건물의 정면성 및 인지성을 확보 하였고 사옥을 중심으로 생태공원과 조형 분수광장이 원형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사 옥을 포용하는 배치이며, 대지의 특성상 해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관을 본관과는 직각방 향으로 서쪽에 배치하여 악취를 동반한 해 풍을 막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특히 매립 지 전체가 생태공원이 되는 DREAM PARK 조성계획에 맞추어 유기적인 연결 축을 설정하고 동적, 정적 영역의 시설물 을 배치하여 추후 보행물로써 연계를 고려 하였으며 산책로와 휴게공원을 북쪽, 동쪽 에 길게 배치함으로써 장래 DREAM PARK와 유기적, 생태적으로 연결시키면 서 <mark>대지 전체에 안정감을 도출하였다</mark>.

평면계획

로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모두 연결되 는 유기적 구성이며 북쪽에 복도를 배치 하여 모든 실을 남향 배치하였고, 실내에 아뜨리움을 도입해 실내환경의 개방감 및 입체적 공간감 부여하였고, 유사기능의 근접배치로 공간의 유기성을 강화하고 단 순, 명쾌한 Module 계획으로 합리적인 구조시스템 및 효율적인 평면을 구성하였 다. 또한 3층에 옥상정원을 둠으로써 쾌 적한 근무, 휴게 환경을 제공하였다.

동선계획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분리를 명확히 하였 으며 차량 동선은 직원차량과 방문자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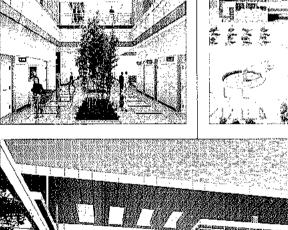
량을 분리배치하고 비상차량과 서비스차 량 등이 순환할 수 있도록 서쪽 10M도로 와 연결하여 계획하였고 단체버스 방문객 을 위한 주차장은 동선의 단축과 차량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20M도로에서 바로 접근이 되도록 별도로 계획하였으며, 나 무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그늘을 만드는 SHADOW PARKING 개념과 잔디블럭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였다. 보행자 동선은 DREAM PARK와의 연결 축과 본관 진입축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처리하고 주차장으로부터의 동선단축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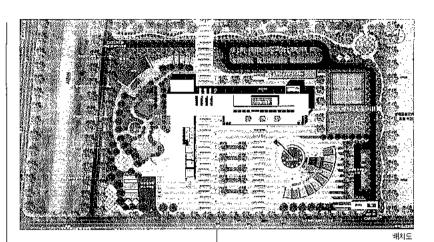
입면 및 단면계획

단면적으로는 내부공간에 아뜨리움을 도 입하여 모든 실이 남향으로 자연채광이 가 능하도록 하고 연약지반이므로 지하공간 을 최소로 계획하였다.

특히 입면은 DREAM PARK의 출발점이 되는 위치이므로 상징적인 GATE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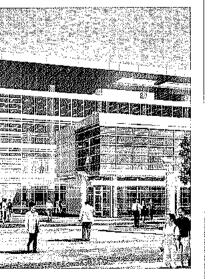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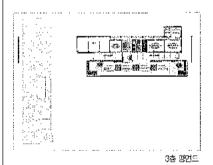
의 형상화를 개념으로 랜드마크적 역할을 수행하며, 바다의 수평선을 모티브로 한 수평성 강조로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간 결하고 강한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주재료로 해풍에 대하여 내염성, 내식성이 우수하고 외관도 미려한 스텐레스 패널 및 법랑 패널을 이용하여 권위와 경직성을 탈 피하고 밝고 깨끗한 이미지의 공공성을 고 려한 입면의 뚜명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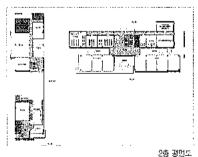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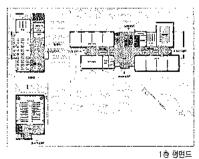












▶ 우수작 / (주)선진엔지나어링 종합 건축시시무소(김병년 · 현태헌)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부지(1공구지역)

대지면적 33.058 nt건축면적 2,948.78n² 연면적 6,801.17m

8.90% 건폐율 용적률 19.51%

구조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본관 : 지하 1층, 지상 3층 복기후생관: 지상 2층

기타 : 경비실, 차고

122대(장애자주차 3대 포함) 주차대수

외부마감 화강석버너마감, 컬러복층유리,

이연도패널

섩계팀 전영성, 인성열, 최의석, 김동수,

김종우, 곽동진, 김성일, 신기수,

김대영, 서보성, 배형식, 고범진,

황점기, 배준호, 전대열, 안은숙

주변의 인문지리적 환경 매립지라는 장 소의 특수성 속에서 과연 어떻게 매립 지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공사사목의 이미지를 만들어낼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지게 된 첫번째 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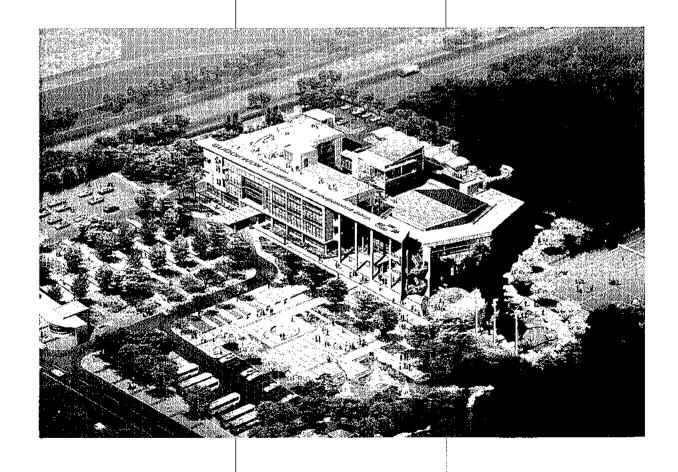
또 하나, 세계 최대의 매립지를 세계 최 대의 환경복지시설로라는 공사의 비젼에 비추어볼 때 그 만큼 향후 이 건물이 가 지게 될 상징성은 여타의 다른건물과는 다를것인 반면에 점차 늘어나는 방문객 들에게 열린공간으로써의 홍보교육의 장 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다소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하나로 어우를수 있는가가 두번째의 숙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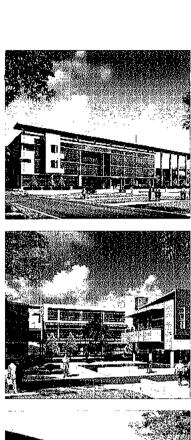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모티브로 공사 시옥의 심볼이미지를 가 져왔으며 이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변형 하면서 전통건축이 가지는 배치와 형태 요소를 온유적으로 차용하여 건물로 형 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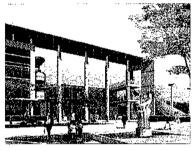
대지를 수평, 수직의 켜로 나누면서 본 관동의 사무동선과 복리후생동의 교육홍 보통선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분리하 였고 매스와 매스 사이의 사잇공간을 통 해 뒤에 보일 또다른 장면들을 동선의 흐 름 시선의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출 시켜주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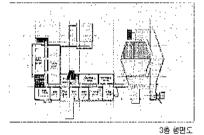
사용이 가지는 강한 상징성을 표출시키. 기 위해 분절된 매스를 하나로 어우르는 프레임(틀)을 만들어 주었으며 강한 바 람과 먼지.. 등의 자연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정(안마당)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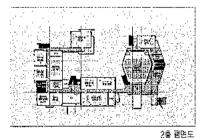
교육홍보의 열린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 해 시옥동선과의 죤별, 충별 분리를 꾀 하였고 매립지 전체를 견학하기에 앞서 향후 매립지의 친환경 생태공원화 방향 을 보여줄 수 있는 축소판으로 전면 <mark>생태</mark> 공원 및 친환경에너지시설(풍력발전기, 태양광발전, 가로등, 빗물채집)을 계획 하였다. 심볼이미지를 건축화하면서 나 타나는 문제점 및 초기 가졌던 과제를 해 결하면서 나타난 미흡함은 향후 해결해 야할 건축적 과제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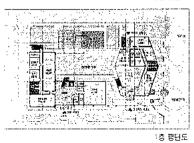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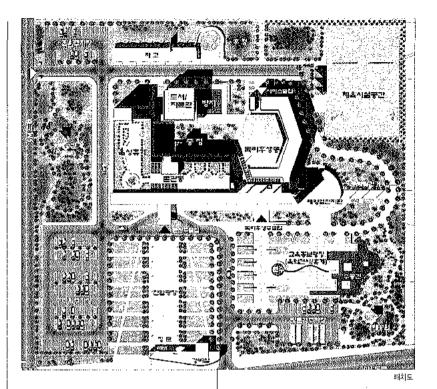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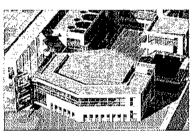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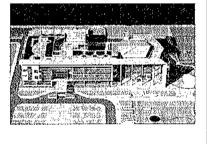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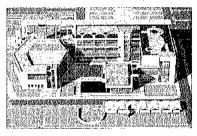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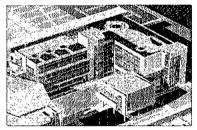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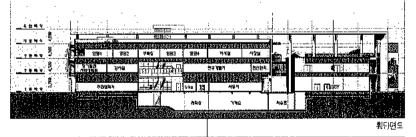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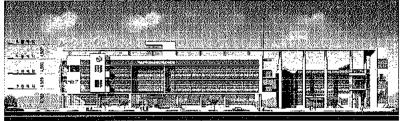












정던도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Korea Highway Corporation Siheuna Office

▶ 당선작 / (주)건축연구소 한 종합 건축사시무소(윤상조) + 최재상

대지위치 경기도 시흥사 목감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지구

업무시설 용도

대지면적 28.760m²

건축면적 3.035.63 nf

3.448.58nf 연면적

8,628.00m² 조경면적

건폐율 10.6%

용적률 12.0%

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철골 구조

창고,정비동 - 지상1층

본관,식당동 - 지하1층, 지상2층

27대 주차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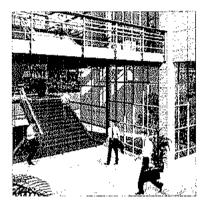
외부마감 알루미늄쉬트패널 (Meta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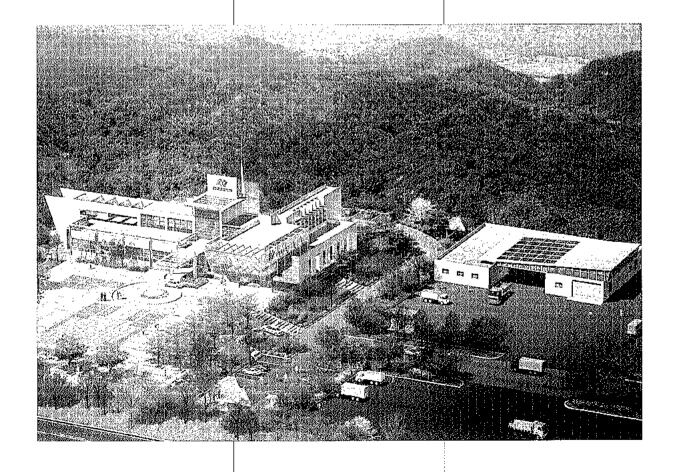
설계팀 김현수, 이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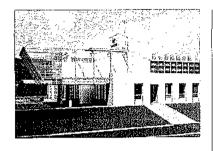
자연과 함께 숨을 쉰다. 경쾌한 발걸음 으로 산행을 한 후 정상에서 그사이 지나 쳐온 길을 내려다 본다. 어디에서 시작 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돌여켜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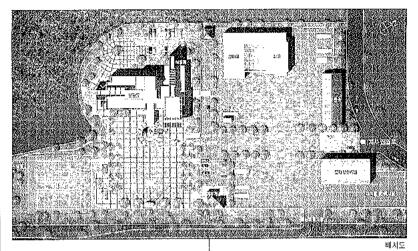
자연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인류는 자연 과 터불어 살아가는 공간을 형성하면서 문명을 이루어간다. 각각의 문명을 연결 해주는 도로의 기능을 충족시키고 개척 하는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를 2002년 의 여름을 맞이하면서 계획하게 되었다. 도로공사의 지사계획은 다소 효율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토지이용, 배치, 평면 및 외부공간 등의 기능적 해결에 우선하 여 계획하였다. 작업공간과 사무공간의 로 이원화된 Zoning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차폐조경

식재(Buffer Green), 위요조경공간 등의 요소를 사용하여 쾌적한 진입로가 되도록 하였으며 자투리 공간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산책로와 야적공간을 두었 다. 고속도로에 신속한 진입을 위한 비 상차량 진입로를 작업공간에 인접하여 계획하였다. 도로공사의 상징적 이미지 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교속도로와 진입 로 두 방향에서 정면성을 강조하고 한국 도로공사의 C.I.철학을 담은 형태계획으 로 다이나막하고 경쾌한 느낌으로 접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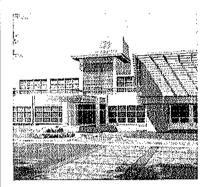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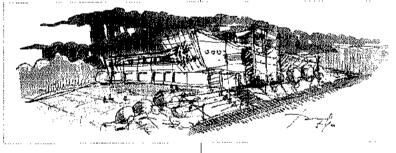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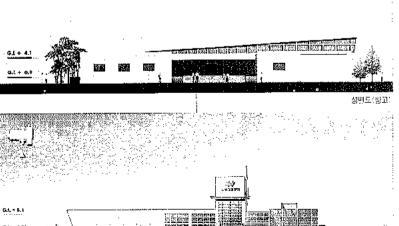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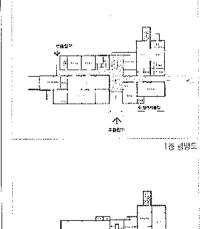












▶ 우수작 / (주)에이텍종합건축사 사무소(김상길 · 김희옥)

대지위치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일원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대지면적 28,760m²

건축면적 1,823.25nf

2.634.87 m연면적

건폐율 6.34%

용적률 7.7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본관통 : 지하 1층, 지상 2층

창고 /정비고동 : 지상 1층

주차대수 민원고객 12대, 직원차량 37대

외부마감 본관동 - 화강석 버너구이, 세라

막 패널, 적삼목 / 오일스테인.

커튼월

창고/정비고동

외단열 시스템 (프라이비트)

김명현, 이광기, 정재선, 홍만식, 김지선, 류상보, 최교식, 장용태,

소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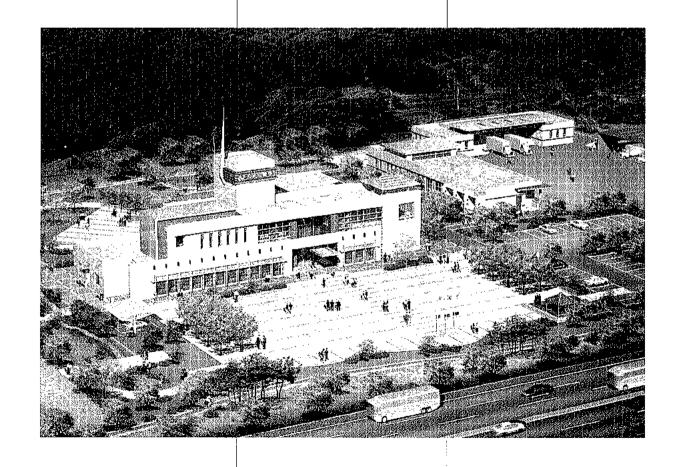
설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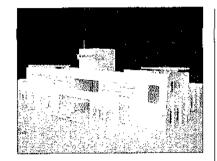
본 설계의 범위는 본관/식당동과 정비 동, 창고통이며, 부속시설(모래보관창 고, 장비보관소, 주유대, 테니스장 등)은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에 표현 되도록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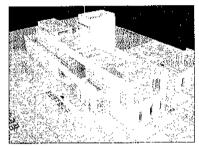
전체배치는 기능적 특성과 이미지를 고 려하여 크게 본관동 영역과 정비고동 영 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상호 연계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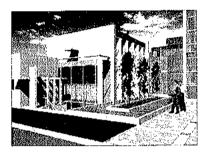
본관/식당동은 전체 계획의 중심공간으 로서 고속도로변의 동적인 상징성에 랜 드마크적인 디자인과 인지도가 높은 기 하학적 조형성을 부여하고 있다. 솔리다 하고 수평적인 벽면에 개념적 창호 구성 과 도로의 동적 이미지를 루버의 수평적 리듬감으로 반영하였으며, 수평 형태의 캐노피로 방향성을 도모하였다. 첨단 소 재(세라믜 패널)와 자연소재(적삼목)의 대비로 인지도의 배가 효과와 더불어 환 경친화적인 공간과 소재의 채용을 적극 도모하였다. 특히 지시시옥의 평면적 기 능성과 합리성 가변, 확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사무공간 영역 및 각 기능공 간을 구분하여 평면 구성하였으며, 내 외부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배 후의 수림대를 고려한 테마공원 및 직원 휴게공간을 식당과 연계하여 조성하였 다. 특히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매개하 는 수공간을 도입하였으며, 1층의 사무 영역 및 식당은 외부공간으로의 시각적 연계성을 고려한 창호시스템으로 창호 턱을 바닥까지 내려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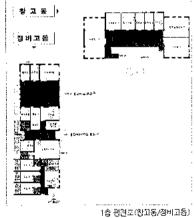
정비통과 창고통은 극히 기능적인 공간 으로서 부대시설과의 연계성 및 외부 정 비광장의 활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으 며, 특히 정비동내 독신자 숙소 공간과 정비공간의 숙소공간 및 기능공간의 이 질적인 공간을 적절히 분리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 또한 외부휴게공간은 본관동 영역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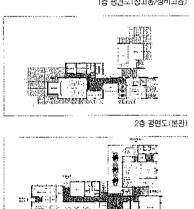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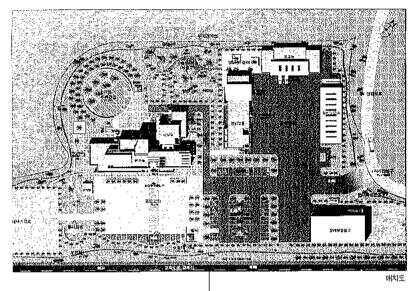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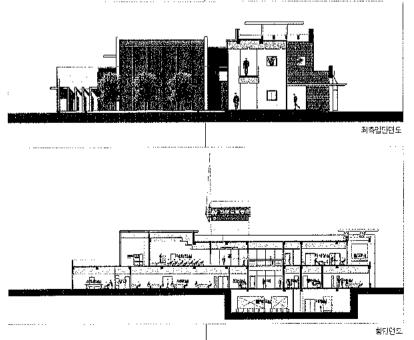




1층 평명크(본판)







충남대학교 생명과학원 및 공동동물실험센터

Center for Life Science and Animal Experiments, Chungnam University

▶ 당선작 / (주)창조종합건축사 사무소(김홍철)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2,413.54\,\mathrm{m}^2$

연면적

10,254,30m²

꾸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생명과학원 - 지하 1총, 지상 6총

공<mark>동동물실</mark>험센터 -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점토벽돌, 스톤패널, 복층유리

설계팀

안용환, 이상흔, 정원순, 정순원,

이강우, 이은진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

- •21세기 첨단 생명과학 연구를 선도 할 연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 제 구축과 현대화된 시설물로서의 기 능 확보
- ⇒ 전문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관 련 연구소 및 산업현장에서 현재 적 용되는 시스템을 도입
- 주변환경 및 장기발전 계획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축공간 의 조성 및 창조
- ⇒ 장래 학연 연계 발전을 위해 기존의 지형 및 여건을 감안, 향후 생명 공 학 단지를 계획
- 충남대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를 고려한 건축 양식 도입
- ⇒기존의 건축물 디자인을 감안하여 중후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건축재료 및 입면계획

주요외장 및 미감계획

•기존 동물병원 및 수의학과의 외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마감 및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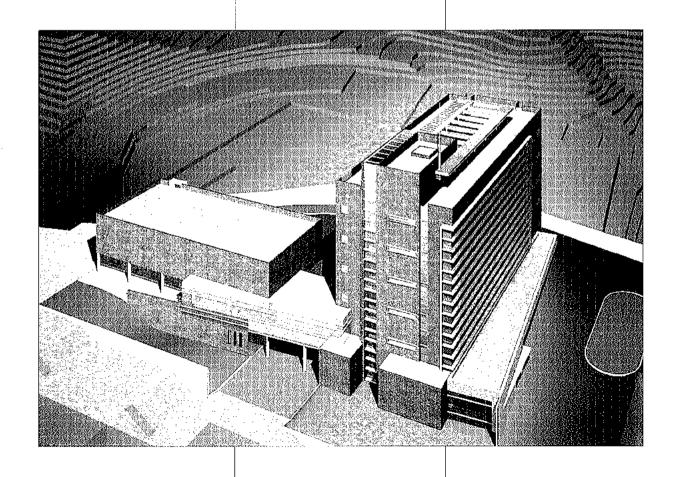
• 현대성 및 세련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메탈 / 커튼월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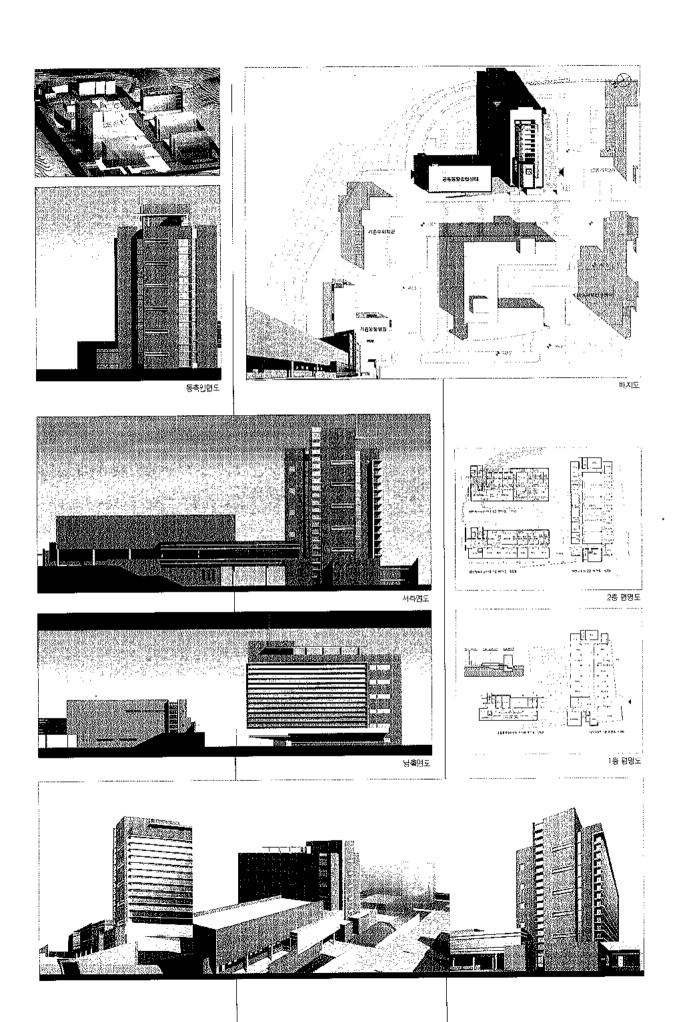
기능 및 동선계획

- •외부 간선도로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단지 중앙부 보행자 몰의 구성
- •개별 / 독립적인 기능성을 충족할 수 있는 단지 구역별 동선로 확보

구조계획

• 본 건축물은 6층의 생명과학원 및 2층 의 공동동물 실험센터 등 2개동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충별 용도로 지상충 은 연구, 실험실, 지하층은 기계, 전기 및 지원시설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2 개통의 연결을 위하여 1, 2층 부분에 서 Bridge를 형성하고, 공사의 편의 성 및 구조체의 안전성을 고려한 철근 콘크리트조의 라멘과 전단벽 시스템의 로 계획하여 수직하중은 입체골조가 저항하고 횡력에 대해서는 전단벽이 저항하는 건물골조방식을 적용한다.





▶ 우수작 / 건축사시무소 에이앤엘 (서범철 · 김용각)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이승용)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충남대학교 대덕 캠퍼스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504,455,80mi

건축면적 2,808,86m2

10,287.91ոն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54대 (장애인용 2대포함) 주차대수

외부마감 적벽돌, 압출성형시멘트패털,

적삼목사이당

설계팀 김용현, 김후규, 최종관, 정구성,

김근회, CG팀 : 디자인 품조

대지와의 만남

설계의 기본은 건물을 기능적으로 정리하 여 사용자들이 불편없이 건물을 이용하고, 특히 이러한 실험 등의 건물은 좋은 실험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느냐 이다. 즉,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 기계가 아 니다. 오늘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 우울할 수도 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 니다라는 것이다. 출근 길, 식사를 하러 가 는 길, 잠깐 쉬는 것 등 바로 이러한 부분 에 기능과는 별개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곳 도 건축이 설계되어야 할 중요한 공간이 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오히려 사람을 사 람으로 보는 시각이 아닐까.

이곳은 서 있으면 대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넓은 들과 이것과 접하고 있는 산, 이것들은 자신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 라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공간을 지 켜왔던, 그리고 계속 공간의 일부로서 자 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바로 여기서 이들을 생각하며 개발을 하여야겠 다는 생각이 든다.

건물의 기능과 대지를 짜다(weaving) -ZONING

•산을 하나의 MASS로 생각한다. 그리 고 스카이라인을 본다.

산은 자연이며, 또 하나의 매스덩어려이다. 기존의 건물매스와 새로 세워질 매스와 그 리고 산을 하나의 매스로 보고, 건물의 규 모와 기능을 생각하여 조님을 하였다.

• 피로티와 투명함을 통한 틀판과의 연계

공간에 대한 주요 논의점 : 중심

중심이란 주어진 건물에 작용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다. 이곳을 통해 모든 공간들이 연결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건물을 이 용하는 모든 이들도 이 중심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면서 모든 공간들을 인식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의 중심으로 1차적으로 큰 중 정(中庭)과 과학원에서의 작은 중정을 택 했다. 외부공간으로 큰 중정은 주변의 환경 들과 연계를 이루고 있으며, 또 내부로 이 어주는 곳이다. 자연적인 요소와 연위적인 바닥 패턴을 건축요소로 이용하여 편하고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작 은 중점은 기능적으로 구분된 폐쇄된 공간 에 빛과 외부공기를 넣어 줘 실내에 활력을 주는 곳으로, 남향 빛을 받는 연구실과 강 한 태양이 필요 없는 실험실을 나누어 중복 도에서 파생되는 폐쇄감을 상쇄시키고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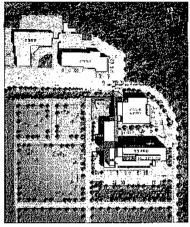
히 <mark>실험실에서 복도로 나왔을 때 자연</mark>적인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에 생명력 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중심적 인 공간은 대지로의 진입과 인지부터 건물 에서의 공간인지와 흐름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주도하는 곳이다.

공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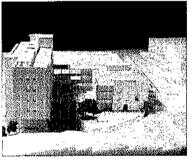
- 1) 오픈된 공간과 주변이 건물과 연계 건물과 비어 있는 곳, 이곳은 비어있는 공간들의 연계와 함께 이어지는 실공간 을 창출하여 공간을 부드럽게 짜여지도 록 하였다.
- 2) 기능의 건물덩어리와 이것들을 이어. 주는 공간에서 다양함의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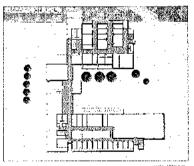
- 연구기능과 함께 정서적 공간을 빛과 자 연의 만남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계 획하였다.
- 3) 공간의 연속감과 동선의 이해 공간들의 기능적 배치와 인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간의 연속성과 동 선계획이 공간의 허(虛)와 실(實)을 통 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4) 원경과 근경에서의 건물에 대한 이미 지 인식문제

대지의 입지가 학교의 서측대로와 인접 하여 있으므로 교내에서의 인지뿐만 아 니라 학교 외부에서의 시각 및 인지가 고려되어 건물배치 및 스카이라인을 계 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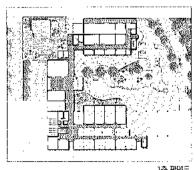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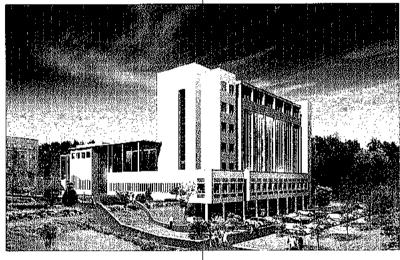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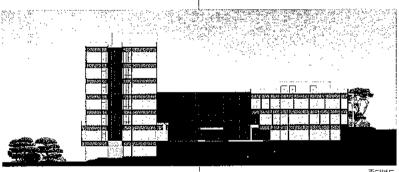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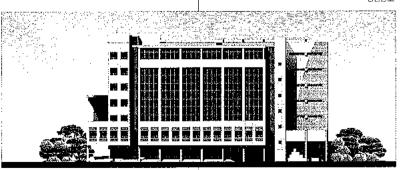
2층 평면로



1층 평면도







의정부세무서 청사

Euijeongbu District Tax Office

▶ 당선작 / (주)관건축사사무소 (윤상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 대지위치

1-5의 5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4,169ո՞

건축면적 2,194.80m²

연면적 6,796.72nf

5,782.50m² 조경면적

건폐율 15,49%

40,18% 용적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차대수 150대(법정 : 57대)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압출성형 시멘 트판, 노출콘크리트, T24컬러 복충유리

배치계획

- 대지형태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상호 유기적 매스 구성
- •MASS의 다양한 변화를 통한 인지성 확보와 접근성 부여
- 공간의 성격 및 기능에 따른 시설간 동 선분리 및 효율적 기능배치

평면계확

- •이용편리 및 관리 운용이 효율적이고 외부 조경공간과 연계도모
- 동선을 최소화하여 세무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 도록 함.
- 구조
- 정형한 모듈상에 다양한 선형을 유입. 시켜 자유로운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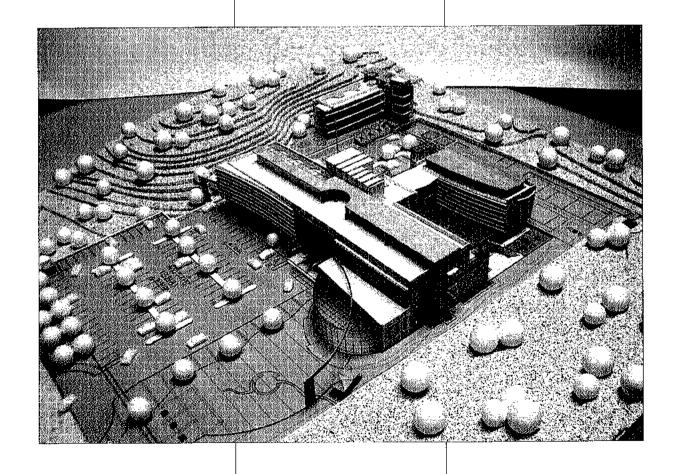
- •기능
- 업무 기능과 지원을 구분하여 다양한 기능의 수행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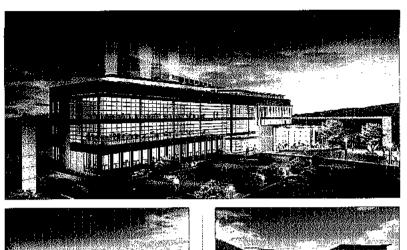
입면계획

- 세련되고 지적인 감각이 있는 화강석 과 커튼월의 절묘한 조화로 친근감과 안정감의 이미지 부각
- MASS의 분절을 통한 입면의 다양성 확보
- 장래변화에 때응 및 발전적인 미래지 향적인 입면계획(진취적 · 현대적)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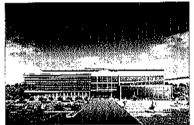
- •합리적인 모듈파 공간 계획으로 적합 한 단면계획
- •기능과 형태를 동시에 고려한 다양한 공간체험이 가능토록 계획
- 공간을 기능별로 집중화시켜 경제적인 층고 계획
- •에너지 절약계획에 의한 형태 및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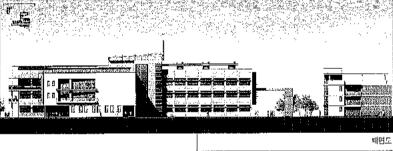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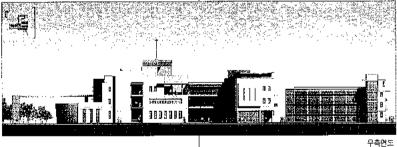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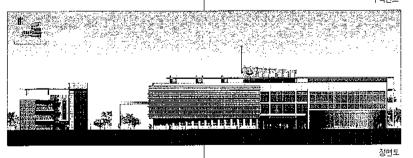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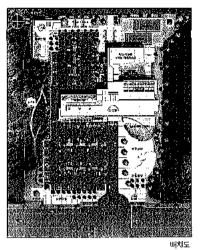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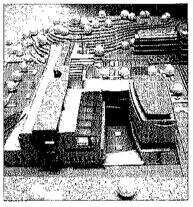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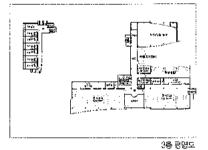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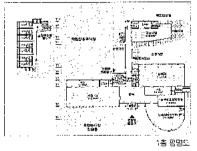








2춤 평명도



▶ 우수작 / (주)부림종합건축사 사무소(김 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5의 대지위치

지역지구 자연녹자지역

대지면적 14,169,00m²

건축면적 1.822.03m

연면적 $6.850.93m^2$

건폐율 12,86%

용적륜 40,50 %

청사동 : 지하 1층, 자상 5층 규모

숙소동 :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102대 (장애인 주차 4대 포함) 주차대수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컬러복충유리

계획의 목표 및 방향

-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 주변지역 여건 및 경관과 조화되는 에너 지 절약형 / 환경친화형 청사

• 장애인, 납세자 및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 한 청사 설계

배치계획

- ·남북을 잇는 도시도로를 이용하여 축의 설정
- 전면 30m 도로변에서 주진입축을 설정 하여 정면성을 부여함

동선계획

- 장애자, 노약자 및 VIP접근이 용이한 전 면광장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 편의 도모
- 접근성이 양호한 전면광장을 통한 보행 전입 및 철저한 보차분리

평면계획

- 코이의 위치는 원활한 동선과 서측일사 고려 하여 배치함
- 채광이 유리한 부분을 사무공간으로 배 치하고, 채광이 불리한 공간은 문서고로 확보하여 세무행정 효율을 극대화함.
- 오픈플랜개념을 도입하여 향후 실변화 및 확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가변성 (Flexibility)최대한 확보
- 각 총별 옥외 휴게공간 확보로 주변 자연 환경으로 열린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친화

적인 청사이미지 확보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식당, 휴게실)은 전망과 안락한 공간확보 및 식당의 환기 측면을 고려 최상층에 위치

입면계획

- 투명유리매스와 정재된 화강석재료의 대 비로 투명한 세정과 미래지향적인 이미 지구현
- •자연채광을 적극 유입하면서 투명성을 부여하는 유리애스는 외부로의 개방감을
- 향에 따른 창호계획으로 에너지절약형 청사 설계
- 전면도로에서의 인지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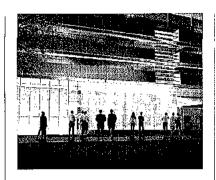
외부공간계획

- •전면 광장을 완전개방형으로 조성하여 이용객과 시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 여 열린 청사조성
- 주변 기존 구릉자의 자연환경을 청사안 으로 끌어들여 경관/생태복원의 틀을 마 련하고 마주하고 있는 보행 광장과 청사 전면광장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는 동시 에 기존 등산로와 보행동선을 유지하면 서 주변지역과 상호 대회하는 살아 숨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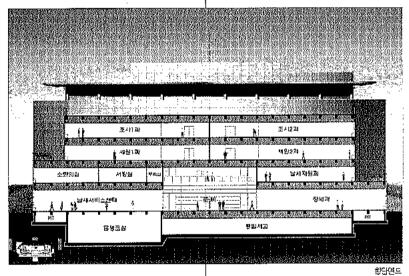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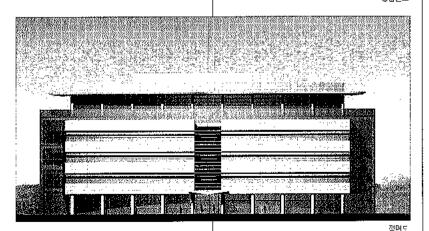
는공간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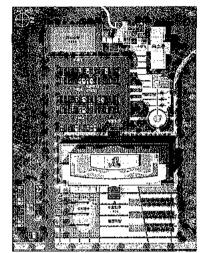
• 전면광장(public space) → 내부휴게광 장(semi–public space) →기숙시전면 광장(private space)으로 이어지는 공 간에서 단계별 위계를 정립하여 공간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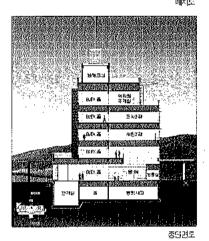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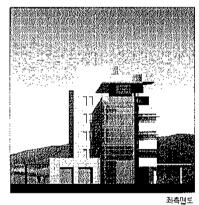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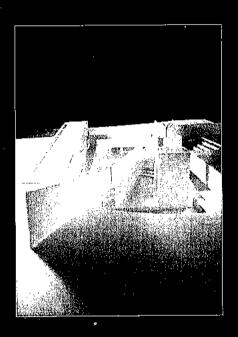


조태일 시인 기념관 및 시집박물관

Memorial Hall for Poet Cho Taeil and Museum for Collection of Poems

이윤하 / 건축시사무소 노둣돌 Designed by Lee Yun-Ha

නෙතා ගැබුපෙ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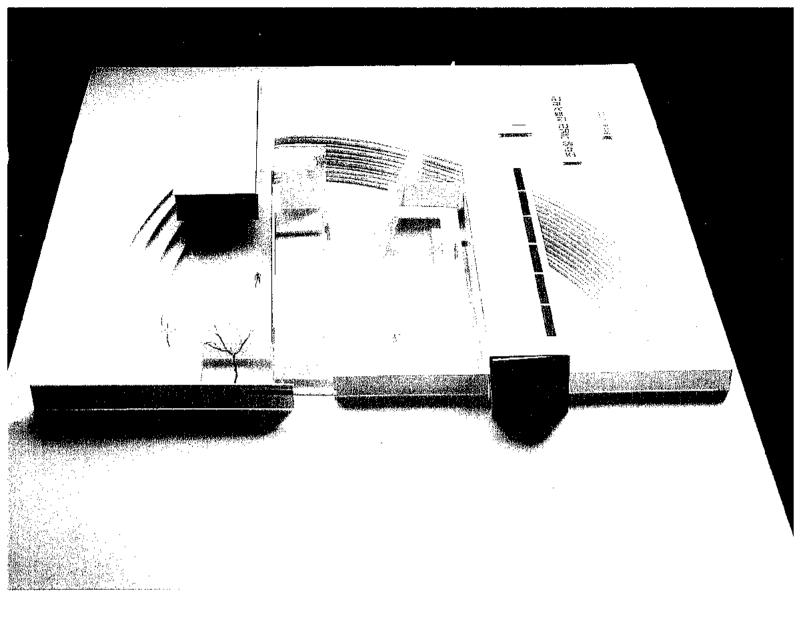


「나의 시는 내가 태어난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의 동리산 품안에 안겨 있는 태안사(泰安寺)에서 출발한다. 그곳에서 겪었던 체험들은 원초적 생명력을 형성하여 내 시의 골격은 이루고 있다. 멧돼지, 사슴, 노루, 늑대, 여우 등과 동무삼 아 지냈던 유년생활과 여순사건으로 온 집안이 쑥밭이 되어버렸던 국민학교 2학년때의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내 시의 끝 도 그 고향에서 멈추리라」던 〈국토(國土〉〉의 시인 고(故〉 조태일(證泰一)시인의 문학의 집이 그의 유년 시절이 곳곳에서 추억하는 태안사 품안에 지어지고 있다.

혼히, 시인 조태일을 이야기할 때 그의 세 번째 시집의 제목을 붙여서 '국토의 시인 조태일'이라 부른다. 지난 세기 70년대 참여시의 세계를 새로운 목소리로 달구었던 시집〈국토〉는 〈아침선박〉, 〈식칼론〉이후에 정치적 암흑기인 그 시대를 정면으로 관통하여 통일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민족문학 진영의 새로운 돌피구를 제시했던 이 시집의 연작시들은 문학청년시절의 나에게는 감동의 대상이었다.

발바닥이 다 닳아 세살이 돈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건이 다 다옵라 서 숨었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털을 서성임 수밖에 없는 일이다.



<mark>버려진 땀에 돌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mark>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맹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흔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탤 일이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하언 뻐까지를 통째로 보탬 일이다. - 시 국토서시 중에서 -

십여년 전 조태일시인을 처음 만난 건 마포에 있는 창작과 비평사 건물의 일층 호프집에서였다. 이시영사 인을 뵈러 갔다가 들른 작은 술집에 소설가 현기영선생과 마 주앉은 두 중견문인은 이무 말없이 술잔만 비우시고 계셨고 알 수 없는 깊이의 침묵과 고독이 진하게 전해왔다. 그 후에 도 여러번 뵙지만 한결같이 첫인상이 오래도록 날아서 그를 규정짓곤 했다.

시인은 1941년 전남 곡성 동리산 태안시에 서 나서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에에 시(아침 선박(船舶)》 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세기말 1999년 9월 세상 을 뜨기까지 대지의 강인한 생명력을 주제로 서슬퍼런 시대 의 폭력에 거침없이 항거하며 뜨거운 입김으로 민초들의 삶 을 형상화하며 한 시대를 복무하다 간암으로 세상을 마친 풍 운이였다.

그의 일련의 시가 시대를 맞서는 무기였다면 올곧은 선비 정신은 시인의 자유의지를 불태우는 용광로였 다. 시절이 많이 변하였고 암울한 국토를 노래하던 시인은 가 고 없지만 그는 솔바람 부는 산비얄에, 해그림자 드리운 섬진 강에, 메마른 기침을 토해내는 마포 선술집에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조국의 산하를 노래하고 있으리라.

이제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돌려 줄것인가. 아직도 그의 시적 혁명은 완성되지 못하였고, 그의 발언은 끝 간데 없는 파장으로 헐벗은 조국의 구석구석을 울리고 있지 만 그의 시가 세상에 나서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자리 한 켠 마 련하고자 지인들과 유족이 나서 기념관을 짓고자 한 것이다.

이 대지는 태안사 경내의 나들목에 위치한 방 문객을 위한 대형주치장 부지이다. 이 대지는 고인의 시적 성 과를 기리기 위해 태안사에서 기증하였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곡성군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보기도문 예이다. 산자락을 깍아내려 평지를 조성했던 이 주차장은 매표소에서 계곡을 따라 굽돌아 오르다 위치해 있고, 주변은 오래된 숲이 휘둘러 있어서 외부에서 오르다 보면 쉬이 드러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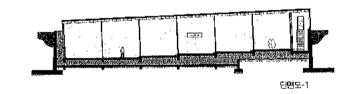
주차장 출입구를 정면으로 한 대지 동쪽이 태 안사와 마주하고 있어서 정면으로 설정하여 건축물을 배치 하기로 하였고, 좀체 드러냄을 좋아하지 않는 시인의 성품을 닮은 품너르고 나즈막한 집이 되길 기대하였다. 초기에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옥과 절집의 재래적 형태를 선호 하는 일반적 시각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했고, 건축주인 군청 에서 애초 책정된 예산에 따른 크기와 건축물 형태, 재료 등 의 선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태일 시인을 지 극히 배려하는 군수님과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에둘러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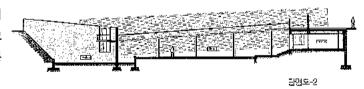
이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개념은 시인의 시세 계에 의지하여 건축적으로 형상화 되었다. 조태일 시인의 시 적 특징은 〈식칼론〉, 〈국토〉 등에서 보여준 시대의 질곡을 질 타하는 특유의 거침없는 목소리와 (가거도)등에서 보여준 원 시적 삶에 기초한 역동적 움직임에서 오는 삶의 순결성과 건 강성 (나의 처녀막) 연작 등에서 보여준 우리로서의 민중적 연대감 획득,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혼자타오르고 있었네) 등에서 보여지는 모성적 자연에 대한 안감 등에서 나타나는 시세계의 압축된 언어들을 어떻게 건축화 할 것인가 하는 문 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걸러진 '조국 땅덩이라는 구체 적 대상에 단단히 뿌리박은 건축적 서정성 을 모티브로 하여 대지의 형국을 재구성하고 건축개념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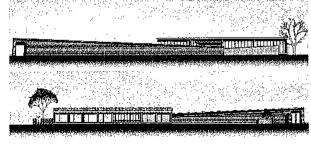
이 계획은 동선의 호름과 내용에 따라 기념 관동, 카페테리아, 시집박물관 및 창작실 동으로 나뉘고 그 사이에 썬큰(sunken)된 마당이 배치된다. 크게는 기념관동 과 시집박물관동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운데 서있는 가벽 이 두공간을 분절하고 또한 매개하면서, 경사로를 통해 일차 동선을 유도하면서 한 눈에 두 영역을 넘나드는(cross over) 역할을 한다. 경사로에 따라 유도된 동선은 미당공간에 이르 게 하고 그 지점을 시발로 하여 기념관으로 들어선다. 길게 드러누워 걸터앉은 경시진 기념관 덩어리는 하부의 수공간을 통과하고 내부는 점층적 수평 켜(Layer)를 변화시켜 수평.수 직적 진행을 동시에 유발하면서 전시시설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기념관동의 덩어리는 조국의 국토에서 상승하는 역 동성의 표출이고, 대지의 가슴에 뿌리박은 시인의 시적 기상 이 표현된 것이다. 전시장을 지나고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로 연속성을 이끌고, 전면공간은 행사를 위한 무대이자 다음공 간으로 전이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카페테리아는 지 하공간의 환기,통풍을 위해 이중의 켜속에 유리박스로 구성 되어 있고 구조벽체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차 공간인 시집박물판 및 창작실동은 수평 적 창작공간과 수직적 박물관 공간이 조합되어 있으며, 전면 부의 들린볼륨과 후반부의 정착된 공간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갖고 있으며, 기념관동의 폐쇄공간에 대비되어 빛으로 충만 한 열린 공간을 연출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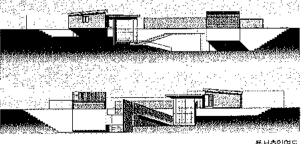
전체 건축물의 개개의 독자적 특성들이 어우 러져 미당과 기벽을 통해서 영역이 통합, 분절되면서 시인의 건강한 연대의식과 강인한 개인적 시적 성과를 동시에 보여











용서측입면도



줄 수 있도록 형상 화 하였다. 지하로 내려앉은 마당에 서 시 낭송을 하면 그의 음성이 공간 에 가득 고여 대지 를 울려 주길 기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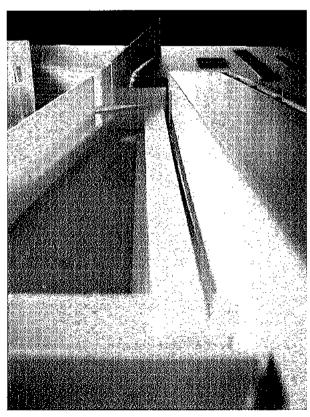
可居應 건종례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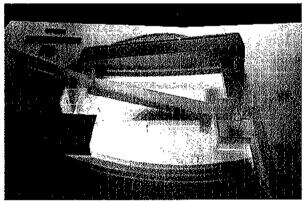
형태는 최소한의 건축적 기능만 할 수 있게 조형되어 군더기 없는 시인의 심성을 닮길 바랬다. 기능하면 서 작동되는 건축적 욕망은 건축너머에 존재해 주길 바랬다. 점육면체의 무심하게 걸터있는 기념관 덩어리 밑에 연못이 있어 수공간에 자기모습을 비추어 반성을 통한 자기확인과 동시에 시대적 억압을 뚫고 나오는 민중성의 형상화이고, 품 너른 국토의 내면이 품고 있는 땅속이듯 땅위인 마당공간은 땅덩어리가 우리네 삶의 모태라는 시인의 시적 주제를 온유 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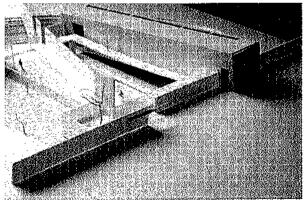
재료는 원시성과 재료적 물성이 드러나는 목 재를 주재료로 채용하고 유리와 콘크리트를 필요에 따라 사 용하였다. 목구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의 합성인 기념관동은 집 성재(Glulam)을 이용한 목구조이고, 창작실동은 경골목구조 (일명, 2×4 시스템)로 구축된 건식 공법이다. 카페테리아동 은 실내와 온도가 비교적 변화가 적은 지하층에 배치하여 냉. 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미당공간과 이 어져 이벤트 마당으로 활용하면서 수공간과 연속되어 안정된 습도 조절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공사 공정이며 비교 적 난해한 컨셉과 다층의 수평, 수직적 켜를 가지고 있어서 공사의 난이도도 높은 편이라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 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곡성군과 건설사 모두가 관심 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태일 시인의 집으로 손색 이 없이 건축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요즘은 건축예술에 이웃 예술장로들과 접속 하여 넘나뜨는 행위(소위,cross over)가 많아짐으로 인해 건 축창작에 새로운 형식실험이 늘어났으며, 건축예술에 주제가 폭 넓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웃 예술 분야와 교류함으로써 타 장르의 형식을 빌어와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일진대, 시 세계와의 접속과정에는 시적 운율을 빌어 형태적 표현을 다









태언사등파각 강영균 作

양화하거나 시적 상상력을 물리적인 건축물에 끌어들여 내용을 은유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일 것이다.

러나 시적 형식의 틀과 시적 상상력 의 차용에 앞서서 그 시인의 시세계 가 투영되고 형상 화 되어야 한다. 시 인의 기념관은 무

7

엇을 기념하는가 하는 문제에 <mark>앞서 이 땅에 시인으로서 그</mark> 시 대를 어떻게 고민하였는가 하는 시대성과 무엇을 노래하였는 가의 시적 풍토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기 념관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역사적 전 망을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데, 상암동에 일본 장교 다카키 마시오 였던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데 다카키 마사오는 없고 새마을 대통령만 살아 있다면, 서정주 시인 기념관에 친일 시인 서정 주는 없고 민족시인 서정주가 들어앉아 있다면 그 기념관은 이미 기념관이 아닌 것이다. 시대성과 풍토성, 그 위에서 보 여준 역사적 전망없이 기념관을 지어낸다면 그것은 왜곡을 넘어 개인적 역사부정이며, 전망부재의 시대로 몰고 가는 파 쇼적 정치쇼일 따름이다. 건축가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사회 적 역할 속에서 창작 행위를 하여 건축적 성과물로서 발언을 하는 프로페션이다.

이 작은 기념관이 남도의 끝자락에서 낮은 목 소리로 역사를 증거하고 시로 세상을 울릴 수 있기를 진심으 로 기원한다. 그리하여 조태일 시인이 세상을 뜨고도 온전히 살아 있는 작은 사상의 거처이길 두 손 모아 고대한다.

또한 시집박물관이 조태일 시인과 함께 동시 대를 아파하며 큰 깨우침으로 우리 곁에 머물다 스러져 비산 비야 떠도는 많은 민족시인들의 안식처가 되길 바라면서 집 이 커가는 모습이 우리의 헐벗은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라 여기며 여기 이곳 태안사 품속에서 조태일 시인, 크낙한 선생 님의 되살이옴을 느낀다. 圖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추는 그 곳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 시 '출씨' 중에서 -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799. 산 18-24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4,680m²

558.83n² 연면적

419,49m² 건축면적 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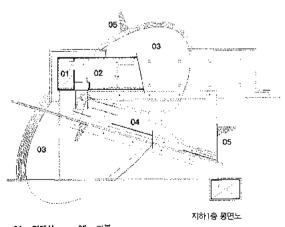
건 폐 율 용 적 률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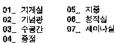
모 지상2층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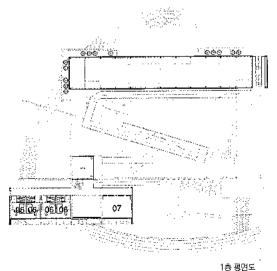
철근 몬크리트조, 목구조 및 일부 철골조 구 조

계획설계 이일우

정은경,권민정,박인 실시설계







중심에 접근하기

Approaching the Center

이필훈 / 태두건축사사무소 by Lee Phil-Hoon

건축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산 지 20년이 넘었다.

초등학교 시절 농담처럼 떠들던, 정답 없는 많은 질문들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연결된 본질적 질문들 인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질문들에 답을 얻기 위해 애썼고, 제일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일에 정진함으로써 그 답에 접근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건축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 답을 찾는 노력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변질되고, 그 호기심은 건축 외에 여러 분야를 공부하 게 만들고, 결국은 종교에 대한 공부에까지 아르게 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넓이 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건축으로 돌아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배움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으며, 많은 것들은 배움 외에 다른 방 법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배움으로 얻는 것들은 외부적인 것들, 대상적인 것들이다. 과학과 종교의 차이 - 과학은 주관적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외부에 남아 있으면서 지켜보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를 향하여 대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다. 종교는 주관적으로 접근한다. 존재 깊숙이 들어갈 때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혹은 자연으로부터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건축을 잘하기 위해 건축역사를 배우고, 건축이론을 배우며, 연관된 학문들을 끊임없이 공부한 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건물을 설계한다.

과학적인 접근이다. 건축 설계는 늘 이런 공부들의 부산물로 이해된다. 그래서 설계된 건물엔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의 잔치가 뒤따른다.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건물일수록 더욱 복잡한 이야기와 현학적 참고자료들이 나열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각종 서적에서 끝 어 모은 지적 파편의 자욱한 먼지들과 어수선함이 느껴지 고, 그 이야기들이 설계된 집과는 별 관계가 없음을 깨닫는 데는 특별한 지적 훈련 없이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 는다.

혹시 건축을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과학적 접근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와 명상은 관찰하거나 배움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알 수 있다. 사랑 역시 작 접 해보는 것 외에는 그 감정의 변화와 깊이를 이해할 방법 이 없다.

이제 나이가 들어 어느덧 건축을 가르치게 되어 학생들에게 묻는다.

'건축은 몸에 가까운가, 머리에 가까운가?' '짓는 일이 먼저 시작되었을까, 건축이론을 세우는 일이 먼저 시작되었을까?

> 과학 혹은 예술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삶이다. 건축은 이런 삶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데 많은 건축가는 삶을 외면하고 이론 과 예술에 매달린다.

유명한 건축가일수록 관념 속에 살고, 논라 속에서 살며, 언어로 포장된 삶 속에서 살기 쉽다. 진짜 장 미는 잊어버리고 오직 '장미'라는 단어만을 알고 있고, 진 짜 '삶'을 잊어버리고 오직 '삶' 이라는 단어만을 되 되어가 쉽다. 그러나 머리는 단편적이다. 머리는 삶으로부터 우리 를 단절시킨다. 물론 지적인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존재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지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벽을 만들어서는 곤란하 다. 삶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알 수 있다. 고정관념으로는 삶 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공부를 통해 건축관을 세운다. 그리고 그 건축관으로 설계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건축관은 개인의 고정 관념이다. 고 정 관념은 일종의 편견이다.

편경은 삶을 자기 식으로 왜곡시킨다. 그 왜 곡은 늘 강요. 그리고 역지와 함께 한다.

건축가는 건축을 통해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건축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그러는 동안 건축은 그런 건축가의 자의식 으로 희생되며, 미술작품과 같은 전서품으로 전략한다. 그 러나 실은 그 자의식조차 여기저기서 빌어 온 연관 없는 지 식들의 변종이기 쉽다.

건축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에 자신. 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엔 너무 중요하고 크다.

많은 건축가는 건축이 대단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 건축의 형이하학적 측면에 열등감을 느껴 끊임없이 현학적이 되기 위해 애쓰 며, 이미 사회에서 학문적으로 평가받는 이론들과 그 이론 을 만든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 건축과 관련 없는 많은 난해한 이야기들이 건축내부로 스며들어오고, 건축가 들은 자신들의 영역적 고유성을 상실한 채 건축을 다른 학 문의 해석학 또는 응용과학 정도로 추락시킨다. 이런 이론 들을 통해 서로 유사해지고, 그런 상호교잡의 현상 속에서 일반의 삶과 유리된 상징물들을 만들며, 이를 통해 안전함 과 우월감을 느낀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집들은 특이한 한 편으로 너무 비싸고, 덥고 추우며 일사량이 너무 많거나 혹. 은 너무 어둡고, 비가 새고 환기가 안 되며 끊임없는 보수판 리를 요구한다.

기념물은 남았는데 삶은 외면되었고, 관념 은 드러났는데 본질은 지워졌다.

유명한 건축가가 아닌,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의 중심에 다가서야 함을 깨닫는다. 거기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지식이 아닌 사람의 생활이 있으며. 과장된 복잡함이 아닌 진실한 단순함이 있고, 자아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삶을 담는 건축이 있다. 건축가에게는 고 양된 자신의 주장을 만들어가는 공부가 필요한 것보다는 오 히려 주변의 상황을 편견 없이 읽고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마음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것은 깨닫는 것과 행하 는 것이 같지 않음이다. 圖

건축계소식 / 99 해외잡지동향 / 104

세무안내 / 110

건축계소식 archi-net

2002 건축시지격시험 접수 마감

전국 5.935명 신청

오는 9월 29일(일) 실시 예정인 2002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신청자가 총 5.935명으로 집계됐다. 우리협회가 지 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올 해 건축사시험 응 서 신청자는 시험장별로 서울권이 4,241명, 부산권이 1,066명, 광주권이 628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총 신청자 5.322명보다 61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구 전임회장 철탑산업 훈장, 신문섭 전임이사 국무총리상 수상

'건설의 날'행사에서

지난 7월 22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의 날 행사에서 한국건축의 위상을 세계 적 수준으로 부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이의구(창건축) 전임회장이 철탑산업훈 징을 수상했으며, 신문섭(대명건축) 전 임이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106명의 건설관련유공지가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2002 올해의 작가 : 승효상 전

8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Photo by Choi Hang-Young

국립현대미술관(관장 吳光洙)은 2002년 도 올해의 작가로 중견작가 부문에 건축 가 승효상(본관), 원로작가 부문에 원로 서양화가 전혁림(분관)을 선정하였다. 『올해의 작가』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5년도부터 마련한 전시로 한국현대 미술의 흐름에 크게 기여하거나 꽐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향후 한국미술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하여 그 작품을 집중 전시함으로써 작가들에게는 창작 의지를, 관람객에게 는 새로운 미술에 대한 가능성과 그간의 성과를 서로 확인하는 기회와 장소를 제 공하고 있다.

『올햬의 작가』전은 학예연구직 전원으 로 구성된 "올해의 작가 선정위원회"에 서 학예적 전원이 개인별로 2인 이내의 작기를 추천하고 이를 종합하고 토론을 거듭하여 작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95년 전수천, 96년 윤정섭, 97년 황인 기, 98년 권영우, 99년 김호석, 2000년 노상균과 이영배, 2001년 전광영(본 관), 권옥연(분관)에 이어 2002년 〈올 해의 작가)로 원로작가 부문에 전 생애 를 고향인 통영을 기반을 작품활동을 해 온 서양화가 전혁림(全爀林, 1916生) 을, 그리고 중견중진작가부문에 빈자의 미학 을 토대로 활약해온 건축가 승효

상(承孝相, 1952生)을 선정하였다. 그간의 "올해의 작가』가 회화, 조각, 설 치 등에 국한되었던 반면, 2001년도에 는 이례적으로 중견, 중진부문의 작가. 로 건축가 승효상를 선정하여 그의 작 업을 통해 한국현대건축의 성과와 의미 를 집중 조명하다.

이는 한국사회의 건축에 대한 인식을 한 차원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개발경제가 주도한 지난 시대 에 그릇된 건축에 대한 인식은 "부동산 은 있어도 건축은 없고, 건물은 있어도 건축문화는 없는 불임의 시대'를 살았 던 우리에게 21세기 삶의 터전으로서 의 건축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새로운 세기에 우리의 삶 과 삶의 조건으로서의 기능하는 건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정립하는 메타문화로서의 건축의 역할을 반추하 고 새로운 인식을 촉발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 전시제목 : 「올해의 작가 2002 승효 상』전 "Artist of the year 2002 -Seung, H-Sanga
- ~ 주제 :「URBAN VOID』
- 전시기간: 2002, 8, 28(수) ~10, 27(일) (61일간)
-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 시설
- -- 주최 : 국립현대미술관

◇ 부대행사

- ... 강연
- 제목 : 나의 건축세계 빈자의 미학 에서 문화적 풍경까지
- 발표 : 승효상
- •일시 : 2002년 10월 25일 금요일 15시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강당
- 심포지욹
- •제목 : '새로운 시대 우리의 건축'
- •진행 : 면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일시 : 2002년 10월 25일 금요일 16시
- 장소: 현대미술관 강당 강당

• 주제발표 및 토론자 : 아라타 이소 자키(건축가/일본), 창융허(건축가 /중국).

알레한트로 자에라 폴로(건축가/스 페인), 정준모(현대미술관 학예연구 실장/한국)

- 작품설명회
- •일시 : 2002년 9월 7일 토요일 15시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제1전시실
- 설명자 : 담당 큐레이터(이추영)
- 대상자 : 일반 관람객
- 문의: 이로재 02-763-2010

부산국제설계경기 37개국 263여명 건축가 참가

세계적 높은 관심 불구 국내건축가 참여율 낮아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해운대 벡스코 일원에서 열릴 부산국제건축문 화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부산국제설 계경기(Design of Busan Tower Complex)에 세계 유수의 건축가들이 참가를 신청해 건축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 용두산공원에 있는 부산타 워 재개발을 주제로 40세 미만의 젊은 건축가를 참여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제 설계경기는 8월 7일 현재 37개국 263 여명의 전 세계 젊은 건축가들이 참가 를 신청하였다. 참가국 별로 보면 미국 팀이 59팀으로 기장 높은 참여율을 보 이고 있으며, 독일이 40팀, 프랑스가 26팀, 영국이 9팀, 이태리가 10팀, 네 덜란드가 9팀, 오스트리아가 11팀 등 구미의 건축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일본 의 건축가가 각각 6, 7팀이 참가를 신 청하였고,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 서 참가하고 있다. 그 외에 러시아와 이 스라엘, 스페인, 브라질, 폴란드 등에서 도 참가하고 있어 명실 공히 국제건축

기협회에서 관리하는 국제현상설계로 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부산국제설계경기 기술분과위원회(위 원장:부경대 김기환교수)에서는 새 천 년에 떠오르는 아시아의 항구도시 부산 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많은 건축가 들이 바라고 있다고 만족하면서도 한국 건축가들의 참석이 저조한데 대하여 아 쉬워하고 있다. 기술분과위원회는 이 국제설계경기가 국내에서 UIA의 관리 하에 개최된 아이디어현상설계로는 국 내최초라는 점과 상금이 당선작이 3만 불. 2등이 만 불. 3등이 5천불이고 장 려상 10점이 각 5백 불이라는 아이다 어 설계경기로는 국내 최고액이라는 <mark>점</mark> 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월드컵 이후 항상된 국가 이미지의 도움으로 외국건 축가들의 참가가 쇄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국내의 건축가들은 참가가 극히 저조하여 모처럼 열리는 국제적 건축잔 치에 외국인만이 참가하는 사태가 될까 우려되고 있다. 한국건축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국내의 야심있는 젊은 건축가 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번 현상설계를 기념하여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머리오 보타의 특별 강연회도 준비 중에 있다.

부산국제설계경기는 등록마감이 일시 가 없고 제출마감 일시만 있다. 그러나 제출마감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만하며. 은행입금완료와 확인작업, 등록번호부 여, 프로그램 및 자료도서 발송 등의 시 가이 1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8 월 중에는 등록이 되어야 원활한 설계 경기에 참여가 가능하다. 질의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기존의 질의 응답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문의: 051-620-1402 (사무국 김은정), http://www.biacf.org, 은행 등록 후 에는 이메일 busantc@yahoo. com로 연락을 주어야 자료 발송이 된다.

2002 해양도시 부산의 거리 시진공모전

9월 13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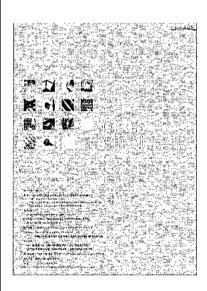
2002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 회에서는 '2002 해양도시 부산의 거 리 사진공모전 을 개최한다.

- -작품내용 : 부산의 거리(건물, 일상, 가로경관 등)풍경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 출 품 수 : 1인 4점 이내(흑백 2점. 컬러 2점 이내)
- -작품규격 : 흑백, 컬러 11" x 14" (규격의 심사 제외, 장정불요,제출 시 샘플 $(5'' \times 7'')$ 동봉)
- 접수마감 : 2002년 9월 13일(금) 17:00까지(당일 소연유효)
- 접 수 처 : 608-739 부산 남구 용당 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건축학부 (☎ 051-620-1400, FAX. 051-622-8340)
- 출풍신청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 직위원희 홈페이지(www.biacf. org)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 성 제출(참기비 없음)
- -작품전시 : 2002년 10월10일(목)~ 15일(화) BEXCO 전시장
- -시 상 식 : 2002년 전시기간 중 BEXCO 전시장(개별통지)

- -시상내역:
- 금상 1점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1점 상패 및 상금 50만원
- 동상 2점 상패
- 입선 100점 내외 상장
- 유의사항 :
- •작품이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우 편변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 입상 및 입선작품의 판권은 당 위원 회에 3년간 귀속함
- 낙선작품의 반출은 전시장에서만 실시
- 각종 공모전 및 촬영대회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 우 상권취소

2002년 『시민에 의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9월 27일 마감



2002년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추진위 원회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바 라본 도시환경과 특색 있는 부산의 건 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조형물 포함)에 대한 조형제안을 공모 한다. 이번 공모전은 작품을 선별 전시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참가자격: 제한 없음

- 공모내용

• 주제 : 부산의 지역특성과 경과이미 지를 살릴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조 형물에 대한 제안 (각자의 Theme 및 성격을 작품에

<u> 기략히 표기 할 것)</u> • 예시 : 해양 도시 부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건축물 계획, 공원/해변가/도시가로변에 상징성 (Landmark)을 살릴 수 있는 도시조 형물 계획, 기타, 아파트 단지 등과 같 은 집합 건축물의 경관색채 계획 등

-작성요령 :

- 도면(로터링 잉크 펜 또는 컴퓨터 작 업 가능), 모형의 양식으로 제출
- •도면 size: A1 크기(841mm×594 mm)의 5mm 폼보오드 패널에 부착(1 매 또는 2매 이내)
- 모형 size : 900mm(W)×600mm(D) ×임의(H) 이내
- 응모방법 : 방문접수(1인 또는 2인 1 작품, 응모원서는 작품제출 당일 날 작성하여 제출)
- -작품제출 : 2002년 9월 27일(금). 오전10시~오후5시(마감시간 엄수) (우608-740)부산광역시 남구 용당 동 505번지

동명대학 건축과 멀티그래픽실(정교 관 3층)

- 시상안내 :

• 대상 : 1명(상장 및 부상)

• 금상 : 3명(상장 및 부상)

• 운상 : 5명(상장 및 부상)

• 동상: 7명(상장 및 부상)

• 엽선 : 다수(상장 및 부상)

※ 출품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작품시상 및 전시 :

• 당선작발표 : 2002년 10월 1일(화)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홈페이지 (http://www.biacf.org)에서 확인

•작품시상: 2002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

 작품전시 : 2002년 10월 10일(목) ~10월 15일(화)

• 전시장소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BEXCO)

- 문의: 동명대학 건축과 (20~3500)



서울건축학교 2002 기울정기워크숍

2002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 -세계속으로

서울건축학교에서는 국내와 건축과 및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졸업생 및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예비건축가를 대상으로 연 2회의 정기워크숍과 2회의 계절워크 숍을 중심으로 우리시대에 필요한 답론 을 제시하며, 세미나와 강좌 및 연구자 료의 전시, 출판, 이벤트를 통하여 새로 운 도시건축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스튜디오

코디네이터에 의해 개설된 주제에 의해 sa 건축가 전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 스튜디오는 3-5명의 참가자로 구성되 며 워크숍 결과물은 년 2회 정기간행물 로 출간

참가자는 스튜디오 외에 강좌 및 세미 나, 기행등 기간중 시행하는 프로그램

에 참가

♦ 참가대상

국내와 건축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졸 업생, 설계시무소 경력자 참가신청/인터넷 홈페이지

(www.saschool.or.kr)

- ♦ 점수/8월 19일~9월 23일
- ♦ 일정/ 2002년 10월 7일~11월 30 일 (8주)
- ♦ 프로그램

설계스튜디오, 강좌, 건축가세미나 등

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 센터 교육생모집

- -제6회 목조건축 전문지도자과정 (1년): 정원 30명, 9월 10일 입학, 선착순 마감
- 제4회 가구디자인 전문과정(1년): 정 원 16명, 9월 11일 입학
- 제1기 나무가구교실(12주): 정원 16 명, 9월 18일 개강
- -제16기 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12 주): 정원 30여명, 9월 28일 개강, 선 착순 마감
- 문의: 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센터 (02-2006-6212

www.wooddesian.or.kr)

서상우교수 정년퇴임기념 고제한술대회

'도시촯성화률 위한 문화전략과 뮤지엄 건축' 주제로

국민대학교 서상우교수 정년퇴임기념 국제학술대회가 '도시활성화를 위한 문화전략과 뮤지엄건축'을 주제로 오 는 9월 27일(금) 오후 1시부터 6시 30 분까지 경희군내 서울역시박물관 강당 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국민 문화 고양, 도시활성화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뮤지엄 콤플렉스(Museum Complex)가 절실해진 현재 세계적 경 향으로 볼 때 서울의 경우도 그 가능성 <mark>을 모색하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mark> 두고 있다. 종합토론에는 고주석, 김명 석, 김 원, 박길룡, 이범재 씨가 참여하 며, 주제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서상우(국민대 건축대학장, 한국박물 관건축학회장)/도시의 문화풍경으로 서의 뮤지엄 콤플렉스
- Barry Lord(Lord Inc.부사장)/관광 자원화를 위한 문회전략과 뮤지엄
- 김문환(서울대 미학과 교수, 전 한국 문화정책개발원장)/도시미학의 필요 성과 가능성
- Olivier Dugas(Ecole d' Architecture de Paris la Defence교수)/도시 활성 화룔 위한 문화전략
- -김인수(환경조형그룹 그린바우 대 표)/도시의 재생과 Schaumainkai 뮤지얼거리 조성
- Junzo Munemoto(교토대 교수)/새 로운 뮤지엄의 도전과 영향-일본의 활성화 경우
- ~ 문의: 02-394-1411

제10회 건축사진이카데미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청암연구소에서는 제10회 건축사진강 좌를 2002년 9월11일부터 11월27일 까지 12주간 개최한다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위한 이 강좌는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 위주의 프로그 램으로 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고건축촬영, 인테리어촬영, 흑백작업에 이르기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소수 의 인원으로 직접 강의하며 함께 건축 답사를 하며 실습지도할 예정이다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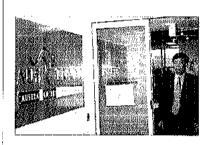
- -기간: 2002년 9월 11일-11월 27일
-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7시-8시30분
- -장소: 청암건축사진연구소 (서울 광 진구 구의동206-2, 청암연구소1층)
- 참가인원: 12명 선착순
- 참가비용: 30만원(학생은 20만원-추
- 신청방법: 온라인 입금후 이름과 연 락처를 이메일로 보내면 됨 외환은행 024-18-29934-0 임정의
- 이메일: imfoto@hanmail.net - 접수마감: 2002년 8월30일까지
- 문의: 02-444-7088

(내용)

- 1-건축을 보는 눈
- 2- 건축사진의 작업과정
- 3- 빛과 공간의 이해
- 4- 건축사진의 표현과 테크닉
- 5- 건축물 촬영실습 (토요일 오후3시-8시)
- 6- 각종건축물의 촬영방법
- 7-각종 모형촬영 이론과 실습
- 8- 건축답사 촬영실기 (1박2일)
- 9- 흑백사진의 표현방법
- 10-흑백사진 테크닉 실습-1
- **11-횩백사진 테크닉 실습-2**.
- 12-포트폴리오 제작과 프레젠테이션

※ 현대건축촬영과 건축답사 장소는 추 후결정

KIBEX 2002 국제건축박람회. 호주국기관 참가



오는 12월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 는 KIBEX2002 국제건축박람회에 호 주가 국가관을 개설하여 참가할 예정이 다. 지난 7월 KIBEX시무국에서는 호 주무역대표부와 공동으로 호주의 보리 즈번, 시드니, 멤버른, 퍼스 등을 방문 하여 주정부 건축관련 담당자와 30여 건축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 졌다. 설명회는 한국건설시장 동향 및 KIBEX2002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명회 기간동안 주정부와 METZ, BIG Country buildings, SAN-Q Systems, AUSTRAL 등의 관련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들 중 10여개 이 상의 업체가 호주무역대표부와의 협의 를 거쳐 호주국기관을 개설하여 참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KIBEX2002를 통하여 한국시장으로 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문의: 02-708-4080. 이메일: info@kibex.com, 홈페이지: www.kibex.com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강복구검조시회(903-2030 - 강서구건조시회(461-6909 · 관악구간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전축사회/864-5828 · 공천우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시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용작구건축사회/815-3028 - 이포구거축사회(393-6781) 서대용구거축사회 /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등구건축사 회/202-5865 · 성복구건축사회/922-5117 · 승화구건축사 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 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문평구건축 사회/388-1486 · 종료꾸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 호/231-5748 · 중링구경축사회/497-3900

- 부산광명시24층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사건·출시회/(06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먹시건축시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화/(052)296-5661

■ 경기도거축시회/(031)247-6129~30 고양자여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 (02)684-5945 · 우리지덕진축사회/(031)563-2337 · 부 . 천지역권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 /(3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 8 · 사용지역건축사회/(031)318-67(3 · 안산건축사회 /(031)480-9130 · 연양시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처계역건축사회 -/(031)635-0545 · 형택지역견축사회(031:657-6149 · 오· 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연지력건축사회 /(331)336-0140 - 왕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연건축사화(033)652-3126 - 산창지연건축사회 7(033)531-8708・金参利2974季利型/7(33)833-8080・91 웠지역건축시회/(033)374-2659 · 완주지역건축사회 /(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93)25/~2442

■ 충청북도건육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목천지역건축사회: /(043)732-6752 - 제천지역건축시회/(043)643-3558 -

중주지역검옥세회/3M3)951-15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검축사회/(041) 854-3355 (보령자역건축사회) /(041)834-3367 - 백제자역건축사회/(041)835-2217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자역건축사회 /(041)551-4551 - 총설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별 전라복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신자역건축사회/(063,452~3815·남원자역건축사회 /(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화(083)3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 /(08))743-2457 - 여수지역전축사회/(081)652-7023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 /(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덕건축사회/(054)432-6388 : 문경지덕 건축사회/(054)553-1412 - 삼주지역건축사회/(054)536-8975 - 인통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 ·사회/(054)634:5560 : 영환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꼭지역건축시회/(054)974-7025 - 프한지역건축 ALEV: 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10 : 거참지역건축사회 /(055)943-6090 - 강해시건축사회/(055)334-6844 - 미 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말양지역건축시회 7(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 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 /(955)741-6493 - 전해시간축시회/(956)544-7744 - 등 영지덕건축사학/(055)641-4530 : 하塔지덕건축사회 //0591883-5652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치역건축사화(084)733-5501 a+u

2002년 7월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u 신건축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에서 는 미국 아리 조나주의 사 막지대에서 사막의 기후 와 풍토에 적 몽하여 그곳 특유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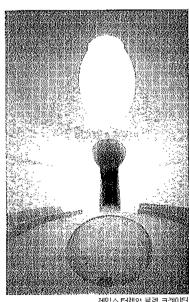
문화를 창조해나기고 있는 아리조나주의 건축기들을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다. 거 주하는 사람들이 적어 본래 어곳의 비나 큘러한 건축이라는 것조차가 없었던 땅 에 타지에서 이주해온 건축가들이 마찬 가지로 이주해온 이 지역의 현 거주자들 을 위해 만들어 가는 아리조니주의 건축 문화를 작가별로 소개하고 있다.

🛭 특집: 이리조나주의 빛과 사막의 건축 아리조니주의 면적은 일본과 거의 같다. 그러나 그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그 절 반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도 시 피닉스에 거주하고 있다. 튜손 (Tucson)이나 플래그스탭(Flagstaff)같 은 곳은 작은 도시로 주의 대부분은 기끔 씩 놀라울 만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광 대한 사막이다. 여름에는 45도에 이르는 높은 기온을 공조시설에 의해 제어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언디언과 몇몇 개척 지들을 제외하면 아리조나에 시는 사람 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들 의 대부분은 미국의 북동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이곳에서 버나큘러라고 불 리울 만한 건축은 결코 이루어진 적이 없 다. 프랭크로이드 라이트는 1928년에 실 현되지 않은 계획인인 '산 마르코 데저트 리조트'를 설계하였고, 1930년이래 탈 리아신 웨스트 와 그 주변의 10동 정도 의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아리조나를 방 문했다. 그 때 그는 아리조나에서 건축을

설계하기 위하여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 은 백자의 캔버스를 손에 돌고 있었다.

▶ 제임스 터렐의 로뎅 크레이터(1973-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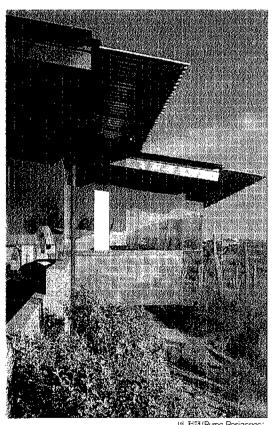
야심에 찬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남부 캘 리포니아로 몰려든 것처럼 경제적인 호 황에 이끌려 이땅에찬 사람들이 과거 30. 년간 아리조나로 몰려들었으며, 자유롭 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재 능있는 건축가들도 이곳으로 모여들었 다. 눈부신 햇빛과 투박한 지형은 건축가 나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 했으며, 과거 20년간 로뎅 크레이터 (Roden Crater)를 세계 최대의 빛의 작 품으로 만든 예술가 제임스 터렐도 그 중 의 한 사람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경의는 영감의 원 천이었으며, 이것은 과도하게 건설이 진 행되어 교외화가 이루어진 남캘리포니아 와는 대조적으로 아리조나에는 지금도 소중하게 다룰만한 랜드스케이프가 많아. 남아있다는 감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 다. 그의 로뎅 크레이터 인스톨레이션은 아리조니주의 사회산 분화구인 로뎅 크 레이터 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동해 가 는 빛을 지각시키는 특이한 장치이다. 몇 개의 방과 통로, 터널, 그리고 분화구의 내부와 외주부에서 하늘로 열린 개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임식 터렐와 모뎀 크레이터

▶ 아리조나주 건축의 중심적 존재 월 부르더

다른 많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개 발은 피닉스에서도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었지만 이 도시에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과 중심에 노출된 거대한 암반, 인상 적인 일몰의 풍경, 그리고 자생의 선인장 이나 팔로 벨르데, 아이언우드 나무와 같 은 자연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해온 건축가들 중에는 국제적인 명성 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설계 의뢰를 받는 것은 좀처럼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 의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그들의 생 활을 위해 이 지방의 일들을 따내려고 노 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들이 이루 어낸 예술적인 성과는 주목받을 만하다. 새로운 아리조나 건축의 중심적 존재인 월 부르더(Will Bruder)는 라이트의 출신 지이기도 한 위스콘신주로부터 1967년 에 피닉스로 이주해왔다. 브루터는 사막 이 거칠고도 깨지기 쉬운 것임을 이해하 고 대지를 포용하는 형태, 내구성 있는 소



면 저역(Byrne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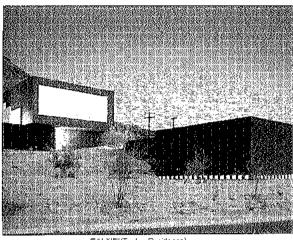
재, 그리고 자연의 빛을 따내어 투과시키. 는 전략들을 세워 시막에 적합한 어휘들 을 개척해 왔다. 그의 주택, 도서관, 그리 고 각종의 건물들은 시와 기능주의를 한 데 엮어 놓고 있으며, 피닉스 중앙도서 과(1993-97)^{*}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1990년대를 대표 하는 미국의 기념비적인 공공건물중의 하나이지만 이로 인해 그가 아리조나지 방의 설계의뢰를 많이 받아내지는 못하 였다. 오히려 그는 아리조나를 제외한 미 국 전역에서 작품을 의뢰받고 있다. '번 저택(Byrne Residence) 은 피닉스 북 쪽 끝의 본래 목장이었던 터에 자립잡고 있다. 이 주택은 동굴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거칠은 랜드스케이프에 맞춘 거 칠은 형상의 셸터이다.

▶ 윈델 바넷과 릭 조이

윈델 비넷(Windell Burnett)은 추리신지 인 테네시주에서 피닉스로 이주해 탈리 이신 웨스트에서 건축을 배운 후 부르다. 의 시무소에 합류하여 '피닉스 중앙도서 관 의 책임자를 맡은 바 있다. 그는 피닉 스 중앙지구에 노출된 암석에 맞추어 자 택을 설계하였다. 이 주택은 열과 일사를 치단하는 형태를 충족시키면서 콘크리 트 블록에 의한 정식적이지 않은 미니멀 리스트의 구조체이다. 이러한 미니멀리 스트적인 태도는 데이빗 밀러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에서도 나타나는데, 랜 드스케이프의 강조와 자연의 빛을 강조 하는 건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축표 현이 효과적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 는 '세 개의 선율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한 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스컬 저택 (Schall Residence) 에서는 풍부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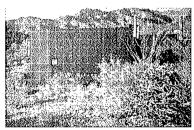
실컬 제택(Schall Residence



토키 저택(Tooker Residence)

현성을 가지면서 여러겹의 레이어를 만 들어내었다. 그동안 건설되지 못하고 있 었던 '토커 저택(Tocker Residence)' 에 서는 스컬저택에서처럼 리빙 에어리어 를 마련하는 동시에 외부와 구획되는 공 간으로서 벽으로 둘러싸인 수영장을 첨 가하여 평범한 교외의 부지에 강한 이미 지를 만들어내었다.

미국 북동부에서 온 릭 조이(Rick Joy) 도 투손에 자신의 오피스를 내기 전에는 부르더 밑에서 피닉스 중앙도서관 프로 젝트에 참여했었다. 튜손은 멕시코의 영 향을 강하게 보이는 곳으로 사물로선인 장이 점점이 서있는 경관이 장관이 펼쳐 지는 소노런 시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조이는 건축가로 전환하기 전에 주택건 설의 목수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섬세한 감각을 갖고 사용된 천연의 재료 가 그의 건축의 특징을 이룬다. 그는 높 은 벽을 갖는 자신의 스튜디오와 몇 채의 주택에서는 다져진 흙을 사용하고 있으 며, 타일러저택과 곧 완공되는 까사 잭스 (Casa Jax)에서는 자연적으로 풍화된 철을 사용하였다.



신건축

2002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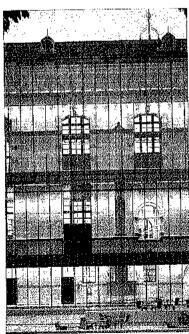
이번 호에의 작 품 소계에서는 안도 타다오의 책을 주제로 한 두 개의 프로젝 트가 포함되어 있다. 구국회도 서관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축한 「국제 어린이 도서관」 과 일본의 작가 '시바였다로, 기념관이다. 특집으로는 최근 일본의 공공사설 프로젝 트의 설계과정에 지주 등장하는 워크샵 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워크샵을 통해 외성된 프로젝트 예를 통해 워크샵의 의의 와 워크샵에서의 건축기의 역할에 재해 점 검해 보고 있다.

작품: 안도타다오의 책을 주제로한 2개의 최근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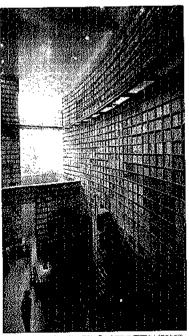
▶ 과거 기억의 계승과 현재 시점의 개 재 - 「국제 어린이 도서관」



[거 기<mark>억의 계승과 현재 시절의 개저 - "국제 어린</mark>이 도서관₎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일본의 명치시대 부터 약 100년의 시간을 넘게 서 있던 舊국회도서관의 개축으로 무엇보다도 그 오래됨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도 타다오는 구건물 의 바닥, 벽, 천장의 구조물 하나하나에 스며든 직인들의 손의 온기는 현대 건 축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으로 이 것을 어린이들이 기슴으로 느낄 수 있 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명치기에 만들어진 부분은 내진 보강 됨과 함께 되도록 구건물의 원형을 보 존할 수 있도록 증축부분이 설계되었 다. 100년전의 조적조의 건물과 증축 된 부분의 철과 유리의 건축물은 강렬 한 대비를 이루면서 과거의 재생을 통 해 미래를 꿈꾸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건축가는 말하고 있다.

▶ 작가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기념관」 시바료타로기념관은 시바 료타로라는 20세기 일본의 자랑할 만한 작가의 존 재 자체에서 촉발되었다. 구체적인 이 미지의 원천은 기념관에 인접해있는 자가자택의 서가의 광경이다. 거기서 는 시비가 원고집필을 위해 모았다고



하는 방대한 자료문헌이 들어서 있었 다. 이것은 작가가 생애를 통하여 간수 해온 책으로 둘러싸여진 공간이다. <u> 연도 타다오는 이 건축을 단순히 고</u> 이의 자료문헌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 관이 아닌 작가 시바료타로의 마음을 내관자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랬다. 시바료 타로가 생전에 생각하고 집필활동을 이어가 창조공간을 건축으로 표현하 는 것이 주제가 된 것이다. 당연히 기 념관의 중심공간은 높이 11미터에 이르는 서가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작가의 존재를 느끼게

■ 특집: 워크샵과 건축가의 역할

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건축의 설계과정에 있어서 '워크샵' 이라는 것이 자주 포함 된다고 한다(여기서 워크샵이란 건축 물의 사용자를 포함한 건물의 이해당 사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될 프로 젝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설 계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대유행' 중이라 고 표현하는 이도 있을 정도이다. 그런 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건축 설계과 정 속에서 워크샵같을 것을 하는 것일 까. 그리고 그곳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나아가 워크샵은 건축의 다 자인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인가,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 서도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번 특집에서는 워크샵에 있어서 건축 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 추어졌다. 먼저 워크샵의 경험이 있는 건축가 4인과 계획계 연구자 5명에게 평소 워크샵에 대해 느껴왔던 부분에 대 해 글로 서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리고 워크샵을 설계 프로세스에 포함시 켜 완성시킨 6개의 작품을 워크샵 리포 트를 첨부하여 소개하였다. 워크샵을 통 해 완성된 6개의 사례는 레이호쿠(芥

北)町民警、「ロレロノマーノ(南小國)町警 주택 야츠다(杉田)단지 재건축', '토모 찌문화교류센터', '센단이 연극공방', '클럽 웨스트', '그룹 홈 옹조라 후요우 병원증축'등으로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 한 시설들이다. 여기에 첨부된 6개의 워 크샵 리포트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거시설을 계 확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개진했으며, 설 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서술하 면서 각 워크샵의 성과와 성격에 대해서 평가하였다.(번역/강상훈)

The Architectural Review

2002년 5월

교육의 위기 속에서 건축 의 역할을 재 고해보고자 하는 취지의 본 호는 히말 라야 지역에 서 미국 캘리



포니아까지 다양한 지역의 독특한 학교 건축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

■ 교육과 건축

건축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시회에 대해. 배워가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 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개 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직면해 있는 일 련의 교육적 문제들은 정치나 교육 정책 율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지만 그 속에 서 건축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 다. 전자 정보 시대에는 기존의 교육 공 간과는 다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자 기술의 발달로 경제적 요인에 구 애받지 않는 보다 직접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가능해졌지만, 교육이 사회화 과정의 일환이란 점을 생각할 때 개인 컴퓨터 앞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도록 할 수는 없다.

집을 처음으로 떠나 학교에 온 유치원 생부터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 생까지, 이들의 사회 적응이 원활히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건축의 몫 이며, 교육 기관과 지역 사회의 연결 고 리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설계가 할 일 이다. 보다 많은 나라들이 채택해가고 있는 사립 교육 정책이 효율성만 강조 하는 일반 학교 건축을 유도하지만 양 과 질의 문제를 적절하게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키슈미르 Ladakh의 Druk White Lotus 화교



원슈미로 Ladekh의 Dork White Lotus 할만

Arup Architects & Engineers에서 만든 히말라이의 이 학교는 현대적인 교육 제 도와 지역의 불교 문화를 적절히 융합하 고자 한다. 86명을 수용하고 있는 두 개 의 교실동은 시찰 건축을 모델로 한 중정 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 있다. 외부와의 교류가 눈에 의해 연간 6개월까지 두절 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기능한 건물을 추구했으며, 남쪽을 항해 참을, 산 방향의 북쪽에는 석조벽을 두는 passive solar heating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 시설의 모 습을 답습하지 않고 지역 전통과 문화, 재 료를 존중하는 학교 건축의 좋은 예이다. 기타 교육 기관으로 ▶ Konrad Frev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Styria의 학교, ▶ Hodgetts & Fung의 미국 Pasadena 학생관, Cooper Grana Nicolini Arquitectos의 페루 La Molina 학교, ▶ CUBO Arkitekter의 덴마크 Fvn. Odense 대학, ▶ Patel Taylor Architects의 영국 Hitchin 음악관. ▶ Kister Scheithauer Gross의 독일 Halle-Wittenberg 식물학 연구관 등이 소개되어 있다.

르기타

▶ Architectural Review가 3월 중순 RIBA에서 열었던 심포지엄 '유럽 도시 ' 의 재활성화 소식, ▶ Gumuchdjian Associates의 영국 런던 West End 상 점 인테리어, ▶ 주택 작품으로 Manabu Chiba의 일본 도쿄 주택이 소 개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cord

2002년 5월

매년 수여되 는 AIA 상의 수상작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 호는 특히 Gold Medal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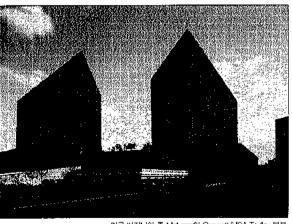


은 Tadao

Ando의 작품 세계를 자세하게 소개 하고 있다. 건물 타입별 연속 기획에 서는 스포츠 스타디움의 우수 사례 들을 다루었다.

■ 2002 AIA 명예상

건축, 인테리어, 도시 설계 부문으로 나 뉘는 본 상과 더불어 25주년 상, 올해 의 설계 사무소, Gold Medal 등으로 나뉘는 AIA상은 올해 다양한 지역, 규 모. 건물 타입의 작품들에 수여되었다. 9/11 테러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설계 및 건설 경기는 비교적 안정기를 지나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건. 축적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 총 460 개의 응모작 중 선정된 18개의 건축 작 품, 8개의 인테리어 설계, 4개의 도시 설계가 소개되어 있다. 25주년 상은 Josep Lluis Sert가 설계한 바르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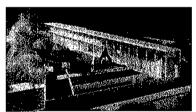


미국 버저니아 주 McLean의 Garmett/USA Today 본부

나의 Juan Miro 미술판에 돌아갔으 며, 설계 시무소 상은 다양한 종류의 건 축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Thompson, Ventulett, Stainback & Associates가 수상했다.

■ AIA Gold Medal 수상자 Tadao Ando

근대의 건축 어휘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독특한 건축 세계를 구축해온 Ando는 콘크리트, 유리, 목재 등 재료. 의 순수한 특성을 살림으로써 건축의 부가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근본적인 형 태에 접근한다. 1976년 스미요시 주택 으로 처음 명성을 얻은 후 1980년대의 교회 설계나 박물관 계획들을 통해 국 제적으로 알려진 그는 최근에도 ▶ 미. 국 Fort Worth의 현대미술관. ▶ 2007년 완공 예정인 프랑스 Seguin Fondation d'Art Contemporain Francois Pinault, 그리고 ▶ 미국 필 라델피아의 칼더 미술관 등 활발한 작 품 활동을 통해 인공미와 자연 세계가 어우러진 환경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칼터 미술관

■ 프리츠커 상 수상자 Glenn Murcutt

첫 회 수상자였던 Philip Johnson 이 래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타 건축가들에게 수여되어 오던 프 리츠커 상이 올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Glenn Murcutt에게 돌아갔다. 사무 실 직원 없이 혼자서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소수 주택 건축에만 전념해온 Murcutt은 실용주의와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그의 건축관을 엿볼 수 있는 짧은 인터뷰가 실려있다.

■ 근작

▶ 미국 버지니아 주 McLean의 Gannett/USA Todav 본부

Kohn Pederson Fox Associates71 설계한 이 유명 신문사의 본부 건물군 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반사 유리로 처리된 건물통률 은 원경에서 볼 경우 그 기하학적 형태 들이 만들어내는 관계가 돋보이지만 실 제로는 내부의 정원 공간을 향해 개방 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건물 주 변을 야외 주차장으로 채우기보다는 별 도의 주차 건물을 만듦으로써 이상적인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거 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길이 방향에 제한을 둠으로써 모든 영역에 자연 체광이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 테리어는 Lehman-Smith+McLeish 가 맡았다.

그 외에 ▶ Tod Williams Billie Tsien Architects의 미국 뉴욕 American Folk Art Museum, ▶ Selldorf Architects의 미국 뉴욕 Neue Galeries. > Axel Schultes Architekten의 독일 베를린 영사관 사 무국 등이 소개되어 있다.

■기타

▶ 뉴욕 세계무역센터 부지에 대한 향 후의 건축 계획, ▶ Christopher Alexander의 최근 저서에 대한 평가, ▶ 대형 프로젝트에서 실현되고 있는 Buckminster Fuller의 장스팬 건축 계 획들. ▶ 최신 조명 설계의 사례들이 소 개되고 있으며, ▶ 건물 타입별 연구에 서는 스포츠 스타디움을 다뤄 월드컵이 열렸던 일본의 삿포로 돔 구장 등을 소 개하고 있다 (번역 / 전신영)

세무안내 taxation business

신용카드변칙거래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추진해 온 신용카드사 용 확대정책은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등 광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냐 일부 기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어 신용카드 거래질 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9,800여곳에 이르며, 이들 을 이용한 변칙거래는 대부분 탈세로 이어 질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과 공평과세 를 저해하는 요소로 선진세정, 선진사회 구 현을 위하여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불 법 행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장기맹정 색축 및 실시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위장기맹접 색출 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으로 2001. 년도 중에도 3.890개의 위장기맹점을
- 위장가맹점에 대하여는 고발 등 대응조 치를 강화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 는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위장기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실사업자 를 확인
- ■위장기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 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장함은 물론, 여 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 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 ※ 위장기맹점 등 변칙거래자에 대한 처벌 규정(여신전문금융얼법)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	
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	
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1년이하의 장
대우하는 행위	역 또는 1천
•기맹점수수료를 신용키드회원 등으	만원이하의
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행위	벌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다른 신용카드기맹점 명의로 신용카	
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	
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	-3년이하의 징
로기장하는 행위	역 또는 2천
• 실제 애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만원이하의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벌금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	
는 행위	

위장기맹점과 거래한 시엄자에 대한 제재규정

- 접태비 등의 손금 불산입
- •재화 등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은 절대비로 보지 아니함
-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 른 경우를 말함
- 매인세액 공제 배제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

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 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 입세액으로 보나, 위장기맹점이 발행한 <u>식용카드매출전표는 매인세액 공제 배제</u>

■ 신용카드통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공자

- 다른 신용카드기맹점 명의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 우에는 보상금(복권 당첨금) 지급대상에 서 제외
- ☆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2002. 11.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 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동 초 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 나, 신용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 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싶시

-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는 세금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용 방해하므로 이를 근절 하기 위하여 많은 조사인력을 투입, 반복 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지속 적이고 강력한 대용조치를 해 나갈 것임.
 - ◇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이용자를 통 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로 실사업자 를 색출하여 업정한 세무조사실시
 - ◇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불성실 혐의 지가 체크될 수 있는 업무처리시. 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 운영
 - ◇ 신용키드 위장기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 발·운영과 적발된 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등 대응 조치 강화
 - ※ 위장가맹점 고발자 포상금(건당 10만원) 제도 설시 중임

자료제공 및 문의 -

국세청 납세홈보과(02-397-1397) E-mail: ho25400@nts.go.kr